

연구보고서	2003-17
-------	---------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금재호 · 류재우
전병유 · 최강식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자영업에 대한 기존 연구	(전병유·최강식) 7
제1절 국내의 연구	7
제2절 해외의 연구	15
1. 자영업 결정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 정리	15
2. 자영업 결정에 대한 세부적 연구	19
제3장 OECD국가의 자영업	(최강식) 33
제1절 OECD국가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	33
제2절 OECD국가 자영업의 유입과 탈출	42
제3절 자영업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48
1. 자영업의 소득	48
2. 근무조건	49
3. 직업만족도	51
4.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	53
제4절 자영업에 대한 각국의 정책	54
제4장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금재호) 58
제1절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58
1.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의 변화	58
2. 성별 분포와 변화	64

3. 연령별 분포와 변화	67
4. 학력별 분포와 변화	72
5. 가구주와의 관계 및 혼인상태	76
6. 산업별 분포와 변화	79
7. 직업별 분포와 변화	83
제2절 자영업주의 특성	87
1. 인구학적 특성	87
2. 자영업주의 산업과 직업	93
제3절 근로시간	100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월평균 근로일수	100
2. 주당 근로시간	102
제4절 자영업의 매출과 소득	105
제5절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	108
1. 자영업의 시작 동기와 사업의 성공 여부	108
2. 창업 과정	112
3. 사업체의 운영 현황	114
4. 사업 시작시의 총 자본금과 조달방법	116
5.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122
제6절 소 결	129
제5장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전병유) 134
제1절 문제의 제기	134
제2절 자영업 선택의 요인과 분석 방법론	135
1. 자영업 선택의 가설과 변수	135
2. 자영업 선택의 모형	139
제3절 사용된 자료의 기초분석	143
제4절 자영업 선택 모형의 추정 결과	147
제5절 소 결	162
제6장 자영업의 소득과 선택	(류재우) 164

제1절 문제의 제기	164
제2절 사용된 자료 및 용어	167
제3절 자료의 기초분석	169
제4절 자영업 부문의 상대적 소득기회와 변화	174
1. 소득수준의 변화	174
2. 소득분포의 변화	179
제5절 자영업 취업자의 선택성 및 그 변화	183
1. 신규 진입자의 특성: 전직(前職) 자료의 분석	183
2. 선택성에 관한 회귀분석	186
제6절 소 결	195
제7장 자영업의 생존과 소멸	(금재호) 197
제1절 문제의 제기	197
제2절 자영업의 생존기간	198
제3절 자영업의 소멸	201
1. 자영업에서의 이탈요인	201
2. 자영업 이탈과 이직의 자발성	207
제4절 소 결	209
제8장 주요 결과 및 향후 과제	211
제1절 주요 결과	211
제2절 향후 과제	219
참고문헌	222
부표 및 부도	227

표 목 차

<표 3-1> 비농부문 자영업자 비중: 1973~98년	35
<표 3-2> 자영업 및 민간총고용 연평균 증가율	36
<표 3-3> 성별 자영업: 자영업자의 연평균 성장률	38
<표 3-4> 성별 자영업: 자영업자의 비중	39
<표 3-5> 자영업자 중 고용주의 비중: 1983, 1990, 1997년	40
<표 3-6> 자영업 유입률 및 탈출률: 연평균 유입 및 탈출률 (자영업 대비)	43
<표 3-7> 1년 전 실업자의 현재 노동시장 지위: 농업 제외	44
<표 3-8> 자영업의 고용 안정성: 1년 전 노동시장 지위와 같은 비율	46
<표 3-9> 고용주의 유입 및 탈출률: 고용주 대비	47
<표 3-10> 자영업자의 근무조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확률, 로짓모형	50
<표 3-11>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 근로시간별, 성별, European Union: 1995/96년	52
<표 3-12> 자영업과 임금근로에 대한 선호도: European Union, 1998년	53
<표 3-13> 정부의 실업자 창업지원: OECD 주요국	57
<표 4-1>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2001년	59
<표 4-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전산업	60
<표 4-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농림수산업 제외	63
<표 4-4> 종사상 지위별 남성 취업자 비중의 변화: 전산업	65
<표 4-5>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비중의 변화: 전산업	66
<표 4-6> 연령대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 전산업	68
<표 4-7> 학력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 전산업	73

<표 4-8> 가구주와 관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전산업	77
<표 4-9> 산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와 추이: 전산업	80
<표 4-10> 산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와 추이: 전산업	81
<표 4-11> 직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와 추이: 전산업	84
<표 4-12> 직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와 추이: 전산업	85
<표 4-13>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가구주 관계 및 결혼	88
<표 4-14>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가구주 관계 및 결혼	89
<표 4-15> 자영업주의 학력 및 전공별 분포	91
<표 4-16> 자영업주의 학력 및 전공별 분포	92
<표 4-17> 자영업주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고용형태 기준	94
<표 4-18> 자영업주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산업·직업 기준	95
<표 4-19> 자영업주의 산업과 직업 분포: 성별·연령대별 특성	97
<표 4-20> 자영업주의 산업과 직업 분포: 학력별·혼인상태별 특성	99
<표 4-21>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101
<표 4-2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103
<표 4-23>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04
<표 4-24>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107
<표 4-25> 사업시작의 동기: 성별	109
<표 4-26> 사업시작의 동기: 연령대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110
<표 4-27>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113
<표 4-28> 현재 사업의 어려움 정도	114
<표 4-29> 총자본금과 조달방법: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창업연도별	118

<표 4-30> 총자본금과 조달방법: 산업 및 직업별	121
<표 4-31> 고용형태와 일자리 만족도: 2001년	123
<표 4-32> 일자리 만족도의 변화: 1998, 2001년	124
<표 4-33> 일자리 만족도와 자영업주의 특성: 2001년	126
<표 4-34> 일자리 만족도와 자영업주의 산업 및 직업: 2001년	127
<표 4-35>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다변량 로짓(logit) 추정 결과	129
<표 5-1>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	144
<표 5-2>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	149
<표 5-3> 자영업 선택에 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	150
<표 5-4> 임금근로자의 소득함수 추정 결과	153
<표 5-5> 자영업주의 소득함수 추정 결과	154
<표 5-6> 선택편의와 소득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추정 결과	156
<표 5-7> 자영업 비율 결정 모델 추정 결과	161
<표 6-1> 자영업주 비중의 변화: 비농, 남자	170
<표 6-2> 자영업 종사자의 고용상의 특성 및 변화: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72
<표 6-3> 자영업주의 매출 규모와 소득범주: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76
<표 6-4> 평균소득, 중위소득: 비농업,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77
<표 6-5> 자영소득의 변이계수: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80
<표 6-6> 자영업 소득의 불균등 지수: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81
<표 6-7> 회귀식 잔차에 기초한 자영업주의 소득 불균등 지수: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82
<표 6-8> 자영업 신규 진입자의 특성: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85
<표 6-9> 자영업 부문 선택식의 추정: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89

<표 6-10> 자영업주의 소득 결정식의 추정: 비농업,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192
<표 6-11> 선택편의항 계수의 연도별 추이	194
<표 7-1> 자영업 생존기간의 OLS 추정 결과	200
<표 7-2> 설명변수의 평균값	203
<표 7-3> 자영업 이탈의 로짓(logit) 추정 결과	206
<표 7-4> 다변량 로짓을 사용한 자영업 이탈 모형의 추정 결과	208

그림목차

[그림 4-1] 한국과 외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비교: 2001년	59
[그림 4-2] 농림어업종사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61
[그림 4-3]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62
[그림 4-4]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자영업주 비중의 추이	65
[그림 4-5-1] 2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69
[그림 4-5-2] 3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69
[그림 4-5-3] 4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70
[그림 4-5-4] 5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70
[그림 4-5-5] 60대 이상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71
[그림 4-6-1] 고졸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74
[그림 4-6-2] 전문대졸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	74
[그림 4-6-3] 대졸 이상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75
[그림 4-7]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분포와 추이: 전산업	78
[그림 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의 분포와 추세: 전산업	83
[그림 4-9] (준)전문가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와 추이: 전산업	86
[그림 4-10]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와 추이: 전산업	87
[그림 4-11]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998~2001년	103
[그림 4-12] 비임금근로자의 연간 매출액	106
[그림 4-13]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비교: 1998~2001년	106
[그림 4-14] 자영업의 시작 동기와 사업의 평가	112
[그림 4-15] 창업훈련 이수 여부	113

[그림 4-16]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115
[그림 4-17] 사업체의 중장기적 목표	116
[그림 4-18] 창업자본금 조달방법	117
[그림 4-19] 자영업 시작의 연령과 총 자본금	120
[그림 5-1] 비농가실업률과 비농자영업 비율간의 상관관계: 월별 자료	
	159
[그림 7-1] 사업체 생존기간	199
[그림 7-2] 학력과 자영업 창업 연도	201
[부도 1]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추이	230
[부도 2] 초등졸 이하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	230
[부도 3] 중졸 이하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231

책머리에 부쳐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숫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값으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주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영세한 저소득층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 자영업 부문이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완충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영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자영업 노동시장의 중요성에 비해 아쉽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활발하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약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대란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임금근로자 또는 실업자였으며,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자영업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영업 노동시장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방대하고 다양한 자영업 노동시장을 한 권의 보고서로 모두 설명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의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금재호 박사를 중심으로 전병유 박사, 그리고 국민대의 류재우 교수와 연세대의 최강식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책

이 출판되기까지 애써 준 출판팀과 최은남 조원에게도 필자를 대신하여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7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요약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 외국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주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의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이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비임금 부문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의 의문이 발생한다. 또한 임금 부문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 임금 부문의 취약점을 해결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덮어두고(cover-up)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1990년대 자영업 비중의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며, 자영업의 증가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숙고되어야 한다. 자영업의 증가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결과인지에 대한 평가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주의 특성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주의 증가현상 자체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과 비합리적 선택 모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노동시장의 중요성에 비해 아쉽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활발하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약한 실정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그 성격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도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초점을 한 곳에 집중시키며, 자영업의 세부 부문별 그리고 특성별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수준이 충분치 못하여 아직도 개략적이고 포괄적 연구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자영업의 다양한 집단에 대해 집단별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구축하는 데 기본적 목표를 두고 있다.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해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자영업 연구를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주요한 이슈에 대해 분석한다.

2. 주요 내용 및 결과

가. 기존 연구와 OECD국가의 자영업

이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절에서는 기존의 국내 연구를 정리하여 자영업 연구의 진행상황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2절에서는 자영업에 관련된 핵심적 해외의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하여 OECD국가의 자영업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의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를 설명하고, 자영업의 유입과 탈출률,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자영업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OECD국가들의 자영업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나.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1988년 이후 200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통해 기초분석을 하였고, 제2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1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이 특징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2001년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자영업주가 28.9%, 무급가족종사자가 8.7%로 37.6%에 달하며, 이는 일본의 15.9%, 독일 11.0%, 영국 12.2% 및 미국의 7.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값이다. 이는 분석 범위를 비농림 부문으로 제한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2.0%에 달한다.

둘째, 분석대상을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비농전산업으로 제한하였을 경우, 1990대에 걸쳐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주의 비중 증가가 명확하다.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3년의 23.1%에서 2001년 25.3%로 높아졌고, 이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를 이끈 핵심적 요인이다.

취업자의 절대수도 비농 부문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자영업주의 수는 1993~2001년 사이 3,808천명에서 4,370천명으로 증가하여 다른 많은 OECD국가들과 같이 전체 고용증가율보다 자영업주의 고용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성별로 1990대에 발견되는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현상은 자영업주, 특히 남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2~2001년 사이 여성 자영업주

의 비중은 안정적인 데 비해 남성은 동 기간 26.0%에서 30.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OECD국가들에서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주 숫자의 증가는 주로 40대 계층에서의 증가에 기인한 점이 크며,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창업을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섯째, 근로자의 취업형태에 있어 40대는 일종의 전환기로 40대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20대에 10%대 미만이던 자영업주의 비중은 30대에 20%대로 높아지고, 다시 40대에는 30%대로, 50대에서는 40% 가까운 비중으로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주의 평균 연령이 47.5세인 반면,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6.8세로 10세 이상의 격차가 있다.

여섯째, 자영업주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다. 자영업주 중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는 17.5%에 불과하나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그 비중이 38.2%에 달한다. 그러나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분포와 추이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숫자와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고졸 이상 학력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반적인 취업자의 고학력화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저학력 취업자의 노동시장 퇴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고험력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의 선택이 자신의 소득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일곱째,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가구주 본인이다. 자영업주 중 가구주는 전기간에 걸쳐 8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14%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거꾸로 대부분이 가구주의 배우자로 그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 이처럼 가구주의 비중이 낮은 현상은 배우자가 실

질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표면적으로는 가구주를 자영업의 대표로 내세우는 남성 중심의 문화와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여덟째, 가구주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90대년에 걸쳐 약간씩 하락한 한편 배우자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특히 주부의 경제활동 증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또한 과거의 부부 공동 운영방식의 자영업 비중이 낮아지면서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홉째,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숫자는 1993년의 3,264천명에서 2001년에는 4,280천명으로 31.1%가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내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주가 집중되어 있어 2001년의 경우 전체 자영업주의 37.5%인 2,313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비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산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여성 자영업주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다양한 업종에 참여하고 있다.

열째, 자영업주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숫자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숫자는 2001년 현재 2,358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주의 38.2%를 점유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3년의 6.3%에서 2001년에는 11.9%로 크게 높아졌다. 1990년대 자영업 시장을 직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영(준)전문가 집단의 성장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근로자화가 1990년대에 관찰된다.

자영업주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

국노동패널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들은 월평균 27.3일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본의 89.7% 이상이 월 25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은 2001년 55.7시간으로 1998년의 59.8시간에 비해 2.1시간 줄어들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로시간이 30분 정도 긴데 이는 여성 비임금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장시간 근로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연평균 매출액은 1억 617만원이며, 월평균 소득은 177.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9년의 128.5만원에 비해 1.4배 증가한 값으로 자영업자보다는 고용주의 소득상승에 주로 기인한다.

제5절에서는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영업의 시작 동기를 질문한 결과 20~30대의 젊은 층에서는 ‘좋아하는 업종이어서’나 ‘남의 간섭이 싫어’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실직 후 생계 또는 정년퇴직 대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는 사업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때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제4절에서는 자영업주의 근로소득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2001년도의 창업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자영업주들은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혹은 다른 외적 요인들보다는 ‘자금확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의 사업운영에도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창업에 소요된 총자본금의 현재 가치는 평균 1억 2,85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자본율은 평균 80.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1억 4,624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여성은 남성의 58.9%에 불과하여 여성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득도 낮을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창업시 투입된 자금이

많고 나이가 젊어서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장기간 사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영업의 성공 여부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낮다. 이는 OECD국가에서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만족도의 분산은 자영업주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는 자영업들 사이의 내부적 격차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의 핵심적 결과는 소득 등 근로자간 경제적 격차가 임금 부문보다 자영업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며, 또한 1990대에 걸쳐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자영업이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은 임금근로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 영세민이 되거나 아니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제기한다.

다.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제5장에서는 주로 외환위기 이후의 미시적인 가구조사자료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에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 재정적 제약 여부, 기업가적 환경과 문화 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자영업이나 임금근로를 선택할 때의 예상소득의 차이가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가구조사자료인 한국노동패널(KLIPS) 1998~2001년간의 미시자료와 1998년 이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영업 비율 등과 같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재정적 제약이 자영업 선택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적 제약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소득이 자영업 선택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의 경우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의 경우, 축약형의 프로빗 모형에서는 남성에게서보다는 여성에게서 자영업 선택에 더 유의하게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가 포함된 구조모형에서는 여성의 경우 아주 유의하게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넷째,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시적인 분석에서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구조적 모형의 추정 결과, 실업률의 회귀계수가 (-)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고,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의 복잡한 내부 구성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영업의 소득과 선택

제6장에서는 임금 부문과 비교한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의 변화와 선택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자영업 부문은 소득수준, 소득 분산 등의 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증대되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영 부문 종사자의 숙련수준과 관련해서는 음의 선택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자영업주의 이러한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의한 하락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영 부문 취업자 비중의 증가가 자영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창출에 의한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근래의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과 기업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영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영 부문에서의 기회의 (상대적인) 증대는 자영부문 특수적인 숙련의 분산의 증대를 수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불균등도의 확대, 영세 자영업의 생성과 소멸률(turnover rate)의 증대, 저숙련 자영업주가 고숙련 자영업주에 의해 구축되어지는(crowded out) 현상의 심화 등이 진행되어왔거나 될 것임을 제시한다. 특히 전통적인 저숙련 자영업주의 고용 및 소득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 자영업의 생존과 소멸

제7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생존기간 및 이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임금근로자가 사업체를 창립한 시점으로부터 노동패널조사 시점(2001년)까지의 사업체 생존기간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1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영업자의 사업체 생존기간(15.3년)이 고용주(8.4년)보다 약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초기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고 연령이 젊어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Bate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영업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자영업에서 벗어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인구학적 변수 및 교육기간은 자영업 이탈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중립적인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고, 자영업에서도 직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가구소득과 자영업주 개인소득 모두 자영업의 이탈 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이직확률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자영업자 개인의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여섯째, 가구의 총 자산이나 총 부채 규모가 자영업의 지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모형에서 가구소득과 자영업 개인소득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총 자산의 증가가 자영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자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

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업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추후의 과제는 자영업을 이탈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감에 따라 소득 또는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자영업의 경험이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취업 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의 문제는 개인적인 관심을 떠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사실상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3. 종합적 평가와 정책방향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자영업주의 소득불평등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이러한 문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자영업의 비중증가가 자영 부문에서의 새로운 소득기회의 창출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한 부문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참여한 이들의 비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영업주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영업 부문에 아직도 잉여인력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잉여인력을 흡수하는 자영업의 완충기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정부의 고용정책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도록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자영업에 관련된 정책은 주로 실업자의 창업지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창업지원은 그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지원이 노동시장의 효

을성을 증대시키고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비효율적 요인이 많은 부문(특히 도소매 판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 의 지원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잠재적인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자영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그 선택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주에 대한 심층적인 직업안정서비스의 제공 및 컨설팅, 그리고 직업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자영업주, 특히 영세 자영업주에게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등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직업교육 및 훈련시스템에서는 영세 자영업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영세 자영업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세 자영업주를 이들 취약계층과 거의 동일시하여 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1장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2001년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7.6%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나 대만, 홍콩 등의 경쟁 상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주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이 세계화, 기술진보, 경영시스템의 변화 등과 같은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특징적인 추세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한 저소득층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 자영업 부문이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완충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영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중요하다. 방대한 규모의 자영업 노동시장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경제 및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숨기고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기술진보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도소매 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경쟁심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도시 빈민화되거나 불완전 고용될 위험성이 제기된다. 이는 소득분배의

2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악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자영업 증가가 국가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못하며, 자영업의 증가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영업의 증가현상이 자영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또는 소득증가의 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면 이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과 동시에 국가경제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임금 부문에서 퇴출되었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가 임금 부문에의 (재)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로 자영업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증가추세를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방대한 규모의 자영업 부문의 존재와 최근의 자영업 증가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결과인지에 대한 평가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특성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 부문 자체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과 비자발적 선택 모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 노동시장이 소득과 고용의 질 등에서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존의 연구결과들도 복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대만과 같은 국가와는 달리 많은 자영업주와 소규모 사업체의 존재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제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어떤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자영업 노동시장의 중요성에 비해 아쉽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활발하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미미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실업대란에서도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임금근로자 또는 실업자이었으며,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또한 자영업과 관련된 실업대책도 실업자의 창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로 어떤 분야에 무슨 창업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

는 정책적 대안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창업촉진 및 지원은 도리어 잠재적 실업자를 양산하고 노동시장의 내재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위험성까지 우려되었다.

앞의 논의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그 성격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도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초점을 한 곳에 집중시키며, 자영업의 세부 부문별·특성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수준이 충분치 못하여 아직도 개략적이고 포괄적 연구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노출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자영업의 다양한 집단에 대해 집단별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적 토대의 구축을 가장 기본적 목표로 한다. 즉 이 연구는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장이 아니라 자영업에 대한 향후 연구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자영업 연구를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자영업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의 심층 분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에 이어 다음 장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제1절에서 기존의 국내 연구를 정리하여 자영업 연구의 진행상황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제2절에서는 자영업에 관련된 핵심적 해외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자영업 연구의 이슈와 방법론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하여 OECD국가의 자영업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의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를 설명하고, 자영업의 유입과 탈출률,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자영업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OECD국가들의 자영업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첫번째 절에서는 1988년 이후 2002년 8월까지의 기

4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간 동안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를 인구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두번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세번째 절에서는 근로시간, 그리고 네번째 절에서는 자영업의 소득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있으며, 다섯번째 절에서는 자영업의 창업과 운영에 관련되어 자영업의 시작 동기, 소요 자본, 만족도, 창업훈련 등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핵심적 분석 결과의 하나는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임금 부문보다 자영업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며,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1990대에 걸쳐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자영업이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은 임금근로자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 영세민이 되거나 아니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자영업주의 일자리 만족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제5장에서는 주로 외환위기 이후의 미시적인 가구조사자료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에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 재정적 제약 여부, 기업가적 환경과 문화 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자영업이나 임금근로를 선택할 때의 예상소득의 차이가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이 장에서는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 조건 등에 관한 변수가 자영업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검토하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임금 부문과 비교한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의 변화와 선택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분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자영업 부문은 소득수준, 소득 분산 등의 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증대되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영 부문 종사자의 숙련수준과 관련해서는 음의 선택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자영업주의 이러한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의한 하락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영 부문 취업자 비중의 증가가 자영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창출에 의한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7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자영업 사업체의 생존기간과 이탈확률을 대략적으로 분석한다. 사업체의 생존기간과 이탈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분석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영업체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표본절단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발생하는 오류를 완화하기 위해 생존기간과 이탈의 두 측면을 동시에 살펴본다. 분석결과 초기자본금이 많이 투입되고 젊어서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및 판매업의 경우 일찍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 등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요약하고 향후의 연구방향 및 정책적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자영업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합리적인 정책대안도 개발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자영업 노동시장의 효율성,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정책에 자영업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저자본·저기능·저소득·저학력의 자영업주를 위한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자영업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처하여 있고, 이에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신규 졸업자 등에 대한 관심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개선시켰는가를 평가하고 자영업 부문의 발전을 위

6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 정책적 요구가 무엇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영업 노동시장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영업 연구는 많은 한계에 부딪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및 노동시장의 구조상 자영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자영업 노동시장을 세부 부문별·특성별로 심층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위한 출발점 또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제2장 자영업에 대한 기존 연구

제1절 국내의 연구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자영업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류재우·최호영(1999, 2000)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자영업자의 기본 특징을 분석하고 1990년대 들어 자영업자 비율의 축소 경향이 역전된 원인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초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우영(2000, 2001a), 금재호·조준모(2000), 안주엽(2000), 성지미(2002) 등은 자영업 선택에 관해서 좀더 엄밀한 경제학적인 분석 틀과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영업의 특징, 추세, 자영업 결정요인 등에 대한 분석 이외에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성지미·안주엽(2002), 자영업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김우영·김응규(2001) 등 자영업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류재우·최호영(1999)은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통계청에서 월별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1985~98년까지 각년도의 10

8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10월을 선택한 것은 연평균으로부터의 계절적 편차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자영업 부문의 특성 및 그 변화 그리고 자영업 고용비중 변화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장 주된 관심은 자영업 비중 축소 경향이 1990년대 이후 왜 역전되었는가에 있다. 연구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고 구성도 매우 이질적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비농가 남자 취업자의 30% 가량이 자영업주인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와 같은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비슷한 1인당 GDP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율은 높은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자영업주가 되려는 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와 여러 면에서 이질적이며 자영업주 집단 내의 이질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이유는 자영업주 범주에 고숙련-고능력의 '기업가형' 자영업주와 저숙련-저능력의 '생계형' 자영업주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1990년까지 감소하던 자영업주 비율은 이후 반전하여 1998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98년까지 비농취업자 증가의 45%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 부문 고용비중 변화 요인을 요인분해와 로짓(logit)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 자영업주 비율증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및 순수 자영업자 비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자영업주가 되려는 근로자들의 성향도 증대되어 왔다는 점 또한 자영업주 비율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1997년 말 이후의 외환위기 과정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순수 자영업자의 수가 11.6만명이 늘어났는데 이같이 순수 자영 부문에서의 신규 고용의 창출은 도시의 영세 자영 부문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실업 부담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 연구자

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의 자영업 성향 증대가 임금근로 기회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 기회의 확대 때문인지에 대한 분석까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의식과 연구는 류재우·최호영(2000)에서 더 보완되고 있다. 류재우·최호영(2000)은 1990년대 이후 자영업 증가 경향을 자영업과 비경제활동, 실업간의 노동력의 유동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자영업 부문을 둘러싼 진입 및 퇴출 행태의 특성을 이행확률 모형으로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취업자 중의 자영업 부문 종사자수의 비중의 변화 요인을 자영업으로의 이행확률, 자영업 빈도, 자영업 지속기간 등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도 단순한 시계열 또는 횡단면 자료가 아니라 198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물론 패널자료 구축 과정에서 표본이 일부 탈락하였다는 점과 계절적 편차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자료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자영업 분석에서 패널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로는 1990년대 이후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의 증가가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을 장기간 지속하는 확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영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장기간 지속하는 경향이 외환위기 이전 자영업 비율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에 있어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와의 유동 및 주로 자영업과 임시 및 일고 형태의 불안정한 취업 사이의 유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주로 한계적 취업자에 국한된 현상이고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의 평균적인 질과 고용안정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주의 비율이 증가한 현상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음의 몇 가지 가능한 설명들이 제기된다. 먼저,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확대와 같은 변화로 벤처기업 및

10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창업의 확산과 함께 보험대리인, 프리랜서 등과 같은 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중간에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세계화 및 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분사화,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의 확산도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이러한 서비스업의 확대가 자영업 창업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1990년대 초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구조조정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이에 자영업 창업의 열기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의 영향이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자영업주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만약 1990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자영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이는 자영업주의 세후(稅後) 소득을 높여 자영업주의 증대를 이끌었을 수 있다.

한편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등은 자영업의 선택, 즉 자영업의 결정 요인에 대한 최초의 분석적인 연구라고 판단된다. 이들은 모두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김우영(2000)에서는 자영업 선택과 관련한 연구 주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주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과거의 취업형태가 현재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의 취업형태가 자식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자영업주의 결정에 있어 자본제약이 중요한가, 다섯째, 취업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적용되는가 등이다.

김우영(2000)의 경우, 남성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영업과 임금근로만을 고려하는 2부문 모형에서는 자영업/임금근로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험, 특히 전직장에서의 자영업의 경험, 아버지의 취업형태, 연령, 혼인

여부, 산업 및 직업 등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재산은 자영업의 결정요인에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재산의 대용변수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거나 횡단면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주, 정규직, 비정규직 등 4부문 모형에서는 고용주/자영업자의 결정요인을 보면 자영업을 처음 선택하는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시에 있는 사람일수록, 전문직일수록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농·수산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자영업/임금근로의 선택에 있어서 실제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은 자영업주의 평균 능력 이하인 사람으로 나타나 이들의 평균 소득이 무작위로 추출된 자영업주의 평균 소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임금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역선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주를 고용주/자영업자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결과, 고용주와 정규직의 선택에서는 역선택이 나타나지만,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서는 역선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단 자영업/임금근로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취업형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용주만이 역선택이 나타나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방향으로 취업형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주에서 역선택이 일어나는 이유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영업이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구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금재호·조준모(2000)의 경우, 이러한 자영업에서의 이질적 구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저능력자군과 고능력자군의 둘로 구성된 분단노동시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고 KLIPS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이들 분석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수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의 핵심은 직장 경험이 없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 정규직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영

12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업을 선택하는 반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개인들의 경우 일반적 인적자본(생애취업기간)에 대한 한계수익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자영업자가 되는 근로자는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득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고능력자군으로 파악되고, 신규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을 선택한 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이 어렵거나 유보임금이 높아 기대수준에 미치는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저능력자군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영업 노동시장이 저능력자군과 고능력자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우영(2001)은 왜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을 덜 선택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남녀간 자영업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 마코브(Markov) 모형에 기초해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추정하고, 두번째로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해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년도 1~12월 자료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영업주가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자영업주가 되면 자영업에서 이직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부문의 이행확률함수를 분해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입직확률이 높은 이유는 속성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설명되지 않는 차이)에 기인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이직확률이 낮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적합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는 가구주, 연령, 농가부문, 도시거주가, 그 격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비자영업 형태, 혼인 형태, 교육, 자영업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주의 범주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킬 경우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지만 그 격차의 분해결과는 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우영(2001)은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혼자나 사별자가 기혼자보다 자영업으로의 입직확률이 높으며 자영업 부문으로부터의 이직확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이혼 혹은 사별하였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영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장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창업을 돕는 정부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자영업으로의 입직확률이 낮고 동시에 자영업으로부터의 이직확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자영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영업 선택과 관련해 성지미(2002)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비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은 것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결혼과 자녀보육이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선택이 자유로운 자영업이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력 유지를 병행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가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자료이다. 분석 결과는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은 낮지만 근로시간의 감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영업 선택과 근로시간 유연성간의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근로시간의 조정과 관련된 상세한 설문조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들의 자영업 선택과 관련해서는 안주엽(200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도 KLIPS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고, 경제위기 전후의 실직경험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경과기간의 분석을 통하여 임금근로나 자영업을 통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

14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석에서 자영업 선택과 관련해 중요한 분석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임금근로 일자리를 통한 조건부 재취업확률이 자영업 일자리를 통한 경우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성지미·안주엽(2002)은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자영업주 개인과 자영업 사업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정신과 관련된 요인들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KLIPS 4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교육기간, 이전직장의 경험,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사업체 소재지 등은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반면, 자영업 지속기간이나 자영업 형태,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이수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영업 경험은 자영업 소득에 남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직 임금근로의 경험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위한 서열화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 자영업 창업동기와 중장기 목표는 자영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반면, 이전 직장에서의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 경험은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자영업자를 표본으로 하여 여성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여성의 자영업 소득 또는 시간당 소득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변수는 자영업 지속기간, 자영업 형태, 이전 직장 경험, 사업장 소재지 등에 불과하였다. 또한 여성의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영업 소득, 연간매출액, 자영업 규모, 전문직 경험, 자영업 창업동기 중 가정생산병립형, 자영업 중장기 목표 중 고객지향형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김우영·김응규(2001)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최근 선진국의 경우에 나타나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들보다 직업만족도가 높다”라는 연구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지, 그리고 자영업주의 직업만족도는 경기변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와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초자료 분석 및 서열화 프로빗 추정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전반적으로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경우에는 수입에 있어서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약간 더 만족하고 있으나 직업안정성,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가 오히려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아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사이에 직업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가 자영업주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995년에서 1998년으로 오면서 자영업주의 직업만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자영업주의 직업만족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자영업주의 직업만족도가 경기변동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한 자영업자들의 상당부분은 임금부문에서 밀려난 후 자영업 부문에서 취업기회를 찾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처럼 타의에 의한 마지막 선택,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의 직업만족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큰 사회적 비용의 증가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자의 창업만을 도울 것이 아니라 창업 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 지원하는 정책에도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2절 해외의 연구

1. 자영업 결정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 정리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GDP 수준에 비해

16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 수준과 자영업의 비중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OECD, 2000; 류재우·최호영, 1999).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까지 비중이 감소를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다른 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선택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자영업이 더 많은 생애소득을 가져온다고 예상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영업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근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다. 첫째,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 여부이다. 둘째는 자영업과 임금소득간에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보상(예를 들면, 자율성의 확보 등)이 자영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개인의 능력과 위험에 대한 태도의 차이이다. 넷째는 가족의 배경 등이 자영업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첫째 부류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진출하지 못하고, 유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자영업으로의 진출이 더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Evans and Jovanovic(1989)은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Holtz-Eakin, Joulfaian, Rosen(1994) 역시 기업가들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자기 자신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8)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싶지만 자본 제약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1개국의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

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9)에서 만약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한다면 임금근로와 자영업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절반 정도, 혹은 미국의 경우 63%가 자영업을 선택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이들 국가의 자영업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데 주요한 장벽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등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둘째, Hamilton(2000)은 자영업 근로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면서 비금전적인 보상, 예를 들면 자신이 주인인 점 등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2) 역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임금근로자들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였다. Evans and Leighton(1989)은 자율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Lombard(2001)는 여성의 경우 근무시간이 탄력적인 것을 원할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으며, Blau(1987)는 기술진보의 정도, 사회보장시스템, 조세제도 등이 자영업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세번째 부류의 연구 중 Praag and Cramer(2001)는 자영업자의 기대 보상은 개인의 능력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았다. 이들은 네덜란드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것들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분포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Kanbur(1982) 역시 위험을 싫어하는 사업가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였다.

넷째는 가족의 배경이 자영업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Fairlie(1999)는 흑인의 경우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백인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다. 그 이유로 인종의 차이에 따른 자산수준의 차이와 아버지의 자영업 비중이 적다는 점이 흑인이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확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자영업에서의 탈출률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섯째로 조세제도가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Bruce(2000)와 Schuetze(200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Bruce는 미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과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세율의 변화가 자영업 진출의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chuetze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임금에 대한 높은 소득세와 심각한 실업문제는 근로자의 자영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실업에서의 탈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영업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 및 동구권 국가들은 심각한 실업문제에 부딪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로 Pfeiffer and Reize(2000)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창업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받지 않은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Earle and Sakova(2000)는 동구권 국가들의 자영업 창업을 연구하여 동구권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기회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의 실업자들은 자영업 시장에 참여하며 이는 disguised unemployment의 형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한국의 경우에도 각종 차별 및 고용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잠재적 실업자이거나 또는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의 성과 및 탈출에 대한 연구도¹⁾ OECD국가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ates(1990)는 자영업주의 학력수준이 높고, 창업시의 자본규모가 클 경우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²⁾ Audretsch(1991)는 기업규모가 적어도 기술혁신이 계속되거나 기술적 우위에 있다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1) 이외에도 Schary(1991)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2)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2. 자영업 결정에 대한 세부적 연구

본 절에서는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연구한 대표적인 기존 문헌 중 일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Evans and Leighton(AER, 1989)의 연구

Evans and Leighton은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66~81년 자료와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1968~87년 자료를 사용해서 평생에 걸쳐 자영업자가 되는 과정과 자영업 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NLSY의 자료에서 1966년에 14~24세 사이였던 백인 남자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보조적인 자료로서 CPS March Supplement를 이용하였다. 먼저 CPS와 NLSY 자료를 이용해서 자영업으로의 진입(entry)과 퇴출(exit)에 대해서 살펴본 후, 임금근로자로서의 경험(wage experience)과 자영업자로서의 경험(self-employment experience)에 대한 보상이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을 때와 자영업자일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NLSY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연령이나 노동시장의 총 경력년수와는 독립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젊은 사람일수록 위험성이 더 높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기존의 Job-Shopping 모형(Jonson, 1978; Miller, 1984)과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자영업을 탈출할 확률은 자영업을 오래 할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에 자영업 진입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로 되돌아간다.

셋째,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초반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고, 그 이후는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한다. 이러한 관계는 생애에 걸친 자영업의 진입과 퇴출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넷째,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면 재산이 많은 남자일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임금근로자로서의 경험(wage experience)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보상은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을 때의 보상보다 자영업자일 경우 더 적다. 그러나 사업 경험에 대한 보상은 임금근로자일 때와 자영업자일 때 둘 다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시간에 걸쳐 자영업에 진입하고 퇴출을 하는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금근로자로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자영업자인 경우에 가치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나이가 든 후에 자영업에 진입하는 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의 경력이 높지만)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자일 수 있다.

여섯째,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실업자, 저임금근로자, 잦은 이직자 등 가난한 임금근로자일수록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주어진 시점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한(misfit) 경우 자영업으로 밀려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일곱째, 심리학의 이론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자신의 성과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사업을 시작할 성향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이 논문에서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s)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사람들의 행동패턴(behaviorial interpretation)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나. Evans and Jovanovic(JPE, 1989)

Evans and Jovanovic은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사업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첫째는 유동성 제약이 Evans and Leighton(1989)의 결과인 자영업자가 되는 확률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결과를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나이가 젊을수

록 entrepreneur와 같은 더 위험한 직업을 택한다는 Jonson(1978), Jovanovic(1979), Miller(1984) 등의 직업선택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축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은 유동성 제약 때문에 힘들어서 실제로 청년층이 사업을 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두번째의 관점은 자본시장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믿음이 있고, 이러한 믿음은 정부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세번째의 관점은 기업가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Frank Knight와 Joseph Schumpeter의 견해가 다른데 유동성 제약이 이들의 논쟁에 본질이라는 것이다. Knight(1921)는 기업가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위험을 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night 역시 자본시장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 때문에 기업가에게 자본을 거의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기업가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고, 여기에 따른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Knight의 주장에 대하여 Schumpeter(1934, 1950)는 기업가와 자본가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별개라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의 역할은 경제 내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현대적인 자본시장에서는 기업가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부담해 줄 자본가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유동성 제약의 정도에 따른 기업가의 선택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유동성 제약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업가적 능력과 이와 상관도가 높은 자산을 최초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본은 이 자산에 비례승수이다. 이 비례승수가 바로 유동성 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L자 모양의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다는 가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1976년에 임금근로자였고, 1978년에 임금근로자이거나 혹은 자영업자인 1,500명의 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ng Men에서 추출되었다.

22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이들의 모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은 자영업에서 자신의 순소득의 기대치가 임금근로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자영업을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근로를 선택한다.

임금(w)은 임금근로자로서의 경력(X_1)과 교육수준(X_2)에 달려 있다. 즉,

$$w = \mu X_1^\gamma X_2^\delta \zeta$$

한편 자영업을 할 경우 얻는 소득 y 는 다음과 같다.

$$y = \theta k^\alpha \varepsilon$$

여기서 θ 는 '기업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k 는 사업에 투자된 자본량을 나타낸다. 오차항(ε)은 로그정규(log-normal) 분포를 가정하고, α 는 $0 < \alpha < 1$ 이다. 즉 능력이 있는 기업가의 총생산이 더 높고, 모든 자본수준에 있어서 한계생산은 정(+)의 값을 지닌다.

이때 기업가의 순소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y + r(z - k)$$

여기서 r 은 (1+이자율)이며, z 는 사업초기의 부(富)를 나타낸다. 만약 $z < k$ 이면 이 사업가는 자본을 빌리는 대출자가 되고 마지막 기에 $r(z-k)$ 만큼을 갚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에 비례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비례승수를 $(\lambda-1)$ 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은 $(\lambda-1)z$ 를 능가할 수 없으며, 개인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lambda z (= z + (\lambda-1)z)$ 가 된다. 그러므로 자본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0 \leq k \leq \lambda z$$

기업가가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이라고 하면, 적정 투자액 k 는 다음의 목적함수를 극대화시키는 투자액이 된다.

$$\max [\theta k^{\alpha} + r(z - k)]$$

제약 조건 아래에서 위의 식을 극대화시켜 주는 최적투자액 k^*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k^* = (\theta \alpha / r)^{(1/1-\alpha)}$$

여기서 기업가가 자본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θ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theta \leq (\lambda z)^{1-\alpha} (r/\alpha)$$

따라서 기업가의 소득은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³⁾

$$\begin{aligned} y &= \theta^{(1/1-\alpha)} (\alpha/r)^{(\alpha/1-\alpha)} \varepsilon && \text{유동성 제약이 없는 경우} \\ &= \theta (\lambda z)^{\alpha} \varepsilon && \text{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 \end{aligned}$$

결국 개인은 자신의 θ 에 따라서 소득이 자영업일 경우와 임금근로자일 경우를 비교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실제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 Evans와 Jovanovic은 유동성 제약의 정도, 기업을 하는 경우 자본 수익률, 기업가 능력 분포의 평균과 분산, 기업가 능력과 자산간의 상관관계 등의 모수(parameter)를 최우추정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개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자신이 처음 가지고 있던 자산의 1.5배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Schumpeter의 주장을 기각하고,

3) 자세한 식의 전개과정은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Knight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즉 자영업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시작하는 사업에 필요한 최적의 자본량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와 함께 이들은 기업가의 능력에 대한 분포함수를 최초로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Evans와 Jovanovic(1989)은 Knight(1921), Lucas(1978), Jovanovic(1982) 등의 연구에서 주장된 대로 기업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가로서의 민첩한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유동성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부자라고 반드시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 Holtz-Eakin, Joulfaian, Rosen(JPE, 1994)

기존의 연구들이 자영업자가 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자영업자에서 퇴출이 되는 요인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자영업의 생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자본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즉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 중 하나인 Bates(1990)의 연구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기업의 생존확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로짓(logit)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내생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동성 제약과 기업의 생존간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Blanchflower and Oswald(1992)가 지적한 대로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는 자연실험과 비슷한 것이므로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81년과 1985년에 유산을 받은 사람들의 연방개인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왜 어떤 기업가는 살아남고 어떤 기업가는 퇴출이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살아남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의 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현재 자영업자인 사람이 직면하는 선택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네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경우, 임금근로자가 되는 경우, 1인 소유기업가가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동업(partnership)에 합류하는 경우 등이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소득 기회(income opportunity)는 다음과 같다.

① 은퇴하는 경우: $Y_i^R = rA_i$, 여기서 A_i 는 개인 자산, r 은 순수익률이다.

②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w_i 라고 표시하면, 임금근로자로의 소득은 $Y_i^W = w_i + rA_i$ 이다.

③ 1인 소유 기업가로서의 활동하는 경우: 기업가로서의 총수입은 $\theta_i \cdot f(k_i) \cdot \epsilon$ 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에서 $f(\cdot)$ 는 자본(k_i)을 생산요소로 하는 생산함수를 나타내고, θ_i 는 기업가로서의 능력, ϵ 은 오차항이다. 개인은 자기의 능력(θ_i)을 알고 있으나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분석가에게는 관찰되지 않는다.

A_i 를 개인의 총자산(assets)이라고 하면, 자영업에 투자된 k_i 를 제외한 ($A_i - k_i$)에서 추가적인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의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Y_i^E = \theta_i \cdot f(k_i) \epsilon + r(A_i - k_i)$$

한편 자본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량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제약을 받게 된다. 즉 자본량은 개인의 순자산의 크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제약을 받는다.

$$k_i \leq l_k(A_i), \text{ 여기서 } l_k'(A_i) > 0$$

기업가는 Y_i^E 를 극대화하는 k_i^* 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세 가지의 가능한 해(解)가 도출된다. 첫번째는 제약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자본의 순수익률이 자본의 기대한계생산물과 같아진다. 즉 $\theta_i \cdot f'(k_i^*) = r$ 이고 기업가의 능력이 높을수록 k_i^* 는 증가한다.

26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두번째 역시 유동성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이지만, 이때에는 기업가의 능력이 크지 않아서 자본의 한계수익이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 $k_i^* = 0$ 이다. 세번째의 경우는 유동성 제약의 구속을 받는 경우이다. 즉 $k_i^* = k_i(A_i)$ 이다.

따라서 k_i^* 는 이자율(r), 기업가로서의 능력(θ_i), 및 개인 자산(A_i)의 함수이고, 기업의 총 산출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입(revenue)을 R_i 라고 할 때,

$$R_i = \theta_i \cdot f(k_i^*) \varepsilon \equiv R(r, \theta_i, A_i, \varepsilon)$$

위의 식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업가의 수입은 자산(assets)이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 즉 자산이 많을수록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산출물도 커지게 된다. 또한 기업가의 소득 역시 이러한 변수들의 함수가 된다. 즉,

$$Y_i^E = \theta_i \cdot f(k_i^*) \varepsilon + r(A_i - k_i^*) \equiv Y^E(r, \theta_i, A_i, \varepsilon)$$

④ 동업(partnership)에 참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번째는 동업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두번째는 기업가의 원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이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동업이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이러한 것을 구분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지만 다른 자료들을 보면 조세피난처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증가가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은퇴하는 경우나 임금근로자인 경우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산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두번째로 조세피난처의 경우 자산이 늘어나면 동업에 참여하여 조세피난의 행위를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 자산이 늘어

나면 1인 소유의 기업가로 머물러 있을 때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제약이 없는 기업가라면 자산이 증가해도 자신의 투자결정 행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산증가로 인하여 기업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은 이와 같은 분석모형을 제시한 후, 실증적으로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다변량 로짓(multinomial logit)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자산(A_i)과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연령(연령의 제곱항), 결혼 여부와 자녀의 수, 가구의 소득, 유산기증자의 노동시장 지위, 기업가의 능력측정 변수 중 하나로 유산을 받기 전까지의 기업실적 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유동성 제약이 1인 소유 기업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5만달러의 유산을 받으면 1인 소유 기업가로 살아남을 확률이 1.3% 증가하고, 살아남은 기업의 수입이 약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Blanchflower and Oswald(JOLE, 1998)

이 논문에서는 실태조사(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자본 제약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 제약으로 인해 결국 자영업 결정 확률이 유산이나 증여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11개국의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of 1989)에서 만약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한다면 임금근로와 자영업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더 높아 63%가 자영업을 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국가의 자영업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필자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데 주요한 장벽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등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앞의 Evans and Leighton(1989)과 Evans and Jovanovic(1989)의 연구와 같이 이들도 NLSY Men(1966~81년) 자료와 CPS(1968~81년)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족의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임금 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프로빗(probit) 추정식에 자산변수를 포함시킨 추정의 결과, 자영업의 선택에 자본과 유동성 제약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반박에 부딪힌다. 즉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부터 소유욕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여가를 포기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경우, 가족의 자산과 자영업이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자본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식이 부모의 회사를 이어받기 때문에 가족의 자산과 자영업이 되는 확률은 정(+)¹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산(inheritance)과 증여(gift)를 이용하여 자본 제약 가설(finance-constraint hypothesis)을 검증하고 있다. 물론 유산과 증여 역시 완전한 임의(random)의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산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일수록 - 관찰이 불가능하지만 - 자영업이 되기 쉬운 배경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 집안 내에서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 역시 관찰 불가능한 이유이지만 -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자영업에 적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Blanchflower와 Oswald는 다른 보완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본이 부족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자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해석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보완적 증거는 심리적 특성의 역할이다. 성인이 되어서 자영업자가 될 확률과 어렸을 때 각종 심리검사 결과와의 상관관계는 별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이 시도한 또 하나의 분석은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하고 임금근로자가 되어 좌절했다면, 자영업자가 된 사람은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설 검정을 시도한 것이다.

마. Hamilton(JPE, 2000)

이 논문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형들이 자영업자로의 진입과 지속적으로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행동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를 판단하려고 시도하였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투자-대리인 모형(Lazear and Moore, 1984)으로 자영업의 임금격차는 부문별로 임금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matching and learning 모형(Roy, 1951; Jovanovic, 1982)으로 개인별로 능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근로와 자영업 중에서 개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격차는 부문별로 근로조건이 다르고 이것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즉 자영업자는 낮은 소득을 얻는 반면 사업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비금전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격차를 분석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남자 기업가의 초기 소득증가율이 새로운 직장을 얻은 임금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기업가의 잠재적인 임금이 임금근로자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위에서 열거한 설명들을 평가하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평균소득은 대다수 기업가들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Rosen(1981)의 슈퍼스타 모형에 따르면 소수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소득이 자영업자의 평균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는 사업체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관찰된 격차가 보상에 대한 진정한 격차인지, 혹은 부문별로 기업 혹은 사업특수적인 소득증가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세무서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순이익(net profit)의 개념은 세금회피를 위해서 과소 신고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없지만 임금근로자에게는 기업주가 제공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이 비교에서 누락되어 있다.

실증적 분석으로 이 연구에서는 1984년의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비교하였다. 이 자료는 순이익뿐만 아니라 자영업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Hamilton은 자영업자가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세금신고용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뭇으로 남겨둔 금액(Draw)에 자본수익 또는 손실을 반영한 EAD(Equity-Adjusted Draw)를 진정한 소득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세금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소 신고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모형에서 i 는 특정 개인을, t 는 관찰년도, 그리고 j 는 종사상의 지위(SE:자영업, PE:임금근로)를 의미한다. 이 때 특정 개인 i 의 t 년도 소득은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Y_{ijt} = H_{it} \delta_j + f_j(\text{EXPR}_{ijt}) + \varepsilon_{ijt}$$

여기서 H_{it} 는 교육 등과 같이 개인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특성변수이며, EXPR_{ijt} 는 경력변수이다.

투자-대리인(Investment and agency) 모형에서는 동일한 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나 임금근로에서 종사하나 기대임금의 현재가치는 같지만, 소득-경력 곡선에서 $f_j(\cdot)$ 가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투자모형에서는 자영업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결과를 고용주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

업의 소득 프로파일(profile)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파르다고 본다. 반면 대리인 모형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소득 프로파일이 자영업자보다 더욱 가파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많은 임금을 지급할 유인이 있지만 자영업에서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Lazear and Moore, 1984).

한편 Matching and learning 모형에서는 개인들이 부문특수적(sector-specific)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들간에 이 부문특수적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택효과라는 것이다. 즉 위의 식 오차항(ε_{ijt})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varepsilon_{ijt} = m_{ij} + \eta_{ijt}$$

여기에서 m_{ij} 는 부문특수적 개인능력을 나타낸다.

로이 모형(Roy model)에서는 근로자가 m_{iSE} 와 m_{iPE} 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문(sector)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Learning 모형에서는 개인이 초기에는 자신의 m_{ij} 를 잘 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문(sector)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영업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 모형과 같이 learning 모형에서도 경력의 축적에 따라 자영업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슈퍼스타(super-star) 모형에서는 능력(skill)의 조그만 차이가 노동시장 소득에는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노동시장에서 판매자들 사이의 대체가 불완전하고 생산비용이 판매량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슈퍼스타가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하나가 개인 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업종이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Learning 모형에서와 같이 근로자는 자신이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임금근로자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MacDonald, 1988). 따라서 자영업의 분포를 보면 경험이 많고 매우 성공적인 소수의 사업가와 경력이 일천하고 소득이 낮은 다수의 근

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모형들은 모두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과 부를 극대화시킨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생산성을 가진 두 부문의 근로자 사이에 소득격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금전적 요인의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근무환경이 더 자유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더 낮은 소득을 받더라도 자영업을 선택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Blanchflower and Oswald(1992)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임금근로자들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였으며, Evans and Leighton(1989) 역시 자율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되는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반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업가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Kanbur, 1982).

이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자영업자에게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비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초기소득이 자영업자보다 높고, 소득증가율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된 사람들의 경우 만약 임금근로자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소득보다 약 35%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의 중위소득 수준은 임금근로를 했을 경우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래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자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근로를 할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선택하고 또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OECD국가의 자영업

제1절 OECD국가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

국가별로 자영업의 비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3-1>에 나타난 비농부문의 민간총고용 대비 자영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멕시코(25.7%), 터키(25.1%), 한국(24.9%) 등이 높게 나타나고, 이탈리아 역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반면에 미국(7.0%), 프랑스(8.2%), 독일(9.4%), 영국(11.4%) 등은 자영업의 비중이 낮다. 또한 노르웨이(5.4%), 덴마크(6.9%), 스웨덴(9.0%), 핀란드(10.0%)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자영업의 비중이 낮다. 전반적으로 보면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이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GDP가 낮은 국가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류재우·최호영(1999)은 36개 국가의 1인당 GDP와 비농 자영업근로자의 비율을 회귀분석한 결과 자영업의 비중과 1인당 GDP간에 역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OECD국가에서는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비농림 부문의 고용에서 전체 고용증가율보다 자영업자의 고용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에 따르면 1973~79년 기간에 19개국에서 자영업 고용증가

의 (국가별) 단순평균은 0.2%이었으나, 민간의 고용증가 단순평균은 1.2%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의 고용증가가 전체 고용증가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9~90년 기간과 1990~98년 기간의 자영업 고용은 전체 민간고용의 증가율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979~90년 기간에 21개국에서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율은 1.4%이었으나, 자영업의 증가율은 2.3%로 나타났다. 또한 1990~98년 기간에는 민간부문 고용증가율이 1.0%이었으나, 자영업의 증가율은 1.7%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몇 가지의 유형이 나타난다. 첫째, 모든 기간에 걸쳐 자영업의 고용증가가 민간 전체의 고용증가보다 크게 나타나는 국가들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79~90년 기간에 민간고용은 2.0%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은 4.1% 증가하였다. 1990~98년에도 민간고용은 0.9%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은 4.7%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1979~90년 기간에 민간고용은 1.4%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은 5.5% 증가하였다. 1990~98년에도 민간고용은 2.2%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은 4.1% 증가하였다.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경우도 모든 기간에 자영업의 고용 증가가 민간보다 빠르다.

둘째, 과거에는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1973~90년 기간에는 자영업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1990~98년 기간에 2.5%(민간고용 전체는 1.2%)의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도 최근 들어 자영업의 고용증가 속도가 민간고용 전체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 우리나라 역시 1990~98년 기간에는 자영업의 고용증가율이 3.8%이었으나 민간 전체의 고용증가는 2.1%에 불과하여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멕시코 역시 한국과 비슷한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는 1979~90년 기간에 자영업의 고용이 무려 6.6% 증가하였다.

〈표 3-1〉 비농부문 자영업자^{a)} 비중 : 1973~98년

(단위: %)

	1973	1979	1983	1989	1990	1996	1998
	비농 민간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호주 ^{b)}	9.5	12.4	12.1	12.9	12.9	11.8	11.8
오스트리아 ^{c)}	11.7	8.9	8.1	6.6	6.6	6.9	7.4
벨기에 ^{d)}	11.2	11.2	12.3	12.9	12.9	14.1	13.9
캐나다 ^{d)}	-	9.9	11.4	11.8	12.3	14.7	-
체코 ^{c)}	-	-	-	-	-	11.7	13.2
덴마크	9.3	9.2	8.5	6.9	7.2	7.1	6.9
핀란드	6.4	6.1	7.0	8.7	8.8	10.3	10.0
프랑스	11.4	10.6	10.5	10.5	9.3	8.5	8.2
독일	9.1	8.2	7.4	7.8	7.7	9.0	9.4
그리스	-	32.0	27.9	27.2	27.4	27.5	-
헝가리 ^{d)}	-	-	-	-	-	14.0	13.1
아이슬란드 ^{c)}	8.3	7.1	7.3	11.2	11.3	15.0	14.8
아일랜드	10.1	10.4	10.7	12.9	13.4	12.8	13.4
이탈리아 ^{c)}	23.1	18.9	20.7	22.4	22.2	23.0	22.7
일본 ^{b)}	14.0	14.0	13.3	12.0	11.5	9.7	9.7
한국	-	-	-	-	21.8	23.8	24.9
룩셈부르크 ^{c)}	11.1	9.4	8.8	7.4	7.1	-	-
멕시코	-	-	-	-	19.9	25.8	25.7
네덜란드	-	8.8	8.6	7.8	7.8	9.8	9.7
뉴질랜드 ^{c)}	-	9.4	-	14.7	14.6	15.7	16.9
노르웨이 ^{e)}	7.8	6.6	6.8	6.4	6.1	5.5	5.4
폴란드	-	-	-	-	-	11.4	16.0
포르투갈 ^{c)}	12.7	12.1	17.0	16.4	16.7	19.8	-
스페인 ^{d)}	16.3	15.7	17.0	17.6	17.1	18.5	17.6
스웨덴	4.8	4.5	4.8	7.1	7.3	9.1	9.0
터키	-	-	-	26.3	26.6	25.4	25.1
영국	7.3	6.6	8.6	12.4	12.4	11.7	11.4
미국 ^{b)}	6.7	7.1	7.7	7.5	7.5	7.3	7.0
단순평균		9.8	9.9	11.2	11.2	11.9	

주: a)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b) 고용주 제외.

c) 고용주 포함여부 불분명. d) 고용주 포함.

e) 고용주 대부분 제외.

* 벨기에, 체코, 그리스, 헝가리, 한국, 룩셈베르크, 멕시코, 폴란드, 터키의 경우 고용주 제외.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표 3-2〉 자영업^{a)} 및 민간총고용 연평균 증가율

(단위: %)

	1973~79		1979~90		1990~98	
	자영업	민간 총고용	자영업	민간 총고용	자영업	민간 총고용
호주	5.6	1.0	2.8	2.4	0.0	1.1
오스트리아	-3.2	1.3	-1.4	1.2	2.5	1.2
벨기에	0.1	0.1	1.5	0.2	1.2	0.3
캐나다 ^{b)}	-	-	4.1	2.0	4.7	0.9
덴마크	0.6	0.9	-1.4	1.0	-0.1	0.4
핀란드	0.4	1.2	4.8	1.5	0.6	-1.0
프랑스	-0.5	0.8	-0.5	0.6	-1.2	0.4
독일	-1.8	0.0	0.3	0.8	5.6	3.2
그리스 ^{b)}	-	-	0.5	1.5	1.1	1.3
아이슬란드	-0.3	2.7	6.3	2.2	5.7	2.3
아일랜드	2.5	2.1	2.8	0.4	4.6	4.6
이탈리아	-1.7	1.0	2.6	1.1	0.0	-0.3
일본	1.0	1.2	-0.2	1.8	-1.4	0.7
한국	-	-	-	-	3.8	2.1
룩셈부르크	-1.7	1.0	-0.6	2.0	-	-
멕시코	-	-	-	-	10.0	6.5
네덜란드	-0.2	1.1	1.5	2.4	5.0	2.3
뉴질랜드	-	-	5.5	1.4	4.1	2.2
노르웨이	-0.3	2.7	0.2	0.8	-0.1	1.6
포르투갈 ^{b)}	0.9	1.1	6.4	3.5	2.4	0.5
스페인	-0.9	-0.3	2.2	1.5	1.5	1.1
스웨덴	0.5	1.5	5.3	0.8	1.4	-1.3
터키	-	-	-	-	2.0	2.7
영국	-1.3	0.3	6.6	0.5	-0.9	0.1
미국	3.6	2.7	2.3	1.8	0.4	1.3
단순평균 ^{c)}	0.2	1.2	2.2	1.4	1.7	1.0
단순평균 ^{d)}			2.3	1.4		

주: a) 농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국가에 따라서는 고용주 제외.

b) 1990~97년.

c) 캐나다, 그리스,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제외.

d) 그리스,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제외.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셋째, 과거에 자영업의 증가율이 높다가 최근 들어 정체된 국가들이 있다. 호주는 1973~79년 기간에 자영업 증가율이 5.6%(전체는 1.0%), 1979~90년에는 2.8%(전체는 2.4%) 등으로 자영업 증가율이 매우 높다가 1990~98년 기간에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3~79년 기간에 자영업 증가율이 3.6%(전체는 2.7%), 1979~90년에는 2.3%(전체는 1.4%) 등으로 자영업 증가율이 매우 높다가 1990~98년 기간에는 0.4%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간에 걸쳐 자영업의 고용증가가 민간 전체의 고용 증가보다 적은 나라도 있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자영업의 고용증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자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과 같이 1973~79년 사이에 여자의 자영업 증가는 0.7%로서 동 기간의 남자 증가율 0.6%보다 높다. 1979~90년 사이에는 여자 자영업 증가율이 무려 3.4%(남자는 2.3%)였고, 1990~97년 기간에는 1.0%로서 남자(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79년 기간에 26.4%에서 1990~97년 기간에는 29.2%로 늘어났다(표 3-4 참조). 국가별로 보면 여성 자영업의 비중 증가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미국으로서 1973~79년 기간에 연평균 5.7%의 증가를 보였고, 1979~90년 기간에는 4.2%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90~97년 기간에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의 3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터키의 경우는 여성의 비중이 6.8%에 불과하였고, 그리스의 경우도 1990~97년 기간에 여성 자영업 증가율이 연평균 3.2%(남자는 1.1%)였으나, 전체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3〉 성별 자영업^{a)} : 자영업자의 연평균 성장률

(단위: %)

	여 성			남 성		
	1973~79	1979~90	1990~97	1973~79	1979~90	1990~97
호주	8.5	4.1	0.0	4.6	2.4	-0.2
벨기에	0.0	1.7	1.9	0.2	1.4	1.4
캐나다	-	5.3	6.5	-	3.6	3.8
덴마크	-	-	-	-	-	-0.7
핀란드	-2.4	4.3	0.9	2.0	5.1	0.1
프랑스	-	-	0.6	-	-	-0.9
독일	-3.2	-1.2	6.4	-1.1	1.0	5.0
그리스	-	-0.1	3.2	-	0.7	1.1
아일랜드	-	-	5.7	-	-	2.4
이탈리아	-6.0	3.7	0.1	-0.3	2.3	-0.2
일본	0.4	0.0	-2.8	1.3	-0.3	-0.8
한국	-	-	5.2	-	-	5.0
멕시코	-	-	19.2	-	-	7.0
네덜란드	-	-	-0.2	-	-	3.6
노르웨이	1.5	2.6	0.4	-0.7	-0.5	-1.1
스페인	-2.3	2.9	2.6	-0.5	1.9	1.2
스웨덴	7.0	5.7	1.0	-1.2	5.2	1.5
터키	-	-	1.3	-	-	2.1
영국	-1.9	8.9	-1.0	-1.1	5.9	-1.5
미국	5.7	4.2	1.9	2.9	1.4	-0.2
단순평균 ^{b)}	0.7	3.4	1.0	0.6	2.3	0.5

주: a) 농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국가에 따라서는 고용주 전부 또는 일부 제외.

b)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터키 제외.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표 3-4〉 성별 자영업^{a)} : 자영업자의 비중

(단위 : %)

	여 성			남 성		
	1973~79	1979~90	1990~97	1973~79	1979~90	1990~97
호주	27.5	30.5	32.9	72.5	69.5	67.1
벨기에	28.1	28.3	28.9	71.9	71.7	71.1
캐나다	-	29.8	32.7	-	70.2	67.3
핀란드	-	34.1	31.1	-	65.9	68.9
프랑스	-	-	26.0	-	-	74.0
독일	34.2	26.4	28.3	65.8	73.6	71.7
그리스	-	16.6	19.4	-	83.4	80.6
아일랜드	-	-	20.1	-	-	79.9
이탈리아	24.5	21.9	23.4	75.5	78.1	76.6
일본	33.6	35.5	33.9	66.4	64.5	66.1
한국	-	-	30.3	-	-	69.7
멕시코	-	-	33.8	-	-	66.2
네덜란드	-	-	32.8	-	-	67.2
노르웨이	21.3	23.5	28.3	78.7	76.5	71.7
스페인	25.2	24.7	26.8	74.8	75.3	73.2
스웨덴	22.3	27.3	25.7	77.7	72.7	74.3
터키	-	-	6.8	-	-	93.2
영국	20.4	23.9	24.8	79.6	76.1	75.2
미국	27.2	32.9	37.0	72.8	67.1	63.0
단순평균 ^{b)}	26.4	28.1	29.2	73.6	71.9	70.8

주: a) 농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국가에 따라서는 고용주 전부 또는 일부 제외.

b)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터키 제외.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표 3-5〉에서는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주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의 순으로 40% 이상의 자영업자가 고용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벨기에, 멕시코 등의 국가는 자영업 내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적은 국가로 나타났다.

40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표 3-5〉 자영업자 중 고용주의 비중 : 1983, 1990, 1997년^{a)}

(단위 : %)

	1983		1990		1997	
	고용주	비고용주	고용주	비고용주	고용주	비고용주
호주 ^{b)}	37.9	62.1	36.2	63.8	31.1	68.9
오스트리아	-	-	-	-	68.8	31.2
벨기에	13.9	86.1	11.7	88.3	10.3	89.7
캐나다	51.5	48.5	48.4	51.6	37.7	62.3
체코	-	-	-	-	34.2	65.8
덴마크 ^{c)}	52.6	47.4	53.8	46.2	50.1	49.9
핀란드	-	-	-	-	42.3	57.7
프랑스	45.2	54.8	48.3	51.7	49.7	50.3
독일	61.4	38.6	59.8	40.2	53.0	47.0
그리스	24.1	75.9	24.5	75.5	28.8	71.2
헝가리	-	-	-	-	20.0	80.0
아일랜드	38.7	61.3	37.8	62.2	39.9	60.1
일본	20.5	79.5	22.0	78.0	25.3	74.7
멕시코	-	-	18.2	81.8	18.3	81.7
네덜란드	-	-	35.5	64.5	37.4	62.6
포르투갈 ^{d)}	-	-	31.8	68.2	35.6	64.4
스페인 ^{d)}	-	-	23.5	76.5	29.6	70.4
스웨덴	-	-	-	-	41.0	59.0
영국	38.2	61.8	31.1	68.9	25.8	74.2
미국	-	-	-	-	21.1	78.9
단순평균 ^{e)}	38.4	61.6	37.4	62.6		
단순평균 ^{f)}			34.5	65.5	33.8	66.2

주 : a) 농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국가에 따라서는 고용주 전부 또는 일부 제외.

b) 1983년 대신 1985년

c) 1983년 대신 1984년

d) 1983년 대신 1986년

e)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 제외.

f)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 미국 제외.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한편 산업별·직업별 자영업의 분포는 전체 민간고용의 분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 전기·수도·가스업 등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매우 낮고, 제조업 역시 자영업의 비중이 높지 않다. 반면에 대부분의 자영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국가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OECD, 2002).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자영업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종은 금융, 부동산, 임대 및 사업 부문이다. 그 다음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자영업 중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많이 증가한 부문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종이다. 국가별로 특이한 점을 보면 캐나다의 경우 비고용주인 자영업자가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도소매업에서 증가가 컸었다.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영업이 기반을 잃었지만 금융, 부동산, 임대 및 사업 부문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종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직업별로는 민간고용의 분포와 자영업의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법가, 고위직 관리 및 경영자 등의 직종은 민간부문의 분포에서보다 자영업의 분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비서직이나 기본적인 직업에서 자영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

1990년대에 자영업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직종은 전문직 및 기술직과 준전문 직종이었다. 특히 증가율이 가장 컸던 직종은 입법가, 고위직 관리 및 경영자 직종이었다. 서비스 업종과 판매원 등의 업종에서도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자영업과 임금근로자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큰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보다 많은 독립성과 개인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시행하였다. 특히 개인적인 업무성과의 질과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과거의 수직적인 인적관계가 보다 시장 형태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OECD, 1999).

이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의 경계에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와 숫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회사하고만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자의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사실상 임금근로자 이상의 권한이나 자율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4년에 계약 자영업자의 40%가 자영업이면서도 하나의 회사에만 종속되어 있는 경우였으며, 이러한 숫자는 1990년대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간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는 특히 건설, 컴퓨터 산업과 재택 혹은 통신 근로자, 배우, TV 종사자, 저널리스트 등이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한 회사하고만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false self-employment”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경계가 있는 또 다른 집단이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이다.

제2절 OECD국가 자영업의 유입과 탈출

본 절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겠다. <표 3-6>에서는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근로자들이 유입되기 이전의 노동시장 지위와 자영업에서 탈출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이전 노동시장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1983~89년 기간에는 연평균 5.1%의 유입률을 보였으며 1990~97년 기간에는 5.7%의 유입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았다. 1983~89년 기간에는 연평균 2.1%, 1990~97년 기간에는 2.4%의 유입률을 보였다. 실업상태에 있다가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유입률이 연평균 1.7~1.8%이었다.

〈표 3-6〉 자영업^{a)} 유입률 및 탈출률 : 연평균 유입 및 탈출률(자영업 대비)

		자영업으로 유입			자영업에서 탈출		
		임금 근로자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임금 근로자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오스트리아	1995~97	10.4	0.9	3.4	10.7	0.8	2.2
덴마크	1983~89	4.0	0.9	0.7	2.8	1.6	2.3
	1990~97	5.1	2.0	1.0	3.1	1.8	2.5
핀란드	1995~97	2.1	3.0	3.0	2.0	2.0	1.9
프랑스	1983~89	6.6	2.1	2.3	3.7	1.5	3.6
	1990~97	6.2	1.9	2.4	3.9	1.8	3.3
독일	1983~90	7.7	0.6	1.4	4.8	0.6	1.7
	1992~97	12.3	1.3	2.4	6.6	0.8	2.0
그리스	1983~89	2.7	0.8	1.9	1.4	0.8	1.5
	1990~97	2.4	0.8	1.3	1.4	0.7	1.6
아일랜드	1983~89	2.5	2.2	1.6	3.0	2.0	1.2
	1990~97	3.3	1.7	1.9	4.6	1.7	1.6
이탈리아	1983~92	3.5	1.4	2.7	4.3	0.6	2.3
	1993~97	5.5	2.1	3.6	4.1	0.8	3.1
포르투갈	1986~89	7.3	1.0	1.4	2.0	0.6	2.0
	1990~97	6.8	1.1	1.9	3.4	0.7	1.8
스페인	1987~89	3.3	2.8	2.6	2.9	1.2	2.1
	1990~97	3.5	2.6	2.4	2.1	1.5	2.7
스웨덴	1996~97	2.8	1.2	1.8	1.8	1.0	1.8
영국	1983~89	8.5	3.3	4.1	3.9	2.5	2.2
	1990~97	7.5	2.8	3.4	4.8	3.3	2.7
단순평균	1983~89	5.1	1.7	2.1	3.2	1.2	2.1
	1990~97	5.7	1.8	2.4	4.0	1.4	2.3

주: a) 농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국가에 따라서는 고용주 전부 또는 일부 제외.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국가별로 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았다.

44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표 3-7〉 1년 전 실업자의 현재 노동시장 지위 : 농업 제외

(단위 : %)

		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자영업자
오스트리아	1995~97	31.2	43.3	23.1	1.9
벨기에	1983~89	19.0	69.8	9.8	1.3
	1990~97	21.9	50.8	25.6	1.6
덴마크	1983~89	42.8	39.3	16.7	1.0
	1990~97	33.6	36.8	27.9	1.5
핀란드	1995~97	25.3	45.9	27.2	1.5
프랑스	1983~89	29.7	50.7	17.6	1.8
	1990~97	30.5	51.6	16.2	1.4
독일	1983~90	15.9	52.4	30.8	0.8
	1992~97	24.0	49.6	25.0	1.3
그리스	1983~89	30.3	59.9	6.1	3.3
	1990~97	24.1	61.4	11.5	2.5
아일랜드	1983~89	16.8	68.2	13.5	1.4
	1990~97	17.7	58.2	22.7	1.4
이탈리아	1983~92	23.1	54.2	19.0	2.8
	1993~97	18.5	47.4	30.2	2.8
포르투갈	1986~89	31.9	50.7	15.4	1.7
	1990~97	32.4	41.8	22.4	3.0
스페인	1987~89	26.3	66.1	5.1	1.9
	1990~97	26.9	63.6	7.2	1.8
스웨덴	1996~97	26.5	52.0	18.6	2.9
영국	1983~89	28.3	52.4	15.6	3.6
	1990~97	28.8	49.3	17.4	4.2
단순평균	1983~89	26.4	56.4	15.0	2.0
	1990~97	26.3	50.1	21.1	2.1

주 : 무급가족종사자의 제외로 인해 가로 합이 정확히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자영업에서 탈출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로의 탈출이 가장 많았다. 1983~89년 기간에 임금근로자로 탈출한 탈출률은 연평균 3.2%, 1990~97년 기간에는 4.0%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탈출한 비율이 높았다. 1983~89년 기간에는 연평균 2.1%, 1990~97년 기간에는

2.3%의 탈출률을 보였다. 실업상태가 된 자영업의 경우는 탈출률이 연평균 1.2~1.4%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진입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탈리아 역시 임금근로자로의 이동이 높았다.

한편 실업자들이 실업상태에서 탈출한 비율을 보면 자영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으로 탈출한 율은 매우 낮다. <표 3-7>에 따르면 1년 전에 실업자로 있다가 현재 자영업자가 된 사람은 전체의 2.0~2.1%에 불과하였다.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실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약 26.3%이었다. 즉 실업에서 탈출하여 취업자가 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영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표 3-8>은 자영업자의 직업 안정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1년 전에도 임금근로자였다가 현재에도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9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자영업자이면서 고용주인 경우도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1년 전에 자영업자이면서 고용주가 아닌 경우는 현재 같은 지위에 머물고 있는 비율이 84.1~87.2%로서 다른 경우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는 자영업자 중에서 다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경우 유입과 탈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주로 유입되는 경우는 임금근로자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비고용주이었던 자영업자가 고용주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다. 임금근로자였다가 고용주가 된 경우의 유입률은 약 4.3~4.6%이었으며, 비고용주이었던 자영업자가 고용주로 유입된 경우도 3.4~3.6%에 달하였다. 그러나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유입된 경우는 1% 미만으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반대로 고용주에서 탈출하는 비율 역시 임금근로자로 탈출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영업자이면서 비고용주로 탈출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자영업^{a)}의 고용 안정성 : 1년 전 노동시장 지위와 같은 비율
(단위 : %)

		자 영 업		임금근로자
		비고용주	고용주	
오스트리아	1983~89	83.4	85.5	90.0
덴마크	1983~89	92.5	98.1	89.2
	1990~97	93.6	96.8	91.3
핀란드	1983~89	73.1	95.8	85.7
프랑스	1990~97	80.4	83.7	90.2
	1983~90	80.8	84.6	91.2
독일	1992~97	75.8	80.9	91.1
	1983~89	85.2	85.8	94.8
그리스	1990~97	93.8	92.4	92.9
	1983~89	93.3	92.5	91.9
아일랜드	1990~97	89.4	94.3	89.7
	1986~89	90.1	95.9	90.9
포르투갈	1990~97	86.0	91.2	93.0
	1987~89	88.1	89.8	93.3
스페인	1990~97	88.5	91.1	85.6
	1983~89	88.9	92.3	84.9
스웨덴	1983~89	80.8	96.1	92.2
	1990~97	80.9	84.4	90.5
		77.4	85.6	89.0
단순평균	1983~89	84.1	90.3	90.0
	1990~97	87.2	90.4	90.9

주 : a) 농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표 3-9〉 고용주^{a)}의 유입 및 탈출률 : 고용주 대비

(단위 : %)

		고용주로 유입				고용주에서 탈출			
		임금 근로 자	실업 자	비경 제 활동 인구	비 고용 주	임금 근로 자	실업 자	비경 제 활동 인구	비 고용 주
덴마크	1983~89	4.3	0.6	0.4	0.3	2.4	1.3	1.5	0.9
	1990~97	3.2	0.5	0.5	0.3	2.3	1.4	1.9	0.5
핀란드	1995~97	1.9	0.6	1.3	1.2	1.3	0.9	2.0	1.2
프랑스	1983~89	6.0	0.9	1.2	6.2	3.8	0.9	3.0	5.5
	1990~97	6.1	1.0	1.3	7.4	4.0	1.2	2.8	6.4
독일	1983~90	8.1	0.3	0.6	4.8	3.7	0.4	1.4	2.4
	1992~97	12.0	0.6	1.1	5.1	5.9	0.5	2.0	3.2
그리스	1983~89	2.7	0.4	0.9	3.3	1.4	0.7	1.1	2.1
	1990~97	2.4	0.4	0.6	3.9	1.5	0.4	1.2	2.9
아일랜드	1983~89	1.8	0.7	0.6	1.1	4.9	0.8	1.1	2.0
	1990~97	2.6	0.5	0.6	2.0	7.8	0.8	1.3	2.2
포르투갈	1986~89	6.5	0.3	0.8	2.5	0.9	0.5	1.4	2.6
	1990~97	4.5	0.4	0.8	3.1	2.1	0.4	1.2	3.0
스페인	1987~89	2.4	0.5	1.2	3.3	3.8	0.7	1.3	1.7
	1990~97	2.7	0.9	1.2	3.8	2.0	0.7	1.8	2.4
스웨덴	1996~97	2.1	0.6	0.6	0.7	1.7	1.0	2.0	1.6
영국	1983~89	5.5	1.2	1.5	6.0	3.4	1.5	2.0	4.3
	1990~97	5.3	0.8	1.2	8.1	3.1	1.5	2.2	5.4
단순평균	1983~89	4.6	0.6	0.9	3.4	3.1	0.9	1.6	2.7
	1990~97	4.3	0.6	0.9	3.6	3.2	0.9	1.8	2.9

주 : a) 농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제3절 자영업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1. 자영업의 소득

이 절에서는 자영업자의 근무조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자영업자의 근무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자영업자의 소득 자료는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구하기도 힘들지만 구한다고 해도 신빙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정의에서 세 가지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첫번째는 개인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인지 판매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측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할 기회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비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영업자의 소득을 시계열별로 비교하거나 인구집단별(예를 들면, 남녀간) 비교 등에 국한시키는 것이 더 신중한 접근일 것이다. 혹은 자영업자의 소득분포에서 불균등도와 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에서 불균등도를 비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가구들은 자영업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가 쉽지는 않다.

OECD(1992)에서는 6개국의 1980년대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체 민간고용의 중위소득 대비 자영업자의 중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특정한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변화의 방향이 국가마다 그리고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OECD(1986)의 결과와는 비교가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의 5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중위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에 비

해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1990년대의 연구결과에서도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OECD(2000)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1985~96년에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서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캐나다의 경우 1985~95년의 기간에 자영업의 평균 임금이 임금근로자의 임금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986~96년 사이에 실질임금은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 1979년 이후 모든 기간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자영업자들의 자본수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75~90년 사이에 전일제 근무 자영업자의 중위 실질소득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조건의 임금근로자의 중위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여자 자영업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1992)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도가 임금근로자의 불평등도보다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무조건

자영업자의 직장 근무조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임금근로자와는 차이를 보인다. OECD(2000)의 제2차 유럽국가 근무조건 설문조사(Second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s)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일의 자율성이 훨씬 높다. 즉 일의 방법과 일의 강도를 선택하는 능력, 휴일과 휴가의 선택 등에 있어서 훨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일정을 맞추거나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하는 압박감 등을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주인 경우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압박감을 임금근로자처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는 일의 속도가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문을 받은 양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산업이나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길다는 사실은 이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임금근로자들이 통상 주당 39시간을 근무하는 데 비해 자영업자 중에서 비고용주는 주당 45시간, 고용주는 주당 5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비고용주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고용주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근로자는 주당 3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에 비하면 여성이 훨씬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고용주의 경우 주당 46시간,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4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주의 경우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비슷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자영업자의 근무조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확률, 로짓모형
(단위:%)

	자영업	
	비고용주	고용주
보호장비 착용	59***	91
고통스런 위치에서의 근로	117***	117**
자신의 위안도구/장비에 대한 적응능력	150***	158***
교대근무 혹은 비정규시간 근무	148***	145***
(최소 월 1회 이상) 토요일근무	118***	122***
(최소 월 1회 이상) 야간근무	131***	182***
(최소 월 1회 이상) 토요일근무	156***	186***
외부인사를 직접 상대	106***	108***
지난 1년간 훈련	41***	61***
근무시간의 최소 1/4을 컴퓨터로 작업	68***	103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	80***	96*

주:***, **, *는 각각 유의수준 0.1, 1, 5%를 나타냄.

표의 수치를 해석하는 방법은 첫번째 문항을 예로 들면, “비고용주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확률은 임금근로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확률의 59%이다”는 뜻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표 3-10>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취업자들의 근무조건을 로짓(logit)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나타난 수치의 해석은 자영업자(비고용주+고용주)가 주어진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확률을 같은 질문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긍정적인 답의 확률로 나누어 준 것이다. 이때에 취업자의 연령, 성, 국가, 교육, 직업, 산업 등의 변수는 회귀식에서 모두 통제하였다. 주요한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기구나 장비를 자신들이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는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근무시간에 있어서 주말근무나 야간근무, 교대근무 등을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훈련에 대한 투자가 자영업자의 경우 더 적고, 컴퓨터 사용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3. 직업만족도

제2차 유럽국가 근무조건 설문조사(Second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s)에서 조사한 직업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 중에서 비고용주의 경우 38%, 고용주의 경우 45%가 자신의 직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임금근로자는 같은 조사에서 30%만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Blanchflower(1998) 역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설문조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직업의 종류를 감안한 후에도 나타났다.

<표 3-11>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성별, 연령별로 비교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직업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 임금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자 임금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 남자 비고용주와 여자 비고용주간에는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비고용주의 경우는 남

녀 공히 약 40시간 근처에서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자 비고용주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직업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1〉 자영업자의 직무만족도 : 근로시간별, 성별, European Union: 1995/96년

(단위: %)

	주된 일자리의 통상근로시간	비고용주		고용주		임금근로자		모든 근로자	
		매우 만족	기타	매우 만족	기타	매우 만족	기타	매우 만족	기타
남성	10시간 미만	-	-	-	-	-	-	12	88
	10~29시간	23	77	-	-	27	73	25	74
	30~39시간	53	47	-	-	28	73	29	71
	40~44시간	36	64	-	-	35	71	29	71
	45~59시간	32	67	-	-	34	64	35	64
	60시간 이상	33	67	-	-	34	66	36	64
	모든 근로시간	35	65	-	-	29	71	31	69
여성	10시간 미만	43	57	-	-	35	64	35	64
	10~29시간	37	63	-	-	36	64	35	65
	30~39시간	48	52	-	-	32	68	33	67
	40~44시간	49	51	-	-	29	69	32	66
	45~59시간	42	58	-	-	28	72	35	65
	60시간 이상	38	62	-	-	28	72	37	63
	모든 근로시간	44	56	-	-	32	67	34	66
전체	모든 근로시간	38	62	45	55	30	69	32	63

주: 1) -는 표본 부족으로 인하여 추정불가능.

2) 자영업자의 직무만족도는 주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기타에는 '비교적 만족', '비교적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포함.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결론적으로 보면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다른 보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

<표 3-12>는 “미래의 고용선택”(Employment Options of the Future)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뽑은 자료로서 현재 혹은 향후 5년 동안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향후 자영업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의 비율은 26%이다. 이 비율은 현재 유럽국가에서 자영업 비중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물론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다는 증거도 보인다. 현재 자영업이면서 미래에 임금근로자가 되고 싶다는 비율도 18%가 되기 때문이다.

<표 3-12> 자영업과 임금근로에 대한 선호도: European Union, 1998년
(단위: %)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	자영업	모름/무응답 /무차별
현재지위			
피고용자(자영업 및 임금근로자)	69	26	5
향후 5년간 임금근로를 원하는 경우 ^{a)}			
청년 진입자	58	26	16
여성 재진입자	70	15	15
실업자	65	16	20

주: a) 16세 이상으로서 현재 취업상태가 아니면서 향후 5년 동안 일하기를 원하는 자.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이 자료를 좀더 자세히 분석한 OECD(2000)의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는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다른 요인에 따른 차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와 기존 임금근로자의 22%가 자영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15%이었다. 또한 남자의 33%는 자영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5%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하지만 자영업에 대한 선호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학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에 가장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계층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평균학력 수준 이상의 청년층이었다.

제4절 자영업에 대한 각국의 정책

198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혹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은 고실업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주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데 따른 장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실제 자본시장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자영업을 시작할 때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적 부담, 그리고 임금근로에 비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불안한 사회적 위치 등이 주요한 진입의 장벽이다.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자영업을 장려하였다.

미국 노동성(US Department of Labor, 2000)에 따르면 자영업의 결정은 다음의 세 가지에 기초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환경조건이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정도, 행정적 부담, 조세제도, 건강보험이

나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등이 영향을 준다. 둘째는 skill이다. 이 skill에는 인적자본, 경영상의 skill 등이 포함된다. 세번째는 자영업 정신(spirit) 혹은 개인적인 선택이다. 즉 개인의 미래에 대한 비전, 결정, 위험에 대한 선호 등이다. 따라서 정책적 배려는 이 모든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자영업을 위한 환경의 조성과 skill의 증가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개인의 선택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 지역적 특성과 집안의 전통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바꾸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부가 자영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는 자영업자가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는 경우이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교육훈련의 수준이 낮고,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불필요한 실패를 겪지 않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실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들을 자영업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실업수당 대신에 오히려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표 3-13>에 OECD 주요 국가의 실업자 창업지원 규모가 나타나 있다. 이들 국가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에 지출하는 금액 대비 실업자 창업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은 적게는 벨기에의 0.2%에서부터 많게는 스페인의 경우 24.5%(1985~89년 기간)까지 다양하다. 최근의 기간인 1995~98년 기간에는 그리스의 5.1%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의 지출로 나타나 있다. 실제 실업자 중에서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비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최근 기간에 스웨덴의 경우는 실업자의 6.3%가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호주,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의 경우는 실업자 중에서 이러한 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체코, 스페인, 영국 등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세번째는 청년층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청년층의 경우 자영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영업으로 가는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으며, 청년층의 경우 진입률이 높지 않다(Blanchflower, 1998). 이처럼 낮은 진입률은 이들이 금융자본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적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사업 실패율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이들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OECD, 2000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자영업 진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남자에 비하면 여성의 자영업 선호도는 높지 않다. 더구나 여성들이 원하는 자영업의 형태는 남성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가사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자영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든가,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다. 각국이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주로 자금의 제공에 있으며, 가끔 훈련과 자문 등의 프로그램도 병행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역시 아직까지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표 3-13〉 정부의 실업자 창업지원: OECD 주요국

	ALMP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 ^{a)}			연평균 참가자			총 실업자에서 참가자로 진입하는 자의 비율		
	1985~89	1990~94	1995-98 ^{b)}	1985~89	1990~94	1995-98 ^{b)}	1985~89	1990~94	1995-98 ^{b)}
호주	0.5	2.6	3.9	886	3,203	8,244	0.2	0.4	1.1
벨기에	0.7	0.3	0.2	1,881	439	284	0.4	0.1	0.1
캐나다	-	2.2	4.1	-	6,347	12,904	-	0.4	0.9
체코	-	7.0	1.8	-	11,025	975	-	6.9	0.4
덴마크	1.8	6.4	3.5	2,153	5,887	3,124	1.1	2.2	1.7
핀란드	1.8	2.2	2.1	3,075	7,000	6,050	2.7	2.3	1.7
프랑스	5.1	2.5	1.1	67,367	59,568	50,006	2.8	2.3	1.6
독일	0.4	0.3	2.1	7,150	24,000	84,800	0.3	0.9	2.3
그리스	4.4	8.7	5.1	4,983	7,533	5,775	1.7	2.3	1.3
헝가리	-	7.8	0.9	-	8,633	3,600	-	1.8	1.0
아일랜드	3.4	1.4	1.0	3,453	2,229	1,067	1.6	1.1	0.6
뉴질랜드	5.8	5.7	2.7	4,603	5,481	6,731	1.6	6.8	2.0
포르투갈	24.5	17.6	4.9	63,438	69,177	33,333	2.3	2.5	1.0
스페인	0.4	1.5	3.7	2,000	10,300	19,767	2.5	4.0	6.3
스웨덴	-	0.2	0.6	-	300	850	-	0.2	0.3
스위스	4.8	2.9	0.7	80,000	37,400	6,000	4.6	1.6	0.3

주: a)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에는 공공직업안정기능, 훈련, 청년층 지원, 고용보조금, 장애인 대책 등이 포함됨.

b) 호주, 캐나다, 그리스, 영국은 1997.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1996.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제4장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제1절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1.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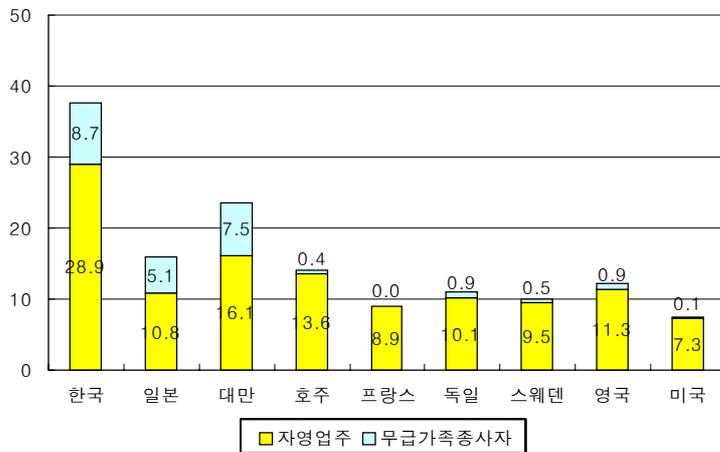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2년 10월 현재 37.4%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4-1]에서 2001년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자영업주가 28.9%, 무급가족종사자가 8.7%로 37.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15.9%, 독일 11.0%, 영국 12.2% 및 미국의 7.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값으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23.6%와 비교하여서도 크게 높다.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비중이 2001년 10.3%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편차를 감안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비농전산업⁴⁾으로 제한하였을 경우에도 <표 4-1>과 같이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자영업주 25.8%, 무급가족종사자 6.2%로 비임금근로자가 32.0%에 달하여 비농부문에 종사하는

4) 여기에서 비농(非農)이라고 함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장 전체에 적용된다.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비임금근로자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이웃인 일본의 비농부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2.3%로 우리나라에 비해 19.7%포인트 낮으며, 미국은 6.6%로 우리나라에 비해 25.4%포인트나 낮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자이다.

(그림 4-1) 한국과 외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비교 : 2001년



주: 대만은 2000년 수치.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02.

<표 4-1>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 2001년

	전산업			비농전산업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한국	28.9	8.7	37.6	25.8	6.2	32.0
일본	10.8	5.1	15.9	8.9	3.4	12.3
대만	16.1	7.5	23.6	-	-	-
호주	13.6	0.4	14.0	11.8	0.3	12.1
프랑스	8.9	0.0	8.9	6.8	0.0	6.8
독일	10.1	0.9	11.0	9.5	0.5	10.0
스웨덴	9.5	0.5	10.0	8.6	0.2	8.8
영국	11.3	0.9	12.2	10.8	0.9	11.7
미국	7.3	0.1	7.4	6.5	0.1	6.6

주: 대만은 2000년 수치.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02.

60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편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표 4-2>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80년에 52.8%이었으며, 이러한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1996년에는 37.2%의 수준까지 낮아져 왔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진 것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에 크게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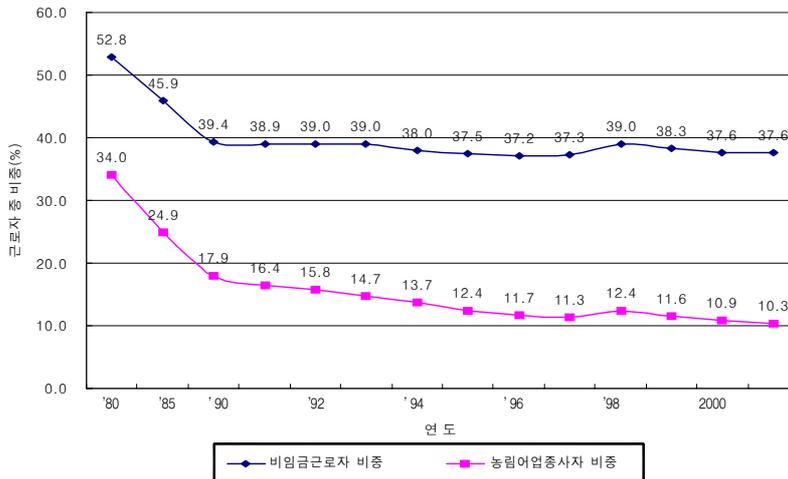
<표 4-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전산업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 체	
		자영업 주	가족 종사		상용	임시		일용
1980	52.8	34.0	18.8	47.2	37.7		9.5	13,683
1981	52.9	33.8	19.1	47.1	38.3		8.8	14,023
1982	52.4	34.1	18.3	47.6	38.8		8.7	14,379
1983	50.6	33.8	16.8	49.4	41.4		8.0	14,505
1984	47.1	31.7	15.4	52.9	43.9		9.0	14,429
1985	45.9	31.3	14.6	54.1	44.8		9.3	14,970
1986	45.6	31.4	14.2	54.4	45.0		9.4	15,505
1987	43.8	30.5	13.3	56.2	46.9		9.3	16,354
1988	43.0	30.2	12.8	57.0	31.7	16.4	8.9	16,870
1989	40.8	28.8	12.1	59.2	32.4	16.9	9.8	17,560
1990	39.5	28.0	11.4	60.5	32.8	17.5	10.2	18,085
1991	38.9	28.0	10.9	61.1	33.7	17.5	9.8	18,677
1992	39.0	28.5	10.5	61.0	34.8	16.9	9.3	19,033
1993	39.0	28.2	10.8	61.0	35.8	16.2	8.9	19,328
1994	38.1	27.8	10.2	61.9	35.8	17.2	8.9	19,905
1995	37.4	27.9	9.6	62.6	36.4	17.4	8.9	20,432
1996	37.2	27.9	9.3	62.8	35.6	18.5	8.7	20,817
1997	37.3	28.3	9.0	62.7	33.9	19.8	9.0	21,106
1998	39.0	28.9	10.1	61.0	32.3	20.0	8.7	19,995
1999	38.3	28.8	9.5	61.7	29.8	20.6	11.3	20,281
2000	37.6	28.5	9.1	62.4	29.7	21.4	11.3	21,061
2001	37.6	28.9	8.7	62.4	30.4	21.5	10.5	21,362
2002. 8	37.1	28.9	8.2	62.9	30.2	21.7	11.0	21,798

주: 1980~87년의 상용근로자수는 임시근로자를 포함한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4-2) 농림어업 종사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그림 4-2]와 같이 1980년의 34.0%에서 1985년에는 24.9%로 낮아졌으며, 이는 1990년에 17.9%, 1995년에 12.4%, 그리고 2001년에는 10.3%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중의 하락과 더불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도 1980년의 52.8%에서 1990년에는 39.4%로 낮아졌다.

절대치에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숫자는 1980년의 2,034천명에서 2001년에는 1,036천명으로 거의 1백만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숫자는 같은 기간 7,220천명에서 8,023천명으로 80만명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비농 부문에서의 비임금근로자수가 21년 동안 약 180만명 가량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숫자는 1980~2001년 사이 6,464천명에서 13,339천명으로 6,875천명이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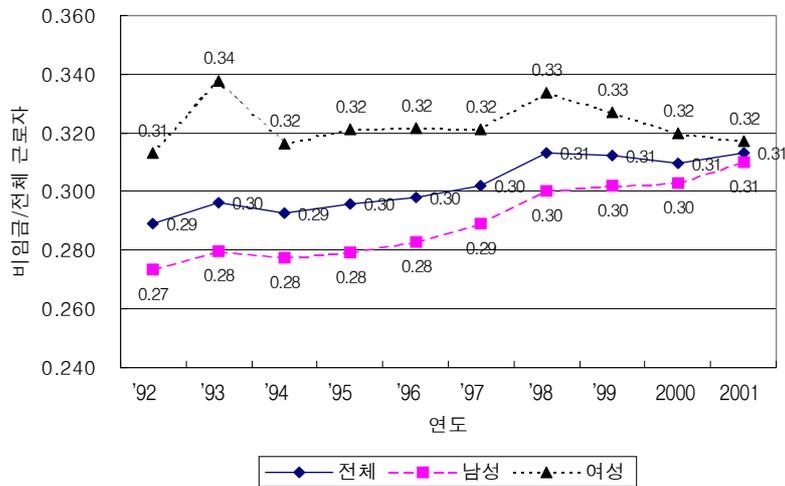
분석대상을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비농전산업으로 제한하였을 경우, 1990대에 걸쳐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⁵⁾ [그림 4-3]에서 1992년 29.0%이던 비농전산업의 취업자 중 비임금

62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근로자 비중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 31.0%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그 상승세가 두드러진다.⁶⁾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주의 비중 증가가 명확하다. <표 4-3>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993년의 6.5%에서 8년 뒤인 2001년에는 6.0%로 0.5%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자영업주의 비중은 반대로 1993년의 23.1%에서 2001년 25.3%로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이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를 이끈 핵심적 요인이다.

취업자의 절대값에서도 비농 부문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1993년의 1,074천명에서 2001년에는 998천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자영업주의 수는 같은 기간 3,808천명에서 4,370천명으로 약 56만명이 늘어 다른 많은 OECD국가들과 같이 전체 고용증가율보다 자영업주의 고용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4-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농림수산업 제외

5)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로 류재우·최호영(1999, 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 1992년 산업분류가 변화함에 따라 이전 데이터는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1992년 이후의 산업별·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분석한다.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 체	
		자영업 주	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1993	29.6	23.1	6.5	70.4	41.9	18.8	9.7	16,479
1994	29.3	23.0	6.3	70.7	41.3	19.7	9.7	17,174
1995	29.6	23.5	6.1	70.4	41.3	19.6	9.5	17,898
1996	29.8	23.8	6.0	70.2	40.1	20.8	9.3	18,388
1997	30.2	24.3	5.9	69.8	38.1	22.1	9.6	18,721
1998	31.3	24.9	6.4	68.7	36.8	22.7	9.2	17,515
1999	31.2	25.0	6.2	68.8	33.6	23.2	12.0	17,933
2000	31.0	24.8	6.2	69.0	33.2	23.9	11.9	18,773
2001	31.3	25.3	6.0	68.7	33.8	23.8	11.0	19,1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급증하였음을 앞의 <표 4-2>와 [그림 4-2]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구조조정의 여파가 임금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임금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취업난으로 인해 임금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이 어려워 비임금근로자를 선택한 경우, 그리고 고용불안의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자영업 선호현상이 높아진 점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비농전산업 부문에서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외환위기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나타나고 있으며, 1990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현상의 설명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확대와 같은 변화로 벤처기업 및 창업의 확산과 함께 보험대리인, 프리랜서 등과 같은 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중간에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둘째, 세계화 및 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분사화,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의 확산도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 상당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이러한 서비스업의 확대가 자영업 창업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1990년대 초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구조조정 영향 생각할 수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이에 자영업 창업의 열기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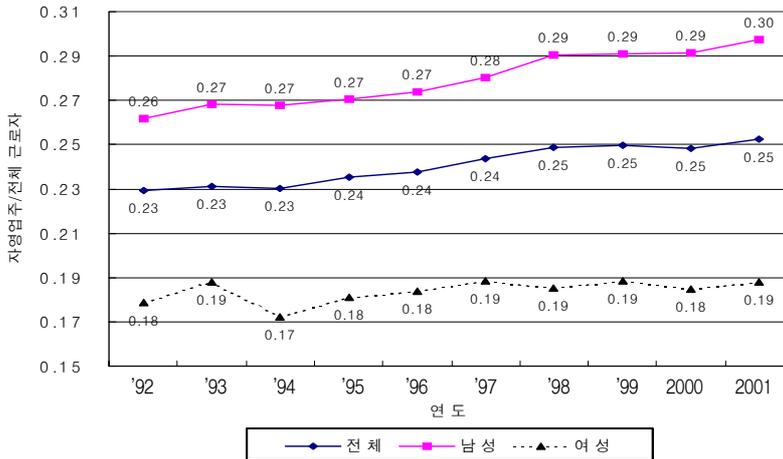
다섯째, 조세제도의 영향이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자영업주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만약 1990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자영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이는 자영업주의 세후(稅後) 소득을 높여 자영업주의 증대를 이끌었을 수 있다.

2. 성별 분포와 변화

성별로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4-4>, <표 4-5>와 같이 여성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88년의 48.8%에서 2001년에는 38.5%로 크게 하락한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39.2%에서 36.9%로 약간 감소한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남성은 1996년 35.0%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이러한 성별 격차는 분석대상을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표 4-5>에서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8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영업주의 비중은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그림 4-4)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자영업주 비중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4-4> 종사상 지위별 남성 취업자 비중의 변화: 전산업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 체	
		자영업주	가족종사		상용	임시		일용
1988	39.2	36.0	3.1	60.8	39.4	13.6	7.9	10,098
1989	38.1	35.3	2.8	61.9	40.1	14.0	7.8	10,409
1990	36.9	34.4	2.5	63.1	40.7	14.1	8.3	10,708
1991	36.5	34.3	2.2	63.5	41.3	13.7	8.5	11,117
1992	36.6	34.5	2.1	63.4	42.3	12.9	8.3	11,364
1993	36.5	34.5	2.0	63.5	43.3	12.2	8.0	11,555
1994	35.8	34.0	1.8	64.2	43.4	12.6	8.1	11,863
1995	35.1	33.5	1.6	64.9	44.0	12.8	8.1	12,177
1996	35.0	33.4	1.6	65.0	43.3	13.6	8.0	12,345
1997	35.4	33.9	1.5	64.6	41.7	14.8	8.2	12,421
1998	37.0	35.3	1.8	63.0	40.8	14.7	7.4	11,910
1999	36.8	34.9	1.9	63.2	37.9	16.1	9.2	11,978
2000	36.5	34.7	1.8	63.5	37.6	16.7	9.2	12,354
2001	36.9	35.1	1.7	63.1	38.1	16.6	8.5	12,466
2002. 8	36.7	35.1	1.6	63.3	37.2	16.7	9.4	12,7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4-5〉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비중의 변화 : 전산업

(단위 :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 체	
		자영업 주	가족 종사		상용	임시		일용
1988	48.8	21.5	27.3	51.2	20.2	20.6	10.3	6,771
1989	44.8	19.2	25.6	55.2	21.2	21.2	12.8	7,152
1990	43.2	18.7	24.5	56.8	21.4	22.5	12.9	7,376
1991	42.5	18.9	23.7	57.5	22.5	23.1	11.8	7,561
1992	42.5	19.6	22.9	57.5	23.7	22.9	10.9	7,669
1993	42.6	18.8	23.8	57.4	24.8	22.3	10.3	7,774
1994	41.5	18.8	22.7	58.5	24.6	23.9	10.0	8,043
1995	40.9	19.6	21.3	59.1	25.1	24.1	9.9	8,256
1996	40.5	19.9	20.6	59.5	24.2	25.7	9.6	8,472
1997	40.2	20.5	19.7	59.8	22.7	27.0	10.1	8,686
1998	42.0	19.5	22.5	58.0	19.8	27.8	10.5	8,085
1999	40.4	20.0	20.3	59.6	18.2	27.2	14.3	8,304
2000	39.2	19.7	19.5	60.8	18.4	28.2	14.2	8,707
2001	38.5	20.1	18.4	61.5	19.7	28.5	13.2	8,895
2002. 8	37.6	20.1	17.5	62.4	20.3	28.7	13.4	9,06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남성의 경우도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88년의 3.1%에서 2001년에는 1.7%로 낮아졌다. 그러나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8년 36.0%, 2001년 35.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남성도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하락이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하락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림수산업 부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을 때, 우리는 다른 추세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92년 이후 32%대 수준에서 별 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나, 남성은 1992년의 27.0%에서 계속 그 비중이 높아져 2001년에는 31.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변화는 분석대상을 자영업주로 좁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그림 4-4]에서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2년의 23.0%에서 9년 뒤인 2001년 25.0%로 상승하였고, 성별로 여성이 안정적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성 자영업주의 비중은 같은 기간 26.0%에서 30.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OECD국가들에서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과는 다른 현상이다. 한편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1992년 이후 남·여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⁷⁾ 따라서 1992년 이후 나타나는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현상은 자영업주, 특히 남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령별 분포와 변화

자영업주의 연령대별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이 4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40대의 경우 1988년에 1,440천명이었던 자영업주의 숫자는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1년에는 2,004천명으로 39.2%가 증가하였다.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같은 기간 자영업주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대하여 30대와 50대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30대는 1988년의 1,412천명에서 2001년 1,396천명으로 자영업주의 수가 줄어들었고, 50대에서는 1988~2001년 사이에 11.5%의 증가하는 데 그쳤다.⁸⁾ 이와 같은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하다. 즉 40대 자영업주의 숫자는 1996년의 1,676천명에서 1998년 1,721천명, 2000년 1,922천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주 숫자의 증가는 주로 40대 계층에서의 증가에 기인한 점이 크며,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임금

7) [부도 1]을 참조할 수 있다.

8) 이러한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남성과 여성에 따라 자영업주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부표 1]을 참조할 수 있다.

68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창업을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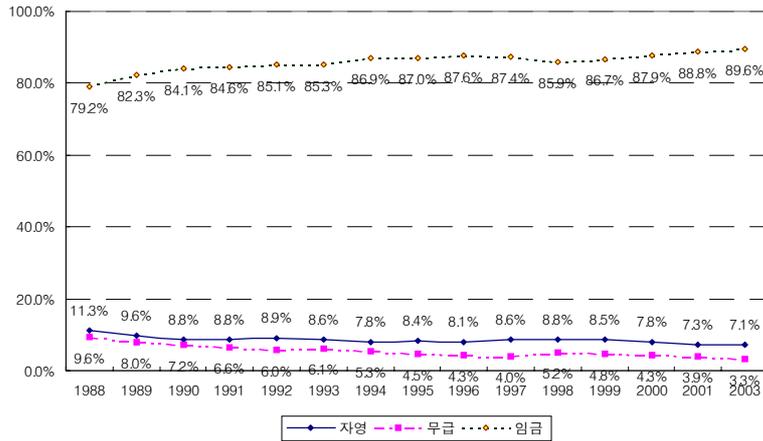
〈표 4-6〉 연령대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 : 전산업

(단위: 천명)

종사상 지위	연도	연령대						전 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영업주	1988	3	486	1,412	1,440	1,121	628	5,090
	1990	5	389	1,344	1,407	1,216	707	5,068
	1992	4	401	1,502	1,431	1,267	816	5,421
	1994	3	371	1,641	1,492	1,191	847	5,545
	1996	19	390	1,644	1,676	1,159	926	5,814
	1998	16	362	1,527	1,721	1,164	987	5,777
	2000	12	320	1,417	1,922	1,216	1,113	6,000
	2001	15	293	1,396	2,004	1,250	1,210	6,167
	2002.8	16	286	1,354	2,096	1,278	1,268	6,298
무급가족 종사자	1988	42	412	538	499	424	252	2,167
	1990	29	319	525	475	451	267	2,066
	1992	26	268	534	429	453	283	1,993
	1994	20	249	585	449	418	317	2,038
	1996	14	206	535	504	364	317	1,940
	1998	17	214	504	547	386	359	2,027
	2000	16	179	452	571	356	345	1,919
	2001	15	159	411	566	346	358	1,855
	2002.8	16	131	376	557	347	363	1,790
임금 근로자	1988	552	3,414	2,780	1,738	916	209	9,609
	1990	546	3,734	3,190	2,028	1,151	303	10,952
	1992	503	3,833	3,494	2,074	1,330	385	11,619
	1994	411	4,119	3,846	2,126	1,359	464	12,325
	1996	362	4,207	3,928	2,467	1,497	605	13,066
	1998	292	3,520	3,887	2,533	1,405	555	12,192
	2000	360	3,623	3,923	3,025	1,549	661	13,141
	2001	330	3,576	3,913	3,231	1,586	704	13,340
	2002.8	305	3,606	3,983	3,409	1,625	779	13,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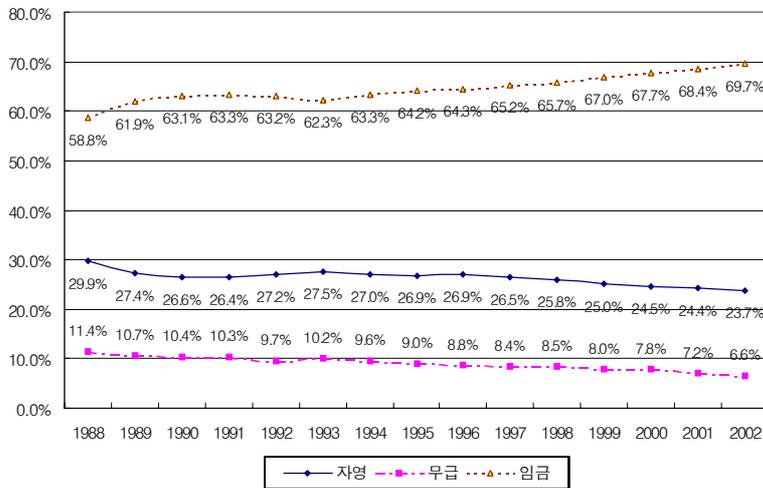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4-5-1] 2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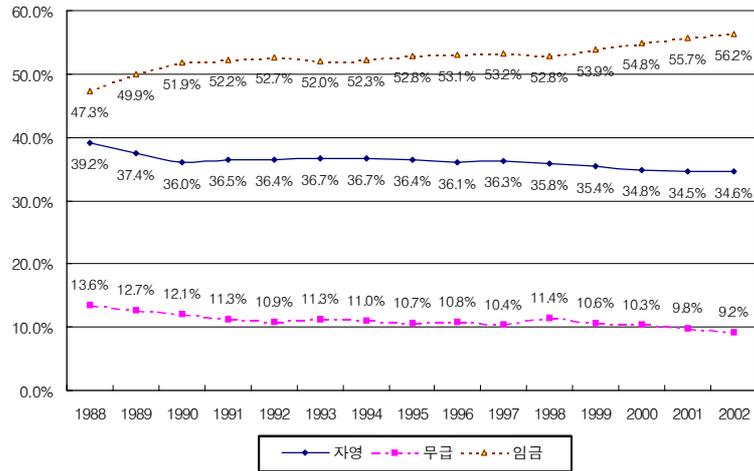
[그림 4-5-2] 3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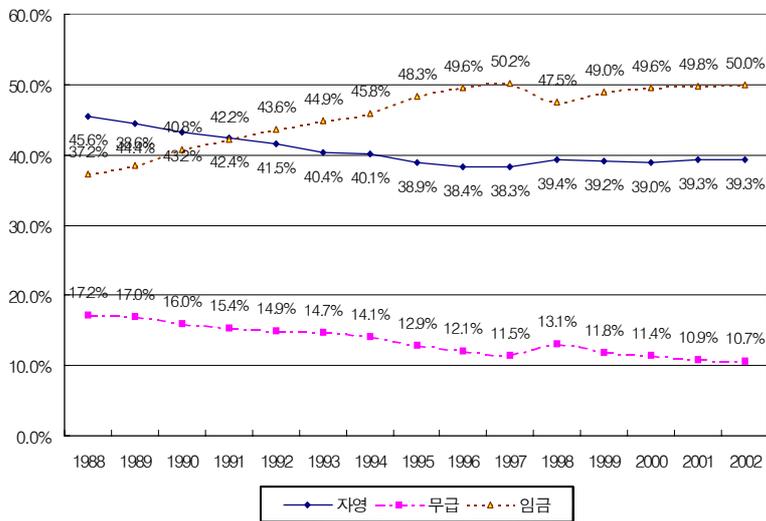
70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그림 4-5-3] 4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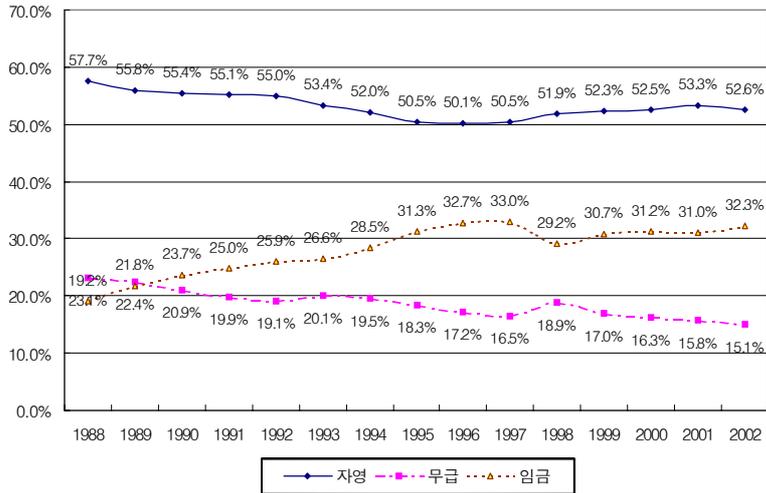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그림 4-5-4] 5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그림 4-5-5] 60대 이상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이는 [그림 4-5-1]~[그림 4-5-5]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 걸쳐 자영업주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40대의 경우 그 감소 폭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이 시간에 따라 약간이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40대 자영업주 절대수의 증가가 이들의 자영업 선호 현상보다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보다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40대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1988~2001년 사이에 85.9%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자영업주의 비중의 추이를 보면 [그림 4-5-1]~[그림 4-5-5]와 같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1996년을 기점으로 자영업주의 비중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세를 보이는데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60대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가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즉 1997년 658천명이었던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수는 1998년 555천명으로 15.7%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후 경기회복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절대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아직도 1997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20대에서는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0대에 60%대로 떨어진 후 40대는 50%대로 낮아지고, 50대에서는 기껏해야 절반 정도만이 임금근로자인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60대 이상에서는 취업자의 1/3 미만이 임금근로자이다. 이러한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비중의 변화와 발맞추어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는데, 20대에 10%대 미만이던 자영업주의 비중은 30대에 20%대로 높아지고, 다시 40대에는 30%대로, 50대에서는 40% 가까운 비중으로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다.

4. 학력별 분포와 변화

자영업 종사자⁹⁾의 학력분포와 추이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이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숫자와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고졸 이상 학력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반적인 취업자의 고학력화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저학력 취업자의 노동시장 퇴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1988~2001년까지의 13년 동안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을 지닌 자영업주는 28.3%가 줄어들었으며, 중졸 학력자도 7.7%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 고졸 학력의 자영업주는 1988년의 1,458천명에서 2001년에는 2,548천명으로 74.8%나 증가하였다. 전문대졸의 자영업주도 같은 기간 무려 421.6%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자영업주는 1988년의 383천명에서 2001년 851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고학력 자영업주의 증가는 고학력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대졸 임금근로자도 125.5% 증가하였으며, 전문대졸 임금근로자는 281.3%가 늘어났다.

9) 이 장에서 자영업주 또는 자영업 종사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주와 자영자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표 4-7〉 학력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 전산업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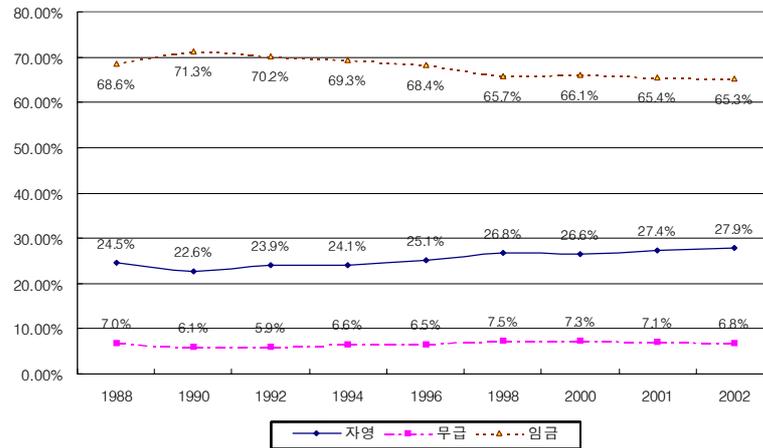
종사상 지위	연 도	학 력				
		초등졸 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자영업주	1988	2,136	1,065	1,458	51	383
	1990	2,018	004	1,539	91	415
	1992	1,928	1,056	1,811	127	499
	1994	1,740	1,028	2,036	156	582
	1996	1,597	1,096	2,266	198	656
	1998	1,524	957	2,308	190	797
	2000	1,518	1,007	2,416	248	811
	2001	1,532	983	2,548	254	851
	2002. 8	1,503	978	2,655	266	896
무급 가족 종사자	1988	1,268	425	415	20	40
	1990	1,177	408	418	28	36
	1992	1,070	410	447	26	39
	1994	967	428	559	30	54
	1996	840	409	590	34	67
	1998	854	413	641	51	69
	2000	732	387	668	54	79
	2001	698	362	662	58	77
	2002. 8	662	346	651	59	72
임금 근로자	1988	1,940	2,009	4,091	343	1,227
	1990	2,070	2,120	4,857	501	1,403
	1992	1,955	1,980	5,321	633	1,730
	1994	1,837	1,872	5,857	759	2,001
	1996	1,837	1,874	6,170	926	2,255
	1998	1,387	1,563	5,650	956	2,635
	2000	1,546	1,714	6,016	1,194	2,672
	2001	1,504	1,682	6,078	1,308	2,767
	2002. 8	1,499	1,708	6,208	1,418	2,8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고학력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의 선택이 자신의 소득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즉 임금근로자로서 창업을 위한 경험과 능력을 쌓고 창업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한 뒤 자발적으로 창업을 시작한 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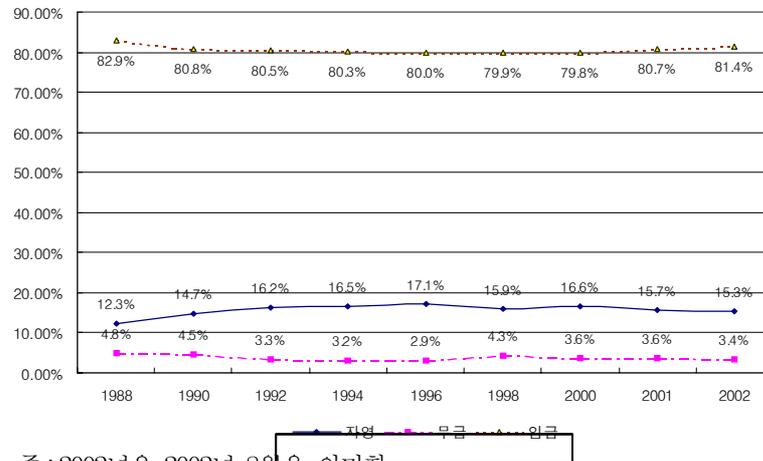
74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그림 4-6-1] 고졸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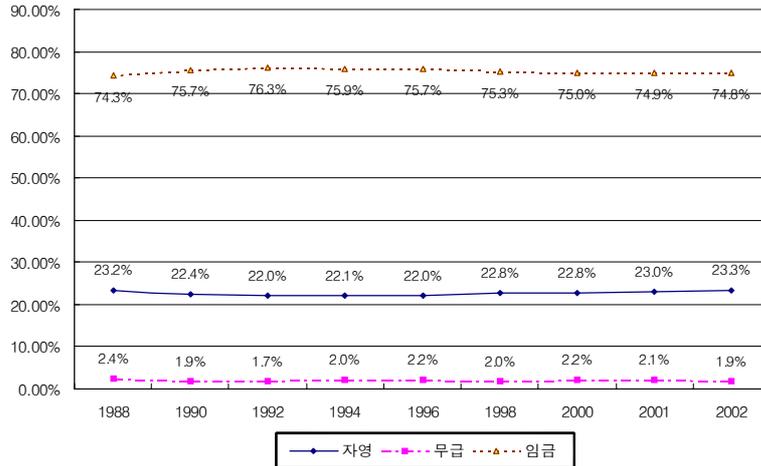
[그림 4-6-2] 전문대졸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 10) 이러한 점은 제5장과 제6장의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과 제6장의 분석결과는 자영업주들이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며, 한편에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지닌 자발적 자영업주인 것에 비해, 다른 한편에는 저능력의 근로자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두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3] 대졸 이상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그림 4-6-1]~[그림 4-6-3]은 학력별로 취업자의 종사상 분포와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1]에서 고졸 취업자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1990년 이후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취업자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림 4-6-3]에서 고졸 취업자 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약간이나마 늘어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발견되는 자영업주의 증가현상은 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¹⁾ 특히 고졸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인 숫자는 1998년의 4,091천명에서 2001년 6,078천명으로 48.6%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는 74.8% 증가하였다.

11) 초등학교 졸업 이하 또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 중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주 비중의 분포와 추이는 [부도 2]와 [부도 3]에 나타나 있다. 부도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자영업주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5. 가구주와의 관계 및 혼인상태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가구주 본인이다. <표 4-8>에서 자영업주 중 가구주는 전기간에 걸쳐 8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14%대를 유지하고 있었다¹²⁾. 이처럼 자영업주의 95% 가까이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임에 따라 가구주의 자녀이거나 기타인 경우는 2~3%대에 머무르고 있다. 자영업주와 가구주와의 관계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시계열적으로도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거꾸로 대부분이 가구주의 배우자로 그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 가구주가 무급가족종사자로 활동하는 비중은 시계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1년의 경우 1.7%로 2%에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가구주의 비중이 낮은 현상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표면적으로는 가구주를 자영업의 대표로 내세우는 남성 중심의 문화와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나아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주의 비중이 1990년의 0.2%에서 2001년 1.7%로 증가한 것이 실질적으로 무급가족종사를 하는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성 중심의 문화·관습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타 관계인의 비중은 1988년의 15.0%에서 2001년 8.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핵가족화의 현상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단위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단위의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대숫자가 감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988년 2,167천명에 달하였던 무급가족종사자의 숫자는 13년 뒤인 2001년 1,857천명으로 14.3%나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수가 16,869천명

12) 가구주인 자영업주의 숫자는 1988년의 4,037천명에서 2001년 4,891천명으로 21.2% 증가하였다. 또한 배우자인 자영업주는 같은 기간 818천명에서 895천명으로 9.4% 늘어났다.

에서 21,362천명으로 26.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표 4-8〉 가구주와 관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 전산업
(단위 : %, 천명)

종사상 지위	연 도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배우자	자 녀	기 타	전 체
자영업주	1988	79.3	16.1	1.2	3.5	100.0(5,093)
	1990	81.3	13.9	1.3	3.5	100.0(5,068)
	1992	80.9	14.1	1.6	3.4	100.0(5,423)
	1994	81.0	13.8	1.6	3.6	100.0(5,543)
	1996	79.2	14.6	2.8	3.4	100.0(5,812)
	1998	80.2	14.0	2.5	3.3	100.0(5,776)
	2000	79.6	14.3	2.7	3.4	100.0(5,999)
	2001	79.3	14.4	2.8	3.5	100.0(6,166)
	2002. 8	79.4	14.2	2.9	3.5	100.0(6,299)
무급 가족 종사자	1988	0.4	75.4	9.3	15.0	100.0(2,167)
	1990	0.2	78.5	7.9	13.3	100.0(2,067)
	1992	0.4	81.1	7.3	11.2	100.0(1,992)
	1994	0.3	82.1	6.4	11.1	100.0(2,037)
	1996	0.4	83.4	6.3	9.9	100.0(1,941)
	1998	0.6	83.1	7.0	9.3	100.0(2,028)
	2000	1.8	81.9	7.0	9.3	100.0(1,919)
	2001	1.7	82.6	7.2	8.6	100.0(1,857)
	2002. 8	1.8	83.3	6.7	8.2	100.0(1,791)
임금 근로자	1988	60.8	13.9	12.7	12.7	100.0(9,609)
	1990	59.5	16.1	12.9	11.6	100.0(10,949)
	1992	59.1	16.1	14.1	10.7	100.0(11,618)
	1994	58.4	16.4	15.4	9.9	100.0(12,325)
	1996	58.4	17.0	15.5	9.1	100.0(13,064)
	1998	58.8	18.3	14.8	8.0	100.0(12,192)
	2000	57.3	18.6	16.4	7.8	100.0(13,141)
	2001	56.7	19.0	16.8	7.5	100.0(13,340)
	2002. 8	56.3	19.5	17.2	7.1	100.0(13,7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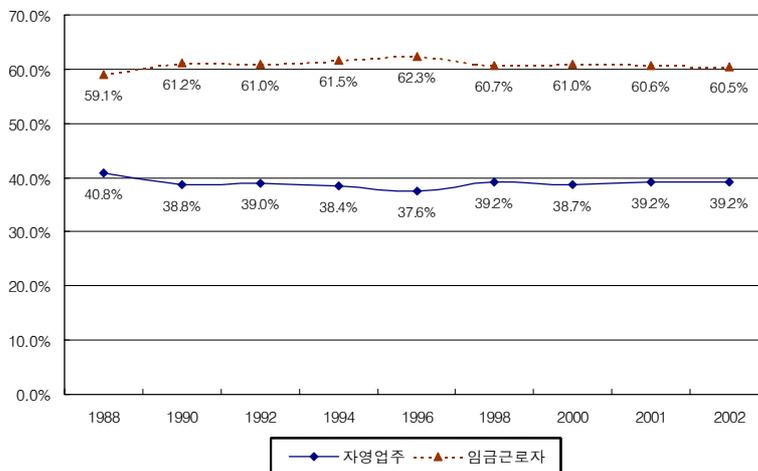
임금근로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구주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90년대에 걸쳐 약간씩 하락한 한편 배우자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특히 주부의 경제활동증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또한 과거의 부부 공동 운영방식의

78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자영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구주의 자녀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구주와 기타 관계인¹³⁾ 임금근로자 비중의 급격한 감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구내 기타 관계인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녀의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구주인 취업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을 때, 이들의 40% 정도는 자영업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나머지 60% 정도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매우 낮아 0.1~0.3%에 불과하다. 가구주의 40% 정도가 자영업주인 현상은 시계열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특징을 나타낸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주: 2002년은 2002년 8월을 의미함.

13) 기타 관계인의 대부분은 가구주의 부모 등으로 자녀가 장성하였을 때 부모와 독립적 가구를 형성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자영업주의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예상과 같이 80% 이상의 자영업주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은 1988~2001년의 기간에 걸쳐 4~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배우가 83.3~86.7%의 범위에 움직이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미혼상태인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유배우인 자영업주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와 사별한 자영업주의 비중은 1988~2001년 사이에 7.1~7.8%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혼한 자영업주는 1988년의 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2.7%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이혼율의 증가와 연계된 현상으로 판단되는데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이혼한 근로자의 비중이 1998년의 1.4%에서 2001년에는 2.9%로 증가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의 90%에 가까이도 배우자가 있으며, 1998~2001년의 기간 동안 사별이 2.5~4.3%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미혼이 많다. 유배우가 관찰기간 동안 63.1~65.9%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혼은 29.1~31.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6. 산업별 분포와 변화

산업별로 자영업주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4-9>와 <표 4-10>에 나타난 것처럼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숫자는 1993년의 3,264천명에서 2001년에는 4,280천명으로 31.1%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주 중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1993년의 59.9%에서 2001년 69.4%로 9.5%포인트 증가하였다.¹⁴⁾

서비스업 내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주가 집중되어 있어 2001년의 경우 전체 자영업주의 37.5%인 2,313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종

1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92년 개정되었고, 또 2001년 재개정되었다. 그 결과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연도는 1993년에서 2001년까지로 여기에서도 이 기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다.

80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산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표 4-9〉 산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와 추이 : 전산업
(단위 : 천명)

종사상 지위	연도	산업						
		농림수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	도소매 및 음식숙박	전기 및 금융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자영업주	1993	1,643	543	3,264	264	2,084	287	629
	1994	1,588	548	3,407	288	2,178	289	652
	1995	1,482	567	3,546	319	2,218	324	785
	1996	1,438	574	3,799	338	2,291	251	819
	1997	1,423	586	3,973	353	2,366	381	873
	1998	1,415	513	2,848	320	2,306	358	864
	1999	1,360	545	3,936	296	2,348	390	902
	2000	1,341	569	4,089	328	2,376	430	955
	2001	1,324	562	4,280	345	2,313	479	1,143
	무급가족종사	1993	1,010	169	905	25	759	7
1994		963	60	915	22	774	8	111
1995		872	169	913	22	764	11	116
1996		832	168	941	26	787	16	112
1997		801	172	925	32	760	18	115
1998		904	153	971	26	801	11	133
1999		800	158	960	18	796	11	135
2000		762	172	986	30	789	14	153
2001		699	179	978	30	761	15	172
임금근로		1993	195	4,016	7,581	1,401	2,008	1,420
	1994	180	4,045	8,099	1,470	2,256	1,466	2,907
	1995	180	4,087	8,516	1,564	2,395	1,525	3,032
	1996	160	3,973	8,932	1,607	2,564	1,560	3,201
	1997	161	3,750	9,316	1,620	2,679	1,600	3,417
	1998	163	3,253	8,777	1,232	2,464	1,624	3,457
	1999	189	3,323	9,011	1,163	2,580	1,586	3,682
	2000	185	3,523	9,435	1,225	2,778	1,612	3,820
	2001	171	3,478	9,689	1,199	2,746	1,615	4,1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4-10〉 산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와 추이 : 전산업
(단위 : %)

종사상 지위	연 도	산 업							
		농림 수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서비스업	건 설	도소매 및 음식숙박	전기 및 금융		
자영업주	1993	30.1	10.0	59.9	4.8	38.2	5.3	11.5	
	1994	28.7	9.9	61.5	5.2	39.3	5.2	11.8	
	1995	26.0	10.0	64.0	5.6	39.0	5.7	13.8	
	1996	24.7	9.9	65.4	5.8	39.4	6.0	14.1	
	1997	23.8	9.8	66.4	5.9	39.6	6.4	14.6	
	1998	24.5	8.9	66.6	5.5	39.9	6.2	15.0	
	1999	23.3	9.3	67.4	5.1	40.2	6.7	15.4	
	2000	22.4	9.5	68.2	5.5	39.6	7.2	15.9	
	2001	21.5	9.1	69.4	5.6	37.5	7.8	18.5	
	무급 가족 종사	1993	48.5	8.1	43.4	1.2	36.4	0.3	5.5
1994		47.3	7.9	44.9	1.1	38.0	0.4	5.4	
1995		44.6	8.6	46.7	1.1	39.1	0.6	5.9	
1996		42.9	8.7	48.5	1.3	40.5	0.8	5.8	
1997		42.2	9.1	48.7	1.7	40.0	0.9	6.1	
1998		44.6	7.5	47.9	1.3	39.5	0.5	6.6	
1999		41.7	8.2	50.1	0.9	41.5	0.6	7.0	
2000		39.7	9.0	51.4	1.6	41.1	0.7	8.0	
2001		37.7	9.6	52.7	1.6	41.0	0.8	9.3	
임금 근로		1993	1.7	34.1	64.3	11.9	17.0	12.0	23.3
	1994	1.5	32.8	65.7	11.9	18.3	11.9	23.6	
	1995	1.4	32.0	66.6	12.2	18.7	11.9	23.7	
	1996	1.2	30.4	68.4	12.3	19.6	11.9	24.5	
	1997	1.2	28.4	70.4	12.2	20.3	12.1	25.8	
	1998	1.3	26.7	72.0	10.1	20.2	13.3	28.4	
	1999	1.5	26.5	72.0	9.3	20.6	12.7	29.4	
	2000	1.4	26.8	71.8	9.3	21.1	12.3	29.1	
	2001	1.3	26.1	72.6	9.0	20.6	12.1	3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1993년에 629천명이었던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 산업의 자영업주 숫자는 8년 뒤인 2001년 1,143천명으로 81.7%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체 자영업주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의 11.5%에서

2001년에는 18.5%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도 크게 증가하여 1993~2001년간 66.9%가 성장하였으며, 전체 자영업주 중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3%에서 7.8%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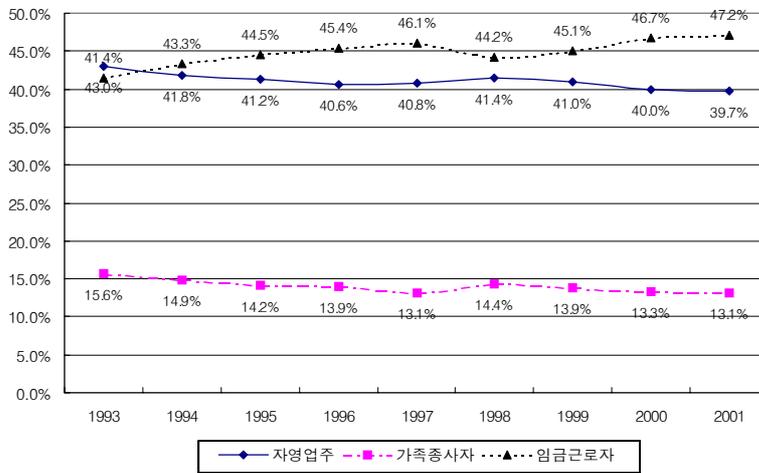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는 절대적 숫자와 비중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공업 등의 광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수는 1993년의 543천명에서 2001년 562천명으로 상당히 안정적 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주 중 광공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1993년의 10.0%에서 2001년 9.1%로 약간의 하락만을 기록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농림수산업으로 1993년의 경우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몰려 있었다. 이처럼 높은 비중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2001년 현재에도 무급가족종사자의 37.7%인 699천명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감소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숫자는 1993년의 905천명에서 2001년 978천명으로 7.9%가 늘어났으며,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의 43.4%에서 2001년 52.7%로 높아졌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자영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업으로 나타났다.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격한 상승은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3년 2,752천명이었던 이들 산업의 임금근로자수는 2001년 4,129천명으로 50.0%나 증가하였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3%에서 31.0%로 늘어났다.

각 산업별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농림수산업의 성격상 자영업주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것은 향후 우려의 대상이다(그림 4-8 참조). 우리나라

라의 유통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유통업의 혁신과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영세한 상인들에게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결과 영세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도시빈민화될 위험성이 제기된다.

(그림 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의 분포와 추세 : 전산업



7. 직업별 분포와 변화

자영업주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의 숫자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1>과 <표 4-12>에서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의 숫자는 2001년 현재 2,358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주의 38.2%를 점유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농림어업 근로자의 21.3%(2001년)이다. 또한 기능원 및 기능근로자가 652천명으로 10.6%를 조작용 및 조립원이 594천명(9.6%)을 차지한다.

시계열적으로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농림어업 근로자의 숫자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3년 1,628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주의 29.9%이던 농림어업 근로자는 8년 뒤인 2001년 1,314명으로 19.3%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9%에서

84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21.3%로 낮아졌다.

〈표 4-11〉 직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와 추이 : 전산업
(단위 : 천명)

종사상 지위	연도	직업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농림 어업 근로자	기능원 및 기능 근로자	조직원 및 조립원	단순 근로자
자영업주	1993	330	341	32	1,932	1628	526	405	257
	1994	319	363	37	2,021	1580	536	429	257
	1995	302	480	39	2,101	1475	647	428	221
	1996	316	519	39	2,156	1431	673	459	219
	1997	305	571	37	2,238	1418	688	504	219
	1998	290	587	32	2,168	1410	602	476	211
	1999	261	675	40	2,142	1353	622	502	247
	2000	278	726	51	2,142	1332	638	551	283
	2001	310	733	63	2,358	1314	652	594	144
	무급가족종사자	1993	0	22	86	744	881	95	59
1994		0	22	99	742	949	80	60	84
1995		0	27	109	732	862	110	39	76
1996		0	27	129	741	823	107	36	77
1997		0	24	140	720	790	112	34	79
1998		0	24	132	766	894	112	33	66
1999		1	27	128	754	795	117	33	64
2000		0	35	147	755	756	121	40	66
2001		0	31	151	762	695	116	45	56
임금근로자		1993	194	2,015	2,301	1,364	52	2,191	2,001
	1994	212	2,153	2,300	1,536	49	2,112	2,073	1,892
	1995	221	2,305	2,372	1,652	44	2,469	1,721	1,999
	1996	231	2,436	2,400	1,792	65	2,449	1,683	2,009
	1997	222	2,565	2,396	1,910	64	2,359	1,645	2,064
	1998	220	2,612	2,255	1,802	61	1,827	1,584	1,830
	1999	219	2,682	2,051	1,923	70	1,863	1,579	2,136
	2000	212	2,681	2,161	2,139	66	1,951	1,651	2,279
	2001	236	2,692	2,315	2,526	65	1,841	1,675	1,9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4-12〉 직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와 추이 : 전산업

(단위: %)

종사상 지위	연도	직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농림어업 근로자	기능원 및 기능 근로자	조직원 및 조립원	단순 근로자
자영업주	1993	6.1	6.3	0.6	35.4	29.9	9.6	7.4	4.7
	1994	5.8	6.5	0.7	36.5	28.5	9.7	7.7	4.6
	1995	5.3	8.4	0.7	26.9	25.9	11.4	7.5	3.9
	1996	5.4	8.9	0.7	37.1	24.6	11.6	7.9	3.8
	1997	5.1	9.5	0.6	37.4	23.7	11.5	8.4	3.7
	1998	5.0	10.2	0.6	37.5	24.4	10.4	8.2	3.7
	1999	4.5	11.6	0.7	36.7	23.2	10.6	8.6	4.2
	2000	4.6	12.1	0.8	35.7	22.2	10.6	9.2	4.7
	2001	5.0	11.9	1.0	38.2	21.3	10.6	9.6	3.9
무급가족종사자	1993	0.0	1.1	4.1	35.7	42.3	4.6	2.8	4.6
	1994	0.0	1.1	4.9	36.4	46.6	3.9	2.9	4.1
	1995	0.0	1.4	5.6	37.4	44.1	5.6	2.0	3.9
	1996	0.0	1.4	6.6	38.2	42.4	5.5	1.9	4.0
	1997	0.0	1.3	7.4	37.9	41.6	5.9	1.8	4.2
	1998	0.0	1.2	6.5	37.8	44.1	5.5	1.6	3.3
	1999	0.1	1.4	6.7	39.3	41.4	6.1	1.7	3.3
	2000	0.0	1.8	7.7	39.3	39.4	6.3	2.1	3.4
	2001	0.0	1.7	8.1	41.1	37.4	6.3	2.4	3.0
임금근로자	1993	1.6	17.1	19.5	11.6	0.4	18.6	17.0	14.2
	1994	1.7	17.5	18.7	12.5	0.4	17.1	16.8	15.3
	1995	1.7	18.0	18.6	12.9	0.3	19.3	13.5	15.6
	1996	1.8	18.6	18.4	13.7	0.5	18.7	12.9	15.4
	1997	1.7	19.4	18.1	14.4	0.5	17.8	12.4	15.6
	1998	1.8	21.4	18.5	14.8	0.5	15.0	13.0	15.0
	1999	1.7	21.4	16.4	15.4	0.6	14.9	12.6	17.1
	2000	1.6	20.4	16.4	16.3	0.5	14.8	12.6	17.3
	2001	1.8	20.2	17.4	18.9	0.5	13.8	12.6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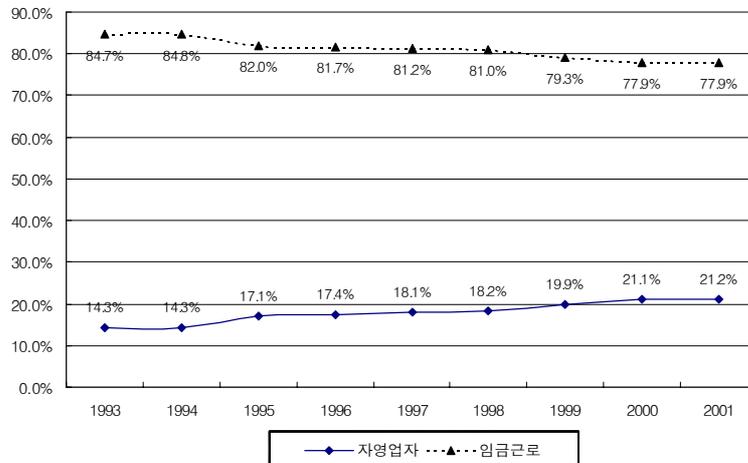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3년의 6.3%에서 2001년에는 11.9%로 크게 높아졌다. 그에 따라 (준)전문가인 자영업주의 숫자도 같은 기간 341천명에서 733천명으로 115.0%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의 제3장에서 논의와 같이 다른 OECD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1990년대 자영업 시장을 직업의 측면에서 바라 보면 자영 (준)전문가 집단의 성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직업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환경과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아래에서 자영업주의 증가가 새로운 소득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추구한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을 제기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4-9]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준)전문가 중에서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3년의 14.3%에서 2001년에는 21.2%로 높아졌으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4.7%에서 77.9%로 낮아졌다. 이는 임금근로로 취업한 (준)전문가의 절대적 숫자가 동 기간 677천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주인 (준)전문가의 빠른 증가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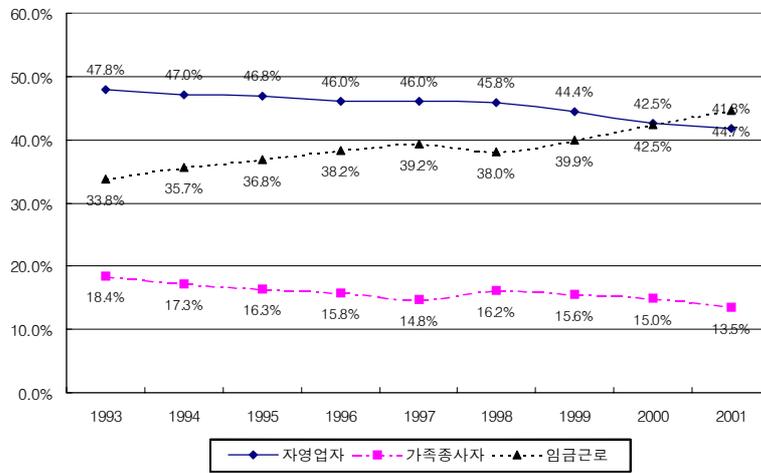
[그림 4-9] (준)전문가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와 추이 : 전산업



또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근로자화가 1990년대에 관찰된다. [그림 4-10]에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993~2001년 사이에 47.8%에서 41.8%로 낮아진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3.8%에서 44.7%로 높아졌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도 1993년의 18.4%에서 2001년 13.5%로 급격히 낮아졌다.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근로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나라의 유통 및 음식·숙박업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4-10)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와 추이 : 전산업



제2절 자영업주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앞의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자영업주의 특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사용하여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¹⁵⁾ 인구학적 특

15)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을 제1차 조사로 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성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영업주들의 삶과 자영업 가구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표 4-13>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가구주 관계 및 결혼
(단위 : %, 명)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미취업자
	자영업주	무급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00.0(1527)	100.0(431)	100.0(2908)	100.0(835)	100.0(3728)
성 별					
남 성	71.3	11.8	63.5	48.1	28.4
여 성	28.7	88.2	36.5	51.9	71.6
연 령					
15~19세	0.0	0.0	1.5	3.8	1.8
20~29세	3.5	5.1	28.4	17.7	17.2
30~39세	21.7	24.6	31.7	22.2	23.7
40~49세	35.2	32.7	24.5	28.1	23.2
50~59세	22.4	19.0	11.0	17.8	15.3
60세 이상	17.2	18.6	2.9	10.3	18.9
평균연령(세)	47.5	47.0	36.8	41.4	49.2
가구주 관계					
가구주	73.4	8.1	53.8	45.8	28.4
배우자	20.0	83.3	18.1	31.1	47.1
자녀	4.7	4.9	25.6	21.2	12.3
기타	1.9	3.7	2.5	1.9	12.3
결혼 여부					
미혼	5.3	4.2	29.5	22.9	13.6
유배우	85.3	93.7	66.8	66.2	68.8
이혼/사별/별거	9.4	2.1	3.8	10.9	17.5

주: 현재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미취업자의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성별로 보면 <표 4-13>과 같이 자영업주의 71.3%는 남성인 반면 28.7%만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무급가족종사자는 88.2%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의 직접적 비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여성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로 남성이 가족사업을 주도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치관 및 문화에 기인한 것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표 4-14〉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가구주 관계 및 결혼
(단위 : %, 명)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미 취업자	소 계
	자영 업주	무급 종사자	정규직	비 정규직		
성 별						
남 성	24.5	1.2	41.5	9.0	23.8	100.0(4446)
여 성	8.8	7.6	21.3	8.7	53.6	100.0(4983)
연 령						
15~19세	0.0	0.0	25.6	19.1	55.4	100.0(168)
20~29세	3.3	1.4	51.1	9.2	35.1	100.0(1617)
30~39세	14.8	4.8	41.3	8.3	30.8	100.0(2231)
40~49세	24.6	6.5	32.5	10.8	25.7	100.0(2185)
50~59세	23.7	5.7	22.2	10.3	38.1	100.0(1445)
60세 이상	14.8	4.5	4.8	4.8	71.2	100.0(1783)
가구주 관계						
가구주	26.9	0.8	37.6	9.2	25.4	100.0(4159)
배우자	9.5	11.2	16.4	8.1	54.7	100.0(3207)
자 녀	4.9	1.4	50.6	12.0	31.1	100.0(1473)
기 타	4.9	2.7	12.2	2.7	77.5	100.0(590)
결혼 여부						
미 혼	4.9	1.1	51.8	11.5	30.7	100.0(1655)
유배우	19.2	6.0	28.7	8.2	37.9	100.0(6767)
이혼/사별/별거	14.3	0.9	10.8	9.0	65.0	100.0(1007)
전 체	16.2	4.6	30.8	8.9	39.5	100.0(9429)

주 : 현재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미취업자의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 안은 해당되는 표본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분석의 초점을 달리해서 현재 재학 또는 휴학중이 아닌 15세 이상 남성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면 <표 4-14>와 같이 남성의 24.5%가 자영업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가장 많은 41.5%가 정규직 임

금근로자이며, 미취업자도 23.8%에 달하고 있다. 여성은 미취업자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재학 또는 휴학중이 아닌 15세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미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성 인력의 활용이 미흡함을 시사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영업주의 비중이 8.8%로 매우 낮다는 것을 이 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표 4-13>에서 자영업주의 평균연령이 47.5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평균연령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 36.8세에 비해 10세 이상이 높은 값으로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이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영업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표 4-13>에서 보면, 40대가 35.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의 22.4%, 30대의 21.7%이다. 20대는 불과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로자의 취업형태에 있어 40대는 일종의 전환기로 여겨진다. 또한 <표 4-14>에서 보듯이 30대까지는 취업한 남성의 대부분이 임금근로로 근무하고 있으나 40대부터는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40대에는 재학이나 휴학중이 아닌 남성의 24.6%가 자영업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중은 50대에 23.7%, 60대 이상에서 14.8%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앞 절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와 같이 자영업주의 대부분이 가구주 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에서 자영업주의 73.4%가 가구주 본인이었으며, 배우자가 20.0%, 자녀 4.7%, 그리고 기타가 1.9%이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83.3%가 가구주의 배우자라는 점과 대비된다. 또한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표 4-14>와 같이 가구주의 37.6%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이고, 26.9%가 자영업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네 명 중 적어도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주임을 보여준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자영업주의 85.3%가 유배우자이며, 미혼이 5.3%, 그리고 이혼/별거/사별이 9.4%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자영업주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은 임금근로자의 2/3 정도만이 결혼하였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표 4-15〉 자영업주의 학력 및 전공별 분포¹⁾

(단위: %, 명)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미취업자
	자영업주	무급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00.0(1,527)	100.0(431)	100.0(2,908)	100.0(835)	100.0(3,728)
학 력					
초등졸 이하	24.0	39.2	7.6	24.9	34.7
중졸	20.4	20.7	12.3	20.2	14.7
고졸	38.1	34.3	42.1	41.3	35.3
전문대졸	5.2	3.3	13.2	7.5	5.8
대졸 이상	12.3	2.6	24.9	6.0	9.5
전 공(고졸) ²⁾					
인문고	50.7	63.8	45.4	42.9	52.4
공업고	16.0	1.5	17.4	11.4	6.9
상업고	16.7	24.6	24.7	30.6	28.3
농업고	7.3	4.4	5.0	4.2	2.6
기 타	9.3	5.8	7.5	10.8	9.8
전공(전문대 이상)					
인문계열	24.4	36.4	26.0	23.6	34.4
사회계열	15.7	15.2	16.4	14.6	16.3
자연계열	11.1	6.1	10.9	13.9	13.5
공학계열	28.6	15.2	30.2	29.2	17.5
의약계열	7.3	3.0	4.2	4.2	5.6
사범계열	2.3	3.0	6.5	4.2	6.0
예체능계열	10.7	21.2	5.7	10.4	6.7

주: 1) 현재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미취업자의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안은 해당되는 표본수.

2) 인문고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포함되며, 공업고에는 2+1 공업고, 기타에는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예체능고, 검정고시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자영업주의 학력에 대한 기초분석의 결과는 <표 4-15>와 <표 4-16>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5>에서 자영업주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주 중에서 (전

92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중은 17.5%에 불과하나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그 비중이 38.1%에 달한다.

〈표 4-16〉 자영업주의 학력 및 전공별 분포¹⁾

(단위: %, 명)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미취업	소 계
	자영업주	무급종사자	정규직	비정규		
학 력						
초등졸 이하	16.2	7.5	9.8	9.2	57.3	100.0(2,255)
중졸	21.2	6.0	24.2	11.5	37.2	100.0(1,475)
고졸	16.1	4.1	33.9	9.6	36.4	100.0(3,613)
전문대졸	10.6	1.9	50.6	8.3	28.7	100.0(757)
대졸 이상	14.2	0.8	54.6	3.8	26.6	100.0(1,326)
전 공(고졸) ²⁾						
인문고	16.2	5.2	31.2	8.5	38.9	100.0(1,688)
공업고	20.8	0.5	48.8	9.2	20.8	100.0(414)
상업고	10.4	3.9	33.0	11.8	41.0	100.0(867)
농업고	26.0	4.0	38.7	9.3	22.0	100.0(150)
기 타	16.5	2.6	28.6	11.8	40.5	100.0(304)
전공(전문대 이상)						
인문계열	10.7	2.0	48.7	5.7	21.9	100.0(596)
사회계열	12.0	1.5	53.4	6.1	27.1	100.0(343)
자연계열	11.6	0.8	48.8	8.0	30.8	100.0(250)
공학계열	13.4	0.9	60.3	7.5	17.9	100.0(559)
의약계열	18.1	1.0	44.8	5.7	30.5	100.0(105)
사범계열	5.0	0.8	60.8	5.0	28.3	100.0(120)
예체능계열	18.4	4.6	42.1	9.9	25.0	100.0(152)

주: 1) 현재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미취업자의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안은 해당되는 표본수.

2) 인문고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포함되며, 공업고에는 2+1 공업고, 기타에는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예체능교, 검정고시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또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 중에서 자영업자는 14.2%로 임금근로자의 54.6%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임금근로자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은 분석대상을 고졸로 제한하였을 때에도 발견된다. 즉 고졸자들 중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3.9%이었으나 자영업주는 16.1%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동일학력의 인력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은 원인은 학력에 대한 수익률이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고학력자들이 임금근로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연령층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전공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자영업주의 절반 정도(50.7%)가 인문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6.0%가 공업고, 그리고 16.7%가 상업고를 졸업하였다. 반면 인문고 졸업생의 16.2%가 자영업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업고는 졸업생의 20.8%, 그리고 농업고는 졸업생의 26.0%가 자영업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할 기회가 많은 농업고를 제외하였을 때, 공업고 졸업생의 경우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2. 자영업주의 산업과 직업

자영업주의 산업별·직업별 분포는 <표 4-17>과 <표 4-18>에 나타나 있다. 자영업주의 29.0%가 도소매 판매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농림수산업으로 20.0%를 차지한다. 또한 음식·숙박업이 11.4%로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을 합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40.4%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전문성이 낮고 영세상인들이 많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표 4-17〉 자영업주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 고용형태 기준

(단위: %, 명)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취업자 전체
		자영 업주	무급 종사자	정규직	비 정규직	
산업별	농림수산업	20.0	34.0	0.3	2.6	8.5
	광업, 제조업	11.6	11.3	30.6	15.4	22.0
	전기·가스 및 수도	0.1	0.0	0.8	0.4	0.5
	건설업	5.0	1.1	5.5	26.0	8.0
	도소매	29.0	28.3	13.3	11.6	18.3
	음식·숙박업	11.4	13.1	4.2	10.3	7.7
	운수·창고 및 통신	6.3	1.3	8.4	2.5	6.4
	금융 및 보험	1.0	0.0	5.3	4.4	3.6
	부동산 임대	4.1	2.0	9.9	4.8	7.0
	공공행정, 국방	0.8	0.0	4.8	4.7	3.2
	교육서비스	2.1	1.1	9.0	5.4	6.0
	보건 및 사회복지	0.9	0.2	3.5	1.3	2.2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	8.3	7.4	3.5	4.3	5.2
	가사서비스	0.1	0.0	0.4	6.2	1.1
국제 및 외국기관	0.1	0.2	0.5	0.3	0.3	
직업별	고위임직원, 관리자	3.4	0.2	1.2	0.1	1.5
	전문가	3.0	0.2	10.3	2.8	6.5
	준전문가	6.7	1.5	17.3	7.5	11.9
	사무직원	1.0	8.7	18.6	6.4	11.5
	서비스 및 판매	39.9	40.2	12.8	18.3	22.8
	농림어업 근로자	19.9	33.6	0.2	2.1	8.3
	기능원	12.4	7.0	14.8	25.3	15.1
	조직원 및 조립원	9.9	4.8	15.1	8.3	11.9
	단순노무직	3.8	3.7	9.8	29.4	10.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이 산업에 취업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 업종의 경우 취업자의 40.5%가 자영업주이고 12.9%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음식·숙박업도 38.2%가 자영업주이고 14.2%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업 실패의 고통을 자영업주뿐만 아니라 무

급가족종사자도 함께 지며 무급가족종사자가 있는 가족형 자영업의 상당수가 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함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표 4-18〉 자영업주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 산업·직업 기준

(단위: %, 명)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소계
		자영업주	무급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산업별	농림수산업	60.4	33.4	1.7	4.5	100.0
	광업, 제조업	13.6	4.3	72.0	10.1	100.0
	전기·가스 및 수도	3.6	0.0	85.7	10.7	100.0
	건설업	16.1	1.1	35.7	47.1	100.0
	도소매	40.5	12.9	37.5	9.1	100.0
	음식·숙박업	38.2	14.2	28.2	19.4	100.0
	운수·창고 및 통신	25.1	1.7	67.6	5.6	100.0
	금융 및 보험	7.0	0.0	75.5	17.5	100.0
	부동산 임대	14.8	2.3	73.0	9.9	100.0
	공공행정, 국방	0.6	0.0	78.2	21.3	100.0
	교육서비스	8.7	1.5	76.9	12.9	100.0
	보건 및 사회복지	9.8	0.8	81.3	8.1	100.0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	41.1	11.9	35.9	11.9	100.0
	가사서비스	3.2	0.0	19.1	77.8	100.0
국제 및 외국기관	5.8	5.9	76.5	11.8	100.0	
직업별	고위임직원, 관리자	56.6	1.2	41.0	1.2	100.0
	전문가	11.7	0.3	81.8	6.2	100.0
	준전문가	14.4	1.1	75.3	9.2	100.0
	사무직원	2.2	6.3	83.4	8.1	100.0
	서비스 및 판매	44.6	14.7	29.0	11.7	100.0
	농림어업 근로자	61.3	33.9	1.1	3.7	100.0
	기능원	21.0	3.9	50.7	24.4	100.0
	조직원 및 조립원	21.3	3.4	65.3	10.1	100.0
단순노무직	9.1	2.9	47.6	40.4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직업별로도 자영업주의 39.9%가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농림어업 근로자로 19.9%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고위임직원·관리자나 (준)전문가의 비중은 13.1%에 불과하다. 또한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면 <표 4-18>과 같이 이 직종 취업자의 44.6%가 자영업주이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9.0%에 그친다.

그러나 전문가의 81.8%와 준전문가의 75.3%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의 인력수요 전망에서 (준)전문가 계층에 대한 수요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인력수요의 방향이 자영업주보다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¹⁶⁾

다음 단계로 자영업주의 산업이 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4-19>와 같이 여성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각각 31.7%와 22.7%가 종사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농림수산업을 제외하면 여성 자영업주의 2/3인 64.6%가 이들 두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를 제외할 경우 여성 자영업주의 73.6%가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다.

남성도 도소매업에 29.2%가 종사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과는 달리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은 6.3%에 불과하다.¹⁷⁾ 이는 음식·숙박업이 친여성적 직종임을 보인다. 이외에도 광공업에 14.1%, 그리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8.7%, 건설업에 7.1%,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7.0%, 부동산 임대업에 4.4% 등 남성 자영업주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표 4-19>에서 남녀 모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자영업주의 경우

16) 서비스 및 판매직중에서도 대단위·대규모 유통 및 음식·숙박업의 성장과 소규모의 가족형 자영업의 위축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과거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들 대신 임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 및 취업구조의 변화가 기존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17) 농림수산업을 제외할 경우 도소매업에 남성 자영업주의 36.6%, 그리고 음식·숙박업에 7.9%가 종사하고 있다.

기능원(15.6%)이나 조직원 및 조립원(12.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대부분이 서비스 및 판매직에 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표 4-19〉 자영업주의 산업과 직업 분포 : 성별·연령대별 특성

(단위: %)

		성 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산업	농림수산업	20.2	15.8	1.9	4.3	7.3	25.9	55.9
	광업, 제조업	14.1	7.6	5.7	13.1	15.3	12.1	6.1
	전기·가스 및 수도	0.1	0.0	0.0	0.0	0.0	0.3	0.0
	건설업	7.1	0.5	3.8	6.1	6.5	5.3	1.5
	도소매	29.2	31.7	34.0	38.3	32.3	24.1	21.1
	음식·숙박업	6.3	22.7	11.3	10.3	13.5	11.5	6.1
	운수·창고 및 통신	8.7	0.7	3.8	7.0	6.9	8.8	1.9
	금융 및 보험	1.1	0.7	0.0	2.1	0.6	0.9	0.8
	부동산 임대	4.4	2.8	7.6	3.7	4.9	3.5	2.3
	공공행정, 국방	0.1	0.0	0.0	0.0	0.0	0.3	0.0
	교육서비스	0.7	6.0	13.2	4.9	1.3	0.9	0.0
	보건 및 사회복지	0.9	0.5	0.0	1.2	1.1	0.3	0.4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	7.0	11.0	18.9	9.1	9.9	6.2	3.8
	가사서비스	0.0	0.2	0.0	0.0	0.2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1	0.0	0.0	0.0	0.2	0.0	0.0	
직업	고위임직원, 관리자	4.1	0.5	1.9	3.7	3.8	2.7	1.5
	전문가	2.5	4.6	13.5	4.6	3.0	2.1	0.8
	준전문가	7.3	4.9	17.3	8.0	6.9	5.0	4.2
	사무직원	0.8	1.9	1.9	1.8	1.7	0.3	0.0
	서비스 및 판매	32.0	61.9	53.9	45.6	45.2	37.6	26.1
	농림어업 근로자	20.2	15.9	1.9	4.3	6.9	26.3	55.9
	기능원	15.6	6.2	3.9	15.0	16.0	13.0	5.8
	조직원 및 조립원	12.8	1.6	3.9	11.0	12.2	11.0	1.9
	단순노무직	4.6	2.5	1.9	6.1	4.3	2.1	3.8

주: 자영업주만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연령별 산업분포는 20대에서 교육서비스 및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업의 비중이 높은 한편, 30대, 40대에서는 광공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50대 이상에서는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아 50대의 25.9%와 60대 이상의 55.9%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고연령층에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 분석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 자영업주의 비중은 연령대별로 안정적인 값을 나타낸다.¹⁸⁾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령대에 따른 직업분포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림어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다른 직업의 비중이 감소한다. 따라서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20대에서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의 비중이 각각 13.7%와 17.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이에 대해 30대 이상에서는 기능원과 조직원 및 조립원의 비중이 각각 10%대의 높은 비중을 보여 20대와 30대 이상의 연령대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20대 자영업자들이 높은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지녀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근로자들이 30대 이후 기능원 또는 조직원 및 조립원의 취업형태로 자영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¹⁹⁾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업 종사자를 제외할 경우 연령대와 상관없이 자영업주의 절반 정도가 서비스 및 판매직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자영업주의 학력과 산업 사이의 관계는 <표 4-20>에 나타나 있다. <표 4-20>에서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절반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여 집중현상이

18) 단지 60대 이상의 경우 농림수산업을 제외하였을 때, 절반 정도가 도소매판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20대 자영업자의 숫자가 51명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세대간에 자영업자 특성의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동시대(cohort) 효과를 감안하여야 하나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발견되고 있다. 학력의 상승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도소매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자영업 업종의 확산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업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높아진다.

〈표 4-20〉 자영업주의 산업과 직업 분포 : 학력별·혼인상태별 특성

(단위: %)

		학력별					혼인상태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산업	농림수산업	50.0	17.1	7.3	7.5	2.7	2.5	18.7	31.2
	광업, 제조업	6.0	15.5	14.1	10.0	13.8	7.4	13.6	2.1
	전기·가스 및 수도	0.0	0.3	0.0	0.0	0.0	0.0	0.1	0.0
	건설업	2.5	3.9	8.4	6.3	2.7	3.7	5.5	3.6
	도소매	22.8	25.8	34.1	35.0	35.5	38.3	29.4	29.8
	음식·숙박업	11.8	15.8	9.7	11.3	5.3	7.4	10.7	15.6
	운수·창고 및 통신	1.9	8.7	9.7	3.8	2.1	4.9	6.5	6.4
	금융 및 보험	0.0	0.0	1.4	0.0	3.7	1.2	1.1	0.0
	부동산 임대	0.6	1.9	5.2	5.0	9.5	4.9	4.2	1.4
	공공행정, 국방	0.0	0.3	0.0	0.0	0.0	0.0	0.1	0.0
	교육서비스	0.0	0.0	0.7	8.8	11.6	7.4	2.0	0.7
	보건 및 사회복지	0.0	0.3	0.2	3.8	3.7	2.5	0.7	0.7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	4.4	10.0	9.2	8.8	9.0	19.8	7.4	8.5
	가사서비스	0.0	0.0	0.0	0.0	0.5	0.0	0.1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3	0.0	0.0	0.0	0.0	0.1	0.0
직업	고위임직원, 관리자	0.6	1.6	3.3	1.3	10.2	0.0	3.5	0.7
	전문가	0.3	0.0	0.7	3.8	21.0	10.0	2.8	2.1
	준전문가	0.8	2.9	7.3	15.0	18.2	13.8	6.6	2.8
	사무직원	0.0	1.6	1.6	1.3	1.1	3.8	1.1	0.0
	서비스 및 판매	32.4	44.3	45.1	48.8	32.8	46.3	39.8	44.8
	농림어업 근로자	50.0	17.3	7.1	7.5	2.7	2.5	18.6	31.5
	기능원	8.2	15.3	16.2	11.3	8.6	8.8	13.9	6.3
	조직원 및 조립원	2.5	14.7	13.8	7.5	3.2	6.3	10.2	6.3
	단순노무직	5.2	2.3	4.9	3.8	2.2	8.8	3.6	5.6

주: 자영업주만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학력과 직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0%가 농림어업 근로자이며, 서비스 및 판매직이 32.4%로 대부분을 점유한다. 그러나 중졸과 고졸에서는 농림어업 근로자의 비중이 급락하면서 서비스 및 판매직과 기능원, 조직원 및 조립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자영업주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기능원, 조직원 및 조립원의 비중은 낮아진다. 학력에 따른 이러한 직종분포의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향후 금융 및 보험,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의 분야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준)전문가 직종의 높은 미래 성장률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자영업주는 높은 학력과 능력을 지니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추구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자영업주 증가는 소득증대와 같은 자영업주의 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²⁰⁾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학력화가 자영업주의 경제적 지위에 미칠 영향이다. 고학력자는 과거 자영업주의 대부분이 종사하였던 농림수산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업에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의 형태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학력화가 새로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자영업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3절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월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이 제시

20) 제6장의 분석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되었다.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표 4-21>은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77.9%로 나타나 지난 2000년 조사(80.1%)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고용주에 비해 자영업자는 약 3배, 무급가족종사자는 약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1>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전 체 (명)	규칙적 (%)	불규칙적 (%)	월평균 근로일수 (일)
전 체		1,915	77.9	22.1	27.3
종사상 지위	고용주	468	89.9	10.1	26.8
	자영업자	1,027	72.6	27.4	27.3
	가족종사자	413	77.5	22.5	28.1
산업 ¹⁾	농림어업	431	48.0	52.0	29.0
	광공업	229	86.5	13.5	26.1
	건설업	85	52.9	47.1	25.7
	전기·가스·수도업	101	84.2	15.8	2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74	89.7	10.3	28.1
	금융 및 부동산업	84	85.7	14.3	26.2
	공공서비스업	203	90.6	9.4	26.3

주: 월평균 근로일수는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근로시간 규칙성이 52.9%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규칙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조사하여 이를 월평균 근로일수로 계산하였다. 제4차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비임금근로자의 89.7%가 ‘월평균 25일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표본 전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7.3일로 지난 2000년 조사 당시의 24.9일에 비해 2.4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26.8일)보다는 자영업자(27.3일)의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가 더 많고,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8.1일)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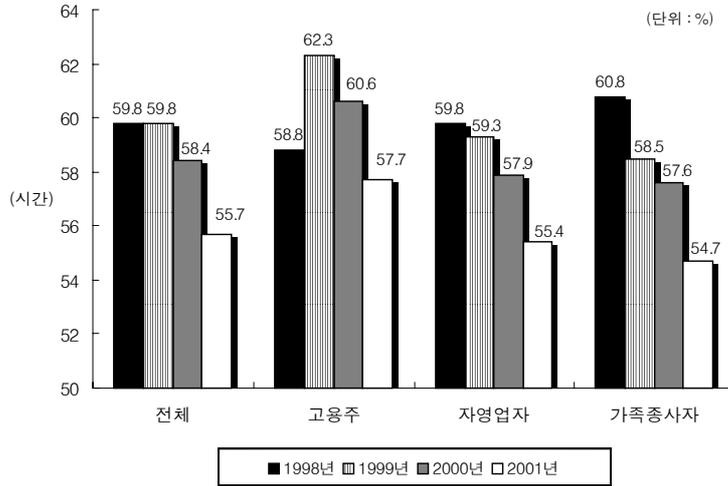
2. 주당 근로시간

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당 근로시간은 1998년과 1999년에는 59.8시간으로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0년에는 58.4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다시 55.7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1998년에는 58.8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적으나 1999년에는 62.3시간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표 4-22>는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비임금근로자의 약 55% 정도가 주당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남성보다 평균 30분 정도 길며, 특히 여성의 경우 주당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2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1)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998~2001년



<표 4-2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체		1,901 (100.0)	8.8	11.2	25.1	32.5	22.4	55.7
성별	남성	1,095 (100.0)	8.8	9.1	27.9	33.4	20.8	55.5
	여성	806 (100.0)	8.8	14.0	21.5	31.1	24.6	56.0
연령	20~39세	478 (100.0)	7.95	8.2	24.3	33.7	25.9	58.3
	40~49세	673 (100.0)	7.6	7.0	26.6	33.9	25.0	57.6
	50~59세	417 (100.0)	8.6	11.0	24.5	36.0	19.9	56.0
	60세 이상	333 (100.0)	12.6	24.3	24.3	23.4	15.3	47.8
교육수준	무학	101 (100.0)	14.9	21.8	24.8	28.7	9.9	45.8
	고졸 미만	822 (100.0)	8.9	14.0	20.1	32.2	24.8	56.3
	고졸	675 (100.0)	7.9	8.0	26.7	33.3	24.1	57.6
	대학 재학	35 (100.0)	8.6	11.4	31.4	25.7	22.9	53.3
	전문대졸	81 (100.0)	9.9	4.9	34.6	33.3	17.3	54.4
	대졸 이상	187 (100.0)	8.0	7.5	36.9	33.2	14.4	52.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당 근로시간이 71시간 이상인 경우도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이 45.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반면 ‘고졸’의 학력자가 57.6시간으로 가장 길다.

<표 4-23>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3.3시간으로 가장 장시간이다. 특히 이 부문은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도 광공업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관찰되었다.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광공업과 비교할 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0.3시간 정도 긴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광공업보다 10% 이상 높아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3>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전체 (명)	1~18 시간	19~ 35 시간	36~ 54 시간	55~ 70 시간	71 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산업	농림어업	428 (100.0)	12.4	26.6	21.0	31.3	8.6	45.8
	광공업	228 (100.0)	3.1	6.6	45.6	28.1	16.7	55.0
	건설업	85 (100.0)	4.7	11.8	45.9	31.8	5.9	49.9
	전기·가스수도업	101 (100.0)	9.9	5.9	25.7	38.6	19.8	55.2
	도소매, 음식·숙박업	772 (100.0)	7.8	4.9	18.4	34.8	34.1	63.3
	금융 및 부동산업	83 (100.0)	6.0	15.7	41.0	27.7	9.6	48.3
	공공서비스업	199 (100.0)	14.1	8.5	20.6	29.2	27.6	54.7
사업체 규모	0인	1,332 (100.0)	9.4	13.7	23.3	31.6	22.0	55.0
	1~4인	426 (100.0)	7.5	5.2	24.9	34.7	27.7	59.1
	5~9인	62 (100.0)	4.8	4.8	43.6	37.1	9.7	54.2
	10인 이상	66 (100.0)	7.6	6.1	48.5	27.3	10.6	51.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9.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0시간으로 5~9인 사업장의 고용주 54.2시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수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1.8시간으로 가장 적다.

제4절 자영업의 매출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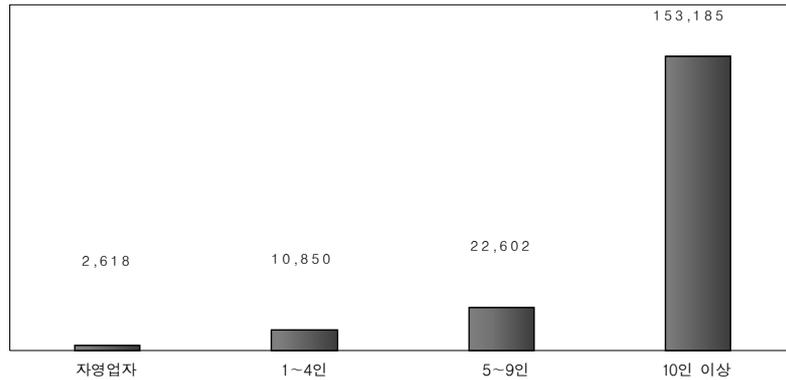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연간 매출액과 월평균 소득이 있다.

먼저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2]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2001년도의 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 617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2,618만원인데 반해 고용주는 10배 수준인 2억 9,371만원에 이른다. 고용주가 속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업원수가 1~4인일 때 1억 850만원, 5~9인 2억 2,602만원,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15억 3,185만원이다.

다음으로 [그림 4-13]은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133.3만원이었던 월평균 소득은 1999년에는 128.5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0년에는 143.8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01년 조사에서는 177.5만원으로 나타나 1999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고용주의 소득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즉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999년에 비해 약 26만원이 증가한 데 반해, 고용주의 월평균 소득은 이 기간 동안 약 100만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 내부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4-12] 비임금근로자의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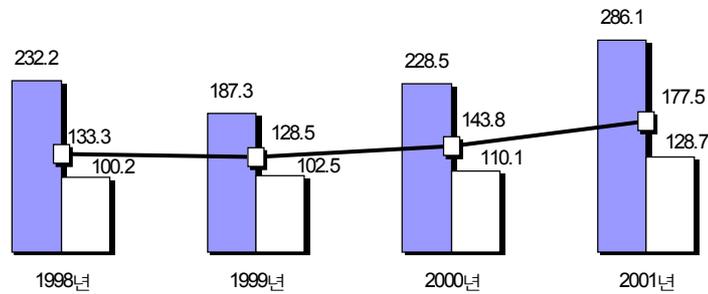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그림 4-13]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비교: 1998~2001년

(단위: 만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표 4-24>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별로 제시하고 있다. 2001년 조사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들 중 월평균 임금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로소득을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근로 소득을 벌고 있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으며,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5.9%나 되었다.

〈표 4-24〉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

		전체 (명)	평균 근로 소득 (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적자 (명)
전체		1,306	177.5	15.9	19.3	17.3	15.0	32.5	161
성별	남성	930	200.8	10.6	16.5	17.8	16.5	38.6	118
	여성	376	119.9	29.0	26.3	16.0	11.4	17.3	43
연령	20~39세	329	175.6	9.7	16.7	18.5	18.5	36.5	26
	40~49세	467	211.1	6.0	16.5	20.6	17.3	39.6	58
	50~59세	295	193.0	15.2	22.4	18.0	12.2	32.2	37
	60세 이상	215	86.5	47.9	25.1	7.4	8.4	11.2	40
교육수준	무학	55	38.8	72.7	23.6	1.8	-	1.8	10
	고졸 미만	522	128.6	21.1	26.3	18.0	15.7	19.0	71
	고졸	485	204.8	9.1	15.9	20.0	16.3	38.6	53
	대학 재학	25	151.9	24.0	12.0	4.0	24.0	36.0	3
	전문대졸	63	233.7	1.6	14.3	17.5	15.9	50.8	5
	대졸 이상	156	286.8	4.5	7.7	14.1	12.2	61.5	1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우선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8만원으로 여성의 평균 근로소득인 119.8만원에 비해 1.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0% 이상으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에서도 성별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211.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의 평균 근로소득은 86.5만원 수준에 그쳤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 이상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교육수준별 근로소득격차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학 재학'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 5 절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²¹⁾

2001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비임금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체 창업 과정, 사업체 지속기간, 현재 사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과 같은 설문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1. 자영업의 시작 동기와 사업의 성공 여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표 4-25>와 같이 전체 자영업주의 26.2%가 ‘좋아하는 업종이어서’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28.7%가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아하는 업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단지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해석하면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이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²²⁾

그 다음으로는 ‘실직 후 생계 또는 정년퇴직 후 대비’가 19.4%로 나타났다. ‘가족, 친지의 사업을 물려받아’가 18.7%로 조사되었다. ‘가족, 친지의 사업을 물려받아’는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이다. 즉 농림수산업 관련 자영업주의 63.5%가 물려받았으며, 사업을 물려받아 시작한 자영업주의 71.9%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한다.²³⁾ ‘직장 상사 등 남의 간섭이 싫어’와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는 응답률이 5%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여성 자영업주는 11.3%가 사업동기로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를 선택하여 여성의 가사·육아부담이 직

21) 이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연구의 제4차 자료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3차 자료를 함께 분석한다.

22)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는 <부표 2>에 나타나 있다.

23) 또한 사업을 물려받은 자영업주의 10.3%는 도소매 판매업에, 5.0%는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등 물려받은 자영업이 특정 업종에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업선택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5〉 사업시작의 동기 : 성별

(단위: %, 명)

	성 별		전체 자영업주
	남성	여성	
① 가족, 친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18.6(176)	18.7(68)	18.7(244)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28.7(271)	19.8(72)	26.2(343)
③ 직장상사 등 남의 간섭이 싫어	6.4(60)	3.0(11)	5.4(71)
④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워	11.7(110)	9.6(35)	11.1(145)
⑤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2.3(22)	11.3(41)	4.8(63)
⑥ 실직 후 생계 또는 정년퇴직 후 대비	18.0(170)	22.9(83)	19.4(253)
⑦ 기 타	14.3(135)	14.6(53)	14.4(188)
전 체	100.0(944)	100.0(363)	100.0(1307)

주: ()안은 해당되는 표본수이며,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1970년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비농림어업 부문의 자영업주를 분석 대상으로 연령과 시작 동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26>처럼 20~30대의 젊은 층에서는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나 ‘③ 남의 간섭이 싫어’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⑥ 실직 후 생계 또는 정년퇴직 대비’의 비중이 높다. 또한 50대의 18.3%와 60대 이상의 17.7%가 자유로운 근무시간이 자영업 시작의 이유라고 하여 근무시간과 같은 근무환경도 직업선택의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 비중이 높고, 반대로 실직 후의 생계 또는 정년퇴직을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한 비중이 낮다.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②의 이유로 자영업을 시작한 비중이 19.2%인데 비해 ⑥의 이유는 29.5%를 보인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②의 비중이 높아져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②의 이유가 42.0%에 달하고, ⑥은 20.3%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자일수록 자신의 소득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과정으로 자영업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학력자는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자영업에 참여하고 그 동기도 비자발적일 개연성이 높다.²⁴⁾

〈표 4-26〉 사업시작의 동기 : 연령대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단위 : %, 명)

		사업시작의 동기					
		① 사업을 물려받아	② 좋아하는 업종	③ 간섭이 싫어	④ 시간이 자유로워	⑤ 가정과 가까워	⑥ 실적 또는 정년 대비
연령	20대	6.9	41.4	10.3	6.9	3.5	6.9
	30대	7.6	34.3	8.9	11.9	3.8	13.6
	40대	6.1	31.9	5.4	10.1	4.7	25.4
	50대	5.2	26.6	7.0	18.3	4.8	26.2
	60대 이상	8.3	15.6	7.3	17.7	10.4	22.9
학력	초등졸 이하	5.8	19.2	8.3	7.7	10.3	29.5
	중졸	7.1	23.2	4.5	17.0	6.7	26.3
	고졸	5.2	32.9	7.3	15.2	4.3	18.4
	전문대졸	10.5	35.1	5.3	14.0	1.8	17.5
	대졸 이상	8.7	42.0	8.7	5.1	0.0	20.3
혼인	미혼	3.6	41.8	3.6	16.4	1.8	10.9
	기혼(유배우)	6.8	30.2	7.4	13.0	4.9	21.3
	이혼·사별·별거	4.9	19.8	3.7	11.1	8.6	38.3

주 : 1970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비농림어업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타'는 표에 기록하지 않았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가 ②의 이유로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이

24) 저학력자의 경우 업종별로 도소매 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한편, 고학력자는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이 취업한다. 특히 초등졸 이하의 자영업주 중 44.8%와 25.0%가 도소매 판매업과 음식·숙박업에 각각 종사하며, 중졸자도 그 비중이 31.0%와 19.2%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대졸 이상의 자영업주는 36.4%가 도소매 판매업에, 그리고 음식·숙박업에는 5.4%만이 취업하고 있다.

41.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④ 시간이 자유로워’의 16.4%이다. ⑥의 이유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0.9%로 유배우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유배우자도 ②의 사유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30.2%로 가장 높다. 특징적 사실의 하나는 이혼·사별·별거 상태인 자영업주의 38.3%가 ‘⑥ 실직 후 생계유지 또는 정년퇴직 후 대비’로 응답하여 이들의 상당수가 생계목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며, 저소득층으로 빈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이혼·사별·별거 상태인 자영업주의 월평균 소득이 132.8만원으로 미혼자나 유배우자에 비해 낮고, ⑥의 이유로 자영업을 시작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168.8만원으로 전체 자영업주 평균 소득 203만원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²⁵⁾

자영업의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는 사업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분석하기 위해 시작 동기와 사업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비교하면, [그림 4-14]와 같이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때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다.²⁶⁾

[그림 4-14]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자영업주 자신의 평가에서 ‘매우 성공적이다’를 5점, ‘성공적인 편이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고전하는 편이다’ 2점, ‘매우 고전하고 있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값을 각각의 사업 동기에 대하여 계산하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²⁷⁾ 그림에서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가 5점 척도 평균값 2.8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④ 시간이 자유로워’와 ‘⑦ 기타’의 2.73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⑤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가 2.33으로 사업을 고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주의 절반

25) 미혼 자영업주의 월평균 소득은 134.3만원, 유배우 자영업주는 210.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시작 동기에 따라서는 ①이 249.8만원, ②가 222만원, ③ 162만원, ④ 235만원, ⑤ 109.9만원, ⑦ 21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소득의 계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26) 5점 척도 평균값의 차이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27) 여기에서 평점이 3이면 성공과 고전이 절반 정도이며, 3보다 크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고전이라고 평가하는 자영업주보다 많다.

인 49.9%는 사업을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1/3 정도인 35.1%는 ‘고전하는 편이다(25.1%)’ 또는 ‘매우 고전하고 있다(10.0%)’라고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성공적이다’라는 응답은 0.3%에 불과하며, ‘성공적이다’도 14.3%에 지나지 않는다.²⁸⁾

(그림 4-14) 자영업의 시작 동기와 사업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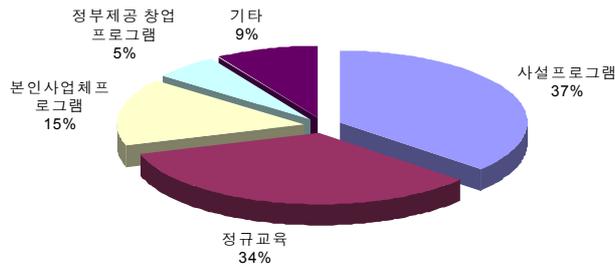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2. 창업 과정

창업훈련 이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6.5%(201명)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5 참조). 이수기관으로는 응답자의 37%가 학원이나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사설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어서 정규교육기관이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창업훈련을 받은 응답자는 5%에 그치고 있다.

(그림 4-15) 창업훈련 이수 여부

28) 자영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이처럼 비관적인 응답은 실제의 사업상황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표 4-27〉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매우 어려웠다	어려운 편이었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쉬운 편이었다	매우 쉬웠다	모름/무응답
자금의 확보	7.6	31.0	46.5	11.8	2.1	1.6
기술의 확보	0.9	11.2	64.2	19.4	2.9	1.3
적당한 인력의 확보	1.1	10.8	65.2	17.5	3.4	2.1
행정적인 절차	0.9	9.9	69.1	14.5	3.1	2.6
업종 선정	0.9	6.3	65.5	22.0	3.5	1.8
사업장 위치 선정	1.6	10.3	66.4	3.0	3.0	1.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표 4-27〉은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자금, 기술 및 인력의 확보, 행정절차, 업종 및 사업장 위치 선정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기술이나 인력 등 다른 항목들은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응답이 64~69%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금의 확보’ 면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라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반면, ‘매우 어려웠다’ 혹은 ‘어려운 편이었다’가 37.6%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된 고용주나 자영업자들은 창업을 할 경우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혹은 다른 외적 요인들보다는 ‘자

금확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사업체의 운영 현황

사업체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현재 사업운영에 겪는 어려움, 그리고 사업체의 중장기적 목표 등을 질문하였다.

<표 4-28>은 현재 자영업자가 사업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각 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현재 사업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의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정부 규제 등은 '그런 대로 괜찮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조사되었지만, 자금의 확보는 '매우 어렵다' 혹은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이 4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현재 사업의 어려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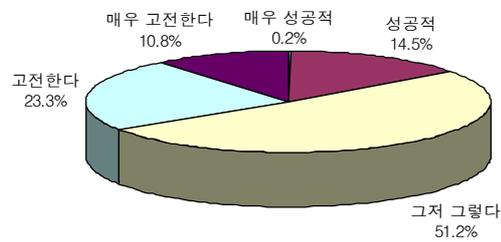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그런 대로 괜찮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모름/ 무응답
자금의 확보	6.8	34.4	48.6	7.7	1.3	1.3
기술의 확보	1.3	8.8	69.1	17.1	2.7	1.0
적당한 인력의 확보	1.5	13.3	64.9	15.5	3.5	1.4
정부의 규제나 법의 준수	1.4	10.6	72.7	11.5	2.4	1.4
신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	2.3	17.0	67.3	9.0	2.1	2.3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책정	3.1	7.0	64.7	8.7	1.7	1.9
마케팅 전략 개발	6.0	25.0	58.8	1.7	1.7	2.3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과의 절충	4.0	15.8	67.0	8.9	2.0	2.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다음으로 [그림 4-16]은 사업체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고전하는 편' 혹은 '매우 고전하는 편'이라는

응답(34.1%)이 ‘성공적인 편’(14.5%)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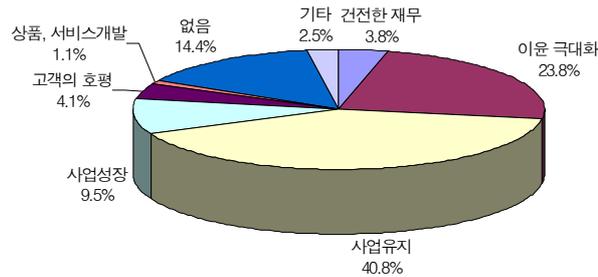
(그림 4-16)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한 [그림 4-17]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40.8% 정도가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없음(단기적인 사업유지가 급한 편)’이라는 응답도 1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윤 극대화’(23.8%)나 ‘사업 성장’(9.5%)과 같은 목표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객의 호평’이 4.1%, ‘건전한 재무상태의 확보’ 3.8%,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1.1%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7] 사업체의 중장기적 목표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4. 사업 시작시의 총 자본금과 조달방법

한국노동패널연구(KLIPS)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자영업주에게 사업체의 창립 연도와 함께 시작할 당시(또는 물려받을 당시)의 총 자본금²⁹⁾이 얼마인지 질문하였다. 창업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주가 응답한 자본금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본금에 그동안의 명목이자율을 반영, 2001년도 당시의 현재가치로 자본금을 환산한 값을 사용하여 사업의 시작 당시 총 자본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하였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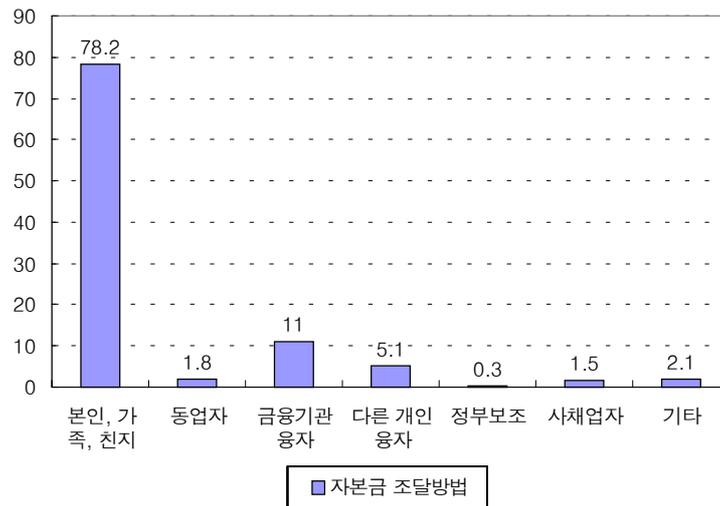
<표 4-29>에서 2001년 당시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창업시 총자본금의 현재가치는 평균 1억 2,8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자본금 중

29) 여기에서의 자본금은 일반 회사의 자본금과는 다른 의미로 여겨진다. 기업 회계상의 자본금이 아니라 사업을 창업할 당시에 소요된 총 비용의 개념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총 자본금에 운영자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대두된다.

30) 자본금의 가치계산에 사용한 명목이자율은 회사채 이자율로 1986년까지는 장내 회사채 이자율을 1987년부터는 장외 3년 만기 우량 회사채의 금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자율 데이터의 문제로 인해 1975년 이후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

78.2%는 본인이나 가족, 친지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1.8%는 동업자에 의해 조달되어 자기 자본율은 평균 80.0%로 나타났다. 나머지 20.0%의 자본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가 11.0%,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5.1%이다. 정부의 보조는 0.3%,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돈은 1.5%에 불과하다(그림 4-18 참조). 이러한 결과는 패널조사에 응답한 비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1~4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8) 창업자본금 조달방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성별로는 남성이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1억 4,624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여성은 8,612만원으로 남성의 58.9%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득도 낮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본금의 조달방법은 남·여의 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표 4-29〉 총 자본금과 조달방법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창업 연도별³¹⁾
(단위: 만원, %)

		총자본금 (만원)	자본조달방법						
			본인 가족 친지	동 업 자	다른 개인	은행 등 융자	정부 보조	사채 업자	기타
전 체		12,853	78.2	1.8	5.1	11.0	0.3	1.5	2.1
성	남 성	14,624	78.4	2.3	4.7	11.2	0.1	1.3	1.9
	여 성	8,612	77.9	0.6	5.9	10.5	0.6	2.1	2.5
연령	20대	2,903	90.9	0.0	3.9	5.2	0.0	0.0	0.0
	30대	6,916	74.7	2.5	4.0	13.3	0.0	1.4	4.1
	40대	13,164	75.1	1.5	6.3	13.2	0.6	1.7	1.6
	50대	19,507	83.6	2.1	5.3	7.0	0.0	1.4	0.5
	60대 이상	14,037	85.8	1.3	1.6	5.8	0.0	1.7	3.8
학력	초등졸 이하	5,586	87.3	0.4	4.3	4.5	0.8	1.6	1.2
	중졸	7,181	81.6	1.5	6.8	8.3	0.3	0.8	0.7
	고졸	9,838	76.2	1.8	5.2	11.9	0.0	2.1	2.8
	전문대졸	29,718	71.0	2.4	4.8	16.4	0.4	2.0	3.0
	대졸 이상	32,157	72.7	3.5	2.7	17.7	0.4	0.5	2.6
가구주 관계	가구주	14,594	78.4	2.0	4.9	10.8	0.3	1.4	2.2
	배우자	9,310	76.3	0.8	6.3	12.1	0.3	2.0	2.2
	자녀	5,216	80.8	4.2	2.8	10.8	0.0	1.4	0.0
	기타	5,422	92.7	0.0	2.7	4.5	0.0	0.0	0.0
혼인	미혼	3,772	82.3	3.2	2.0	10.3	0.0	0.0	2.1
	기혼(유배우)	14,034	77.6	1.7	5.1	11.7	0.2	1.7	2.1
	이혼/사별/별거	6,208	82.8	1.4	7.0	3.9	1.5	2.0	1.5
창업 연도	1975~79	67,569	89.2	3.8	6.9	0.0	0.0	0.0	0.0
	1980~84	42,929	86.0	1.5	4.3	5.4	0.0	0.4	2.4
	1985~89	18,888	83.1	0.5	7.3	7.0	0.0	2.1	0.0
	1990~94	9,230	77.2	1.5	5.7	11.1	0.0	2.5	2.0
	1995~99	5,964	75.8	1.7	5.0	12.9	0.3	1.4	2.9
	2000~2001	4,045	75.4	4.6	1.0	15.8	1.4	0.4	1.3

주: 1975년 이후 창업한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와 농림수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에 소요되는 자본이 크며, 자본 중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비중도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구

31) Out-lieer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총 자본금의 현재가치가 100억 이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와의 관계도 예상처럼 가구주의 창업자본이 1억 4,594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9,3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기혼자가 1억 4,034만원의 자본을 초기에 투입한 반면, 이혼·사별·별거의 경우에는 6,208만원을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본조달방법도 이혼·사별·별거의 경우 자기자본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보다 다른 개인이나 사채업자 등 개인적 경로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는 정책적으로 자영업의 창업지원이 저학력층과 이혼·사별·별거한 이들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는 50대까지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대에서는 평균 2,903만원이 소요된 반면, 30대는 6,916만원, 40대 1억 3,164만원, 50대 1억 9,507만원의 자본금이 투입되었다. 자본금의 조달에 있어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용자의 비중이 크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연령은 2001년 현재의 연령으로 창업시점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창업시점에서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그림 4-19]처럼 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20대 창업시 2억 914만원의 자본금이 소요되며, 30대 1억 3,391만원, 40대 8,143만원의 자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창업시의 총 자본금이 1억 526만원으로 40대 창업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표본수가 70명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³²⁾ 이처럼 창업시점의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투입된 총 자본금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창업시 투입된 자금이 많고 나이가 젊어서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장기간 사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영업의 성공 여부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40대와 50대 사이에 총 자본금의 차이가 있는가를 t-검정한 결과 10% 수준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40대와 50대 창업에 소요된 자본금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 연도와 자본금 사이의 관계에서도 <표 4-29>와 같이 창업 연도가 오를수록 투입된 자본금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기 자본금이 많은 기업이 생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위의 분석결과와 일관된다.³³⁾

(그림 4-19) 자영업 시작의 연령과 총 자본금

(단위: 만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창업시 총 자본금의 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4-30>과 같이 광공업이 가장 많아 1억 6,19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소매 판매업이 1억 4,673만원,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이 1억 646만원이다. 이에 대하여 건설업이나 운수·창고 및 통신업, 교육서비스, 기타 공공 및 개인서

33) 창업 연도가 옛날일수록 현재가치로 환산한 자본금의 규모가 큰 다른 이유로 자본금의 규모를 과거의 회상에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상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과거에 투입한 자금의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사용한 이자율이 실질적인 자금의 명목수익률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용한 이자율은 회사채 수익률로 개인이 자금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에 고정비용(fixed cost)만이 반영되어 있고 가변비용(variable cost)이 제외되었으며, 현재에 가까울수록 고정비용 대비 가변비용의 비중이 크다면 사업에 투입된 총 자금과 총 자본금과의 격차는 현재에 가까울수록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창업 연도에 따른 총 자본금의 변화는 실제보다 과대평가가 되었을 위험성이 있다.

비스업의 창업자금은 평균적으로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조달방법은 ‘본인, 가족, 친지’가 전반적으로 70%대를 점유하고 있지만 도소매 판매업의 경우는 그 비중이 83.7%로 높은 편이다.

〈표 4-30〉 총 자본금과 조달방법 : 산업 및 직업별

(단위: %, 명)

	총자본 금 (만원)	자본조달방법							
		본인 가족 친지	동 업 자	다른 개인	은행 등 융자	정부 보조	사채 업자	기타	
산 업	광업, 제조업	16,190	76.9	2.5	6.4	9.2	0.0	2.1	2.9
	전기·가스 및 수도	-	-	-	-	-	-	-	-
	건설업	9,117	75.9	6.2	6.8	9.4	0.0	1.7	0.0
	도소매	14,673	83.7	1.6	2.9	9.5	0.1	0.4	1.8
	음식·숙박업	10,604	74.2	1.2	7.2	12.5	0.8	4.1	0.0
	운수·창고 및 통신	8,809	78.0	0.0	4.4	14.5	0.0	1.2	1.9
	금융 및 보험	-	-	-	-	-	-	-	-
	부동산 임대	10,646	75.8	5.3	7.1	10.5	1.3	0.0	0.0
	공공행정, 국방	-	-	-	-	-	-	-	-
	교육서비스	8,866	75.3	0.0	11.6	7.9	0.0	0.0	5.3
	보건 및 사회복지	-	-	-	-	-	-	-	-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	8,949	73.3	0.0	5.2	15.5	0.6	2.4	3.0
	가사서비스	-	-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직 업	고위임직원, 관리자	37,502	69.3	4.2	3.1	13.5	0.0	4.4	5.6
	전문가	22,517	81.3	0.0	5.0	13.8	0.0	0.0	0.0
	준전문가	21,071	72.5	6.4	2.7	9.5	0.7	0.0	8.2
	사무직원	45,079	74.1	2.3	0.9	15.5	4.5	0.9	1.8
	서비스 및 판매	9,957	79.5	0.9	4.8	12.1	0.3	1.6	0.7
	기능원	12,519	80.7	3.3	4.6	8.1	0.0	0.8	2.4
	조직원 및 조립원	9,507	74.9	0.3	8.4	12.9	0.0	2.1	1.3
	단순노무직	3,724	81.0	0.0	3.5	6.8	0.0	2.5	6.3

주: 1975년 이후 창업한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표본수가 10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았음. 또한 농림수산업과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의 경우 평균 4억 5,079억원으로 창업자금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그 다음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3억 7,502억원으로 나타났다.³⁴⁾ 전문가 및 준전문가도 창업시 2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이나 조직원 및 조립원, 그리고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1억 미만의 자본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다.

5.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가. 고용형태와 일자리 만족도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1998년, 2000년 및 2001년의 3개년에 걸쳐 질문하였다. 매년마다 질문의 내용은 약간씩 변화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자영업주,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넷으로 구분하여 고용형태별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1>에 나타나 있다. <표 4-31>의 값들은 ‘매우 만족’을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값이다.

<표 4-31>이 보여주는 핵심적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t-검정의 결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귀무가설이 유의하였다.³⁵⁾ 특히 자영업주의 가장 강점이라고 알려져 온 ‘취업의 안정성’에서도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34) 사무직과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그 성격상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자영업이 아니라 법인형태의 고용주로 그 규모가 크며, 그에 따라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의 분석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35) ‘개인의 발전 가능성’ 항목도 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귀무가설이 유의하다.

3.158점을 기록한 반면, 자영업주는 2.936으로 0.222점이나 낮다.³⁶⁾ 이러한 결과는 앞의 제3장에서 OECD국가의 경우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다는 사실과 대비된다.³⁷⁾

〈표 4-31〉 고용형태와 일자리 만족도 : 2001년

(단위: 점)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① 임금 또는 소득	2.714 (0.776)	2.409 (0.778)	2.410 (0.857)	2.296 (0.815)	2.572 (0.814)
② 취업의 안정성	3.158 (0.733)	2.486 (0.788)	2.936 (0.800)	2.836 (0.774)	2.984 (0.797)
③ 일의 내용	3.259 (0.699)	2.912 (0.772)	3.196 (0.719)	2.958 (0.657)	3.174 (0.725)
④ 근로환경	3.102 (0.719)	2.807 (0.683)	3.006 (0.677)	2.871 (0.632)	3.021 (0.708)
⑤ 근로시간	2.969 (0.793)	2.820 (0.737)	2.799 (0.757)	2.690 (0.756)	2.890 (0.779)
⑥ 개인의 발전가능성	2.988 (0.717)	2.614 (0.770)	2.979 (0.709)	2.780 (0.669)	2.917 (0.734)
⑦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331 (0.638)	3.076 (0.722)	3.264 (0.660)	3.167 (0.555)	3.266 (0.555)
전반적 만족도	3.091 (0.624)	2.748 (0.685)	2.948 (0.720)	2.762 (0.670)	2.986 (0.673)

주: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36) 이러한 결과가 경쟁이 심하여 실제로 자영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영업주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사이에 태도 또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주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낮은 값을 기록한 점 등은 응답자의 태도 차이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37) 설문내용이 달라 OECD국가의 자영업 만족도와 우리나라의 자영업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 만족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정규+비정규)의 만족도는 3.0157로 자영업주의 2.9481보다 높다. 이러한 격차는 t-검정의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둘째, 만족도의 분산은 자영업주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높은 편이다.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및 ‘전반적 만족도’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이러한 차이는 뚜렷한데, 이는 자영업들 사이의 내부적 격차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자영업주에 비해 높은 것은 2001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1998년도의 제1차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4-32>에서는 1998년도의 제1차 조사와 2001년의 제4차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³⁸⁾

<표 4-32> 일자리 만족도의 변화: 1998, 2001년

(단위: 점)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① 임금 또는 소득					
1998년	2.650	2.294	2.091	2.070	2.412
2001년	2.714	2.409	2.410	2.296	2.572
② 취업의 안정성					
1998년	3.174	2.287	2.647	2.593	2.861
2001년	3.158	2.486	2.936	2.836	2.984
③ 일의 내용					
1998년	3.347	2.930	3.099	2.901	3.189
2001년	3.259	2.912	3.196	2.958	3.174
④ 근로환경					
1998년	3.111	2.751	2.814	2.793	2.957
2001년	3.102	2.807	3.006	2.871	3.021
⑤ 개인의 발전가능성					
1998년	3.005	2.534	2.825	2.624	2.862
2001년	2.988	2.614	2.979	2.780	2.91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38) 1998년도에는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와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는 질문하지 않았다.

<표 4-32>에서도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임금 또는 소득’ 등 모든 항목에 걸쳐 자영업주의 만족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확대 유추한다면, 1990년대 이후 고학력·고기술을 지닌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회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자영업주들은 적어도 만족도의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2>이 제시하는 또 다른 사실은 자영업주의 경우 1998~2001년 사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임금 또는 소득’과 ‘취업의 안정성’에서 이러한 사실이 두드러지는데 ‘임금 또는 소득’은 1998년의 2.091에서 2001년 2.410으로 0.319나 증가하였고, ‘취업의 안정성’도 동 기간 0.289 증가하였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별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임금 또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1998년의 2.650에서 2001년 2.714로 약간 증가한 것 이외에 다른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는 도리어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단지 두 가지의 원인이 유추되는데, 첫째로 1998년의 외환위기로 자영업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만족도도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상시화됨에 따라 자영업주들의 사회적·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자영업의 경영상태나 수익과는 상관없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나. 자영업주의 특성과 일자리 만족도

다음 단계로 분석의 범위를 자영업주로 좁혀 일자리 만족도가 자영업주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33>에서 먼저 성별로는 남녀간의 어떤 뚜렷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졌다가 40·50대를 기점으로 다시 높아지는 U자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항목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

상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앞의 논의들과 일관되게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경우도 모든 세부 항목에 걸쳐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33〉 일자리 만족도와 자영업주의 특성 : 2001년

(단위 : 점)

		전반적 만족도	세부적 만족도						
			소득	취업 안정성	업무 내용	근무 환경	근로 시간	성장 가능성	인간 관계
성	남 성	2.95	2.41	2.93	3.20	3.00	2.83	2.99	3.25
	여 성	2.94	2.41	2.96	3.18	3.03	2.73	2.96	3.29
연령	20대	3.25	2.75	3.17	3.55	3.36	3.08	3.38	3.51
	30대	3.05	2.58	3.04	3.28	3.07	2.80	3.10	3.39
	40대	2.90	2.33	2.88	3.15	2.96	2.74	2.96	3.22
	50대	2.87	2.30	2.88	3.10	2.93	2.83	2.89	3.19
	60대 이상	2.91	2.37	2.91	3.21	3.04	2.88	2.77	3.15
학력	초등졸 이하	2.82	2.18	2.80	3.05	2.86	2.71	2.73	3.08
	중졸	2.74	2.26	2.78	3.06	2.87	2.66	2.85	3.16
	고졸	2.97	2.44	2.96	3.23	3.01	2.81	2.99	3.31
	전문대졸	3.07	2.50	2.96	3.32	3.09	2.92	3.08	3.38
	대졸 이상	3.26	2.72	3.21	3.39	3.29	3.01	3.33	3.43
가구주 관계	가구주	2.96	2.41	2.94	3.20	2.99	2.83	2.97	3.26
	배우자	2.92	2.40	2.94	3.17	3.06	2.70	2.97	3.28
	자녀 및 기타	2.92	2.40	2.90	3.22	3.02	2.84	3.07	3.29
혼인	미혼	2.96	2.41	2.87	3.27	3.04	2.94	3.10	3.29
	기혼(유배우)	2.95	2.43	2.95	3.20	3.03	2.80	3.00	3.28
	이혼/사별/별거	2.93	2.20	2.80	3.09	2.75	2.72	2.68	3.13
창업 연도	1975~79	3.06	2.56	3.04	3.33	3.11	2.84	2.91	3.33
	1980~84	3.04	2.43	3.00	3.32	3.08	2.84	3.01	3.20
	1985~89	2.86	2.28	2.87	3.19	2.95	2.84	2.96	3.25
	1990~94	2.91	2.36	2.91	3.14	2.92	2.75	2.90	3.22
	1995~99	2.89	2.37	2.91	3.18	3.00	2.76	2.95	3.23
2000~2001	2.95	2.33	2.93	3.06	2.97	2.77	3.00	3.37	

주: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가구주와의 관계 및 혼인상태는 자영업주의 만족도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창업 연도에 따라서는 창업 연

도가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다. 이는 일견 당연한 내용으로 옛날에 창업하였다는 것은 사업에 성공하였거나 적어도 현상유지는 된다는 것으로 자영업주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표 4-34> 일자리 만족도와 자영업주의 산업 및 직업 : 2001년

(단위: 점)

	전반적 만족도	세부적 만족도							
		소득	취업 안정성	업무 내용	근무 환경	근로 시간	성장 가능성	인간 관계	
산 업	광업, 제조업	2.97	2.41	2.96	3.30	3.10	2.98	3.10	3.37
	전기·가스 및 수도	-	-	-	-	-	-	-	-
	건설업	2.95	2.38	2.72	3.23	2.85	2.96	3.10	3.34
	도소매	2.87	2.37	2.91	3.16	2.98	2.73	2.89	3.19
	음식·숙박업	2.80	2.28	2.79	2.94	2.86	2.51	2.77	3.16
	운수·창고 및 통신	2.96	2.49	3.02	3.05	2.75	2.63	2.87	3.07
	금융 및 보험	-	-	-	-	-	-	-	-
	부동산 임대	3.20	2.62	3.15	3.35	3.28	3.13	3.17	3.42
	공공행정, 국방	-	-	-	-	-	-	-	-
	교육서비스	3.45	2.73	3.33	3.67	3.55	3.27	3.64	3.55
	보건 및 사회복지	-	-	0	-	-	-	-	-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	3.07	2.41	3.02	3.41	3.15	2.79	3.03	3.35
	가사서비스	-	-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직 업	고위임직원, 관리자	3.20	2.57	3.22	3.37	3.13	3.00	3.35	3.43
	전문가	3.38	2.77	3.21	3.70	3.55	3.11	3.47	3.55
	준전문가	3.23	2.58	3.09	3.49	3.29	3.34	3.38	3.45
	사무직원	-	-	-	-	-	-	-	-
	서비스 및 판매	2.86	2.34	2.89	3.09	2.94	2.62	2.86	3.12
	기능원	2.91	2.37	2.89	3.26	2.98	2.86	3.05	3.34
	조직원 및 조립원	2.98	2.46	2.97	3.21	2.91	2.80	2.88	3.21
	단순노무직	2.89	2.39	2.79	3.10	2.90	3.00	2.90	3.11

주: 농림수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 산업 및 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숫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만족도를 빈칸으로 두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표 4-34>는 자영업주의 산업 및 직업별로 일자리의 만족도를 계산

한 결과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다른 업종에 비해 도소매 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전반적 만족도와 소득에 대한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은 도소매 판매업과 음식·숙박업에 경쟁이 심하고, 그 결과 진입과 진출이 빈번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다.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의 계량분석

자영업주의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변량 로짓분석을 시도한다. 2001년도의 패널조사에서는 만족도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개 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사례수가 적고, 자영업주의 숫자도 1,500명 정도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우 만족'과 '만족'을 통합하여 3의 값을 주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1의 값을 그리고 '보통'에는 2의 값을 주어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기간,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자영업의 시작년도, 도소매 판매 및 음식·숙박업 여부, 관리자 및 (준)전문가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4-35>에 나타나 있으며, 전반적으로 앞의 기초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이 표에서 자영업주의 성,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등은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 및 연령의 제곱은 '불만족'과는 상관이 없으나 '만족'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보통'에 비해 '만족'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지만 연령이 낮다고 해서 '보통'에 비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자영업주의 교육기간과 자영업의 시작년도로 나타났다. 기초분석의 결과와 같이 교육기간이 길어 학력이 높을수록, 시작년도가 옛날일수록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만족'과 '보통'의 비교, 그리고 '보통'과 '만족'과의 비교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도소매 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만족’이라는 응답보다는 ‘보통’이라는 응답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업별로는 관리자 및 (준)전문가 계층에서 ‘보통’보다는 ‘만족’이라는 응답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5〉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다변량 로짓(logit) 추정결과

설명변수	1 (불만족)		3 (만족)	
	추정계수	P> z	추정계수	P> z
상수항	-65.0539	0.005	62.9249	0.004
성별(0: 여성 1: 남성)	0.1210	0.743	0.1438	0.733
연령	0.0555	0.436	-0.2479	0.000
연령의 제곱	-0.0005	0.478	0.0023	0.001
교육기간(년)	-0.0609	0.029	0.1193	0.000
가구주와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2352	0.556	0.4554	0.323
자녀 또는 기타	0.2964	0.495	-0.7711	0.131
혼인상태(미혼 기준)				
기혼 유배우자	0.4459	0.409	-0.2637	0.661
이혼/별거/사별	0.0593	0.869	-0.3878	0.345
자영업의 시작년도	0.0317	0.006	-0.0296	0.007
도소매 판매, 음식·숙박업 여부(1: yes)	0.1527	0.347	-0.4064	0.029
관리자 및 (준)전문가 여부(1: yes)	-0.3867	0.162	-0.4707	0.042
관찰치	1,018			
Pseudo R-square	0.0527			
Log likelihood	-945.08			

주: 농림수산업 및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추정결과는 보통(=2)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제 6 절 소 결

이 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

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1988년 이후 200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통해 기초분석을 하였고, 제2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1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이 특징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2001년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자영업주가 28.9%, 무급가족종사자가 8.7%로 37.6%에 달하며, 이는 일본의 15.9%, 독일 11.0%, 영국 12.2% 및 미국의 7.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값이다. 이는 분석의 범위를 비농림 부문으로 제한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2.0%에 달한다.

둘째, 분석대상을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비농전산업으로 제한하였을 경우, 1990대에 걸쳐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주의 비중 증가가 명확하다.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3년의 23.1%에서 2001년 25.3%로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이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를 이끈 핵심적 요인이다.

취업자의 절대수도 비농부문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자영업주의 수는 1993~2001년 사이 3,808천명에서 4,370천명으로 증가하여 다른 많은 OECD국가들과 같이 전체 고용증가율보다 자영업주의 고용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성별로 1990대에 나타나는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현상은 자영업주, 특히 남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2~2001년 사이 여성 자영업주의 비중은 안정적인 것에 비해 남성은 동 기간 26.0%에서 30.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OECD국가들에서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주 숫자의 증가는 주로 40대 계층에서의 증가에 기인한 점이 크며,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창업을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섯째, 근로자의 취업형태에 있어 40대는 일종의 전환기로 40대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20대에 10%대 미만이던 자영업주의 비중은 30대에 20%대로 높아지고, 다시 40대에는 30%대로, 50대에서는 40% 가까운 비중으로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주의 평균연령이 47.5세인 반면,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6.8세로 10세 이상의 격차가 있다.

여섯째, 자영업주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다. 자영업주 중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는 17.5%에 불과하나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그 비중이 38.2%에 달한다. 그러나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분포와 추이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숫자와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고졸 이상 학력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반적인 취업자의 고학력화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저학력 취업자의 노동시장 퇴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고학력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의 선택이 자신의 소득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일곱째,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가구주 본인이다. 자영업주 중 가구주는 전기간에 걸쳐 8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14%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거꾸로 대부분이 가구주의 배우자로 그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 이처럼 가구주의 비중이 낮은 현상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표면적으로는 가구주를 자영업의 대표로 내세우는 남성 중심의 문화와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여덟째, 가구주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90년대에 걸쳐 약간씩 하락한 한편 배우자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특히 주부의 경제활동 증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또한 과거의 부부 공동운영 방식의 자영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홉째,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숫자는 1993년의 3,264천명에서 2001년에는 4,280천명으로 31.1%가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내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주가 집중되어 있어 2001년의 경우 전체 자영업주의 37.5%인 2,313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비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산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여성 자영업주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다양한 업종에 참여하고 있다.

열째, 자영업주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숫자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숫자는 2001년 현재 2,358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주의 38.2%를 점유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3년의 6.3%에서 2001년에는 11.9%로 크게 높아졌다. 1990년대 자영업 시장을 직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영(준)전문가 집단의 성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근로자화가 1990년대에 관찰된다.

자영업주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들은 월평균 27.3일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본의 89.7% 이상이 월 25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은 2001년 55.7시간으로 1998년의 59.8시간에 비해 2.1시간 줄어들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로시간이 30분 정도 긴데 이는 여성 비임금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장시간 근로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제4절에서는 자영업주의 근로소득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2001년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연평균 매출액은 1억 617만원이며, 월평균 소득은 177.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9년의 128.5만원에 비해 1.4배 증가한 값으로 자영업자보다는 고용주의 소득상승에 주로 기인한다.

제5절에서는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영업의 시작 동기를 질문한 결과 20~30대의 젊은 층에서는 ‘좋아하는 업종이어서’나 ‘남의 간섭이 싫어’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실직 후 생계 또는 정년퇴직 대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는 사업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때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다.

창업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자영업주들은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혹은 다른 외적 요인들보다는 '자금확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의 사업 운영에도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창업에 소요된 총 자본금의 현재가치는 평균 1억 2,85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 자본율은 평균 80.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1억 4,624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여성은 남성의 58.9%에 불과하여 여성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득도 낮을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창업시 투입된 자금이 많고 나이가 젊어서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장기간 사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영업의 성공 여부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낮다. 이는 OECD국가에서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과 대비된다. 만족도의 분산은 자영업주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높은 편으로, 이는 자영업들 사이의 내부적 격차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의 핵심적 결과는 소득 등 근로자간 경제적 격차가 임금 부문보다 자영업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며, 또한 1990대에 걸쳐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자영업이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은 임금근로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 영세민이 되거나 아니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제기한다.

제5장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제1절 문제의 제기

이 장에서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영업 선택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검토된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즉 자영업 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기업 운영과 관련된 문화나 경험을 나타내는 기업가적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 자영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제약(금융제약, capital constraint) 등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는 노동시장이나 경기변동의 여건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분석할 것이다.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자영업은 실업의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제활동인지 아니면 기업가적인 특성을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자영업의 선택 요인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시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의 4개년도

조사자료이다.

제2절 자영업 선택의 요인과 분석 방법론

1. 자영업 선택의 가설과 변수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들과 경기변동과 같은 거시적 변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헨리(Henley, 1999)에 따르면,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요인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 기업가적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또한 거시적 변수는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의 조건 등을 반영하는 (지역)실업률 등의 변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의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요인들을 검토해 보자. 첫째, 자영업을 사업(business)의 가장 최소 단위로 간주한다면, 자영업의 선택에는 당연히 ‘기업가적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가적 자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문화에 노출된 정도 또는 사업을 함에 따라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태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적 자본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는 주로 부모가 자영업을 하였는가와 같은 부모의 배경에 관한 변수로 파악되거나,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관한 설문 등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Taylor(1996)는 부모가 자영업주일 경우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8)의 경우도 부모가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위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미약한 상관관계만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우영(2001)은 부모가 자영업주인지 여부가 자

영업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영업 선택에서 자본제약(capital constraint)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창업 자금이나 운영자금은 주로 개인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이나 금융자산 또는 상속자산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은 상업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자산의 가치가 중요하다. Evans and Javanovic(1989)은 미국에서 유동성 자산(liquid assets)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Cowling and Mitchell(1997) 등도 영국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시장과 자영업 진입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김우영(2000)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서의 자본제약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주로 자본제약과 관련한 적절한 변수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교육수준과 자영업 지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Cressy(1996)는 자영업 선택과 금융자산의 관계가 실은 자영업 선택과 인적자본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은 인적자본에 의해 축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물론 교육비용이 사적으로 충당되는 현실에서, 그 역도 성립함). Cressy는 경험이나 교육 등 인적자본변수가 들어갈 경우 금융 관련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영업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역시 가격변수일 것이다. 즉 임금근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대비 자영업을 선택했을 때의 소득의 비율이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많은 연구들이 소득비율(임금근로 대비 자영업 소득의 비율)과 자영업 확률간의 양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es and Shah, 1986; Taylor, 1996 등). 물론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서로 다른 인구

학적인 구성과 개인적인 특성들이 소득차이의 추정치를 편의(bias)시킬 수는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선택편의를 수정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장기적인 행동패턴을 결정하는 미시적 요인들 이외에 경기적 요인에 의해 자영업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 우선 노동시장 조건이 임금근로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확률에 영향을 미쳐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은 자영업주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근로에 따른 수익(임금)도 증가시킴으로써 자영업 선택에 서로 상반된 효과를 줄 수 있다. 경기변동 또는 노동시장조건이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에는 ‘밀어내기 가설’(unemployment push hypothesis)과 ‘끌어들이기 가설’(prosperity hypothesis)이 있다.

우선 ‘밀어내기 가설’에 따르면, 자영업은 대개 기회주의적인 선택이며, 자영업주들은 임금근로자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시기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적절한 임금근로의 기회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밀려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연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대단히 많다. 높은 실업률은 임금근로 일자리 기회를 줄이고 이는 미취업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Taylor, 1996). Dennis(1996)도 자영업은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자영업이 실업에 대한 대안(중간적인 위치의 대안)이라면, 자영업 선택은 불황기에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OECD국가들을 비교분석한 Acs, Audretsch and Evans(1994)의 경우에도 자영업 비율이 실업률과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동일시점 비교나 5년 시차를 둔 변수로 비교한 경우)나 분석하고 있다. 스페인과 미국에서 자영업 진입요인을 분석한 Alba-Ramirez(1994)의 경우에도 실업 지속기간의 증가가 자영업 진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vans and Leighton(1989) 역시 실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

가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이 가설에 따르면, 자영업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증가하며, 자영업은 반경기적(counter-cyclical) 근로자의 선택이다.

반면에 ‘끌어들이기 가설’(prosperity hypothesis)은 경기가 좋을 때 자영업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실업률이 낮을 때 임금근로 일자리는 증가한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자영업을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고, 자영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임금근로자로 쉽게 재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자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끌어들이기 가설’에 의하면 기업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고,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위험감수형의 사업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가정한다. 자영업은 기업가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간주되며, 자영업 비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높은 실업률은 자영업으로의 진입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높고 거시경제적 조건이 좋지 않다면 사업의 실패 확률이 높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일 때 자영업의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8)는 지역실업률은 자영업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Taylor(1996)도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 임금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이라는 안전망(safety net)이 있을 경우 자영업은 더 매력적인 것이 되며, 따라서 자영업은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보았다. Blau(1987)도 자영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기술, 산업구조, 조세, 은퇴 후 사회적 안전망 등 비경기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험적으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간의 관계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Parker(1996)는 실업률과 자영업 비율 사이에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높은 실업률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의 대안적인 기회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높은 실업률은 자영업에 따른 소득을 줄일 가능성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업률과 자영업 비율과의 관계는 두 효과 중에서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

래에서는 이러한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가설들을 미시적인 가구조사 자료와 거시적인 고용통계를 가지고 검토하고자 한다.

2. 자영업 선택의 모형

여기에서 자영업 선택에 관한 분석은 자영업의 선택과 자영업의 소득이 동시에 결정되는 전형적인 접근법을 취하고자 한다. 자영업 선택에 관한 전통적인 선택 모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축약형 프로빗 모형(reduced probit model)을 추정한다. 2단계에는 자영업과 임금근로자의 소득함수를 추정한다. 2단계의 소득함수 추정에서 임금근로와 자영업 선택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구해진 선택에 관한 편의항을 2단계 소득함수 추정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편의 교정을 통해 자영업과 임금근로 두 그룹이 각자의 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기준의 비교우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얻어진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의 차이를 자영업 선택의 구조모형 추정에 포함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선택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영업·비경제활동인구 등 세 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impson and Sproule(1998)과 같이 1단계에서 개인의 선택이 두 단계를 걸쳐 이루어지는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개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 다시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 개인은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여가에 대한 보상(즉 의증임금)보다 크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여기서 개인의 의증임금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과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의증임금이 노동에 대한 보수보다 작다면 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일단 경제활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노동에 대한 보상이 가장 높은 고용형태를 선택하게 된다. 임금근로에 대한 한계보상보다 자영업의 한계보상이 클 경우 개인은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경제적 선택이 한계적이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은 이항선택모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자영업인 지 아니면 임금근로인지를 선택하는 두번째의 의사결정이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첫번째의 의사결정과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여가의 비근로보다 근로를 통해 더 높은 효용(또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임금과 자영업 소득간의 상대적 비교우위에 기초해서 임금근로와 자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임의로 분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확률의 방정식은 자영업의 확률을 결정하는 두번째 방정식에 사용된다. 이를 Simpson and Sproule(1998)의 모델에 기초해서 검토해 보자.

개인 i 는 자신의 기대효용함수(expected utility function)에 기초해서 두 가지의 경제활동에 대한 옵션($j=1, 2$) 가운데서 아래의 식 (1)과 같은 방정식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I_i^* 는 각 선택에 따른 기대수익의 차이 $E[Y_{1i}] - E[Y_{2i}]$ 와 개인 및 사회적 특성 X_i 에 의존하는 잠재적인 선택결정변수(decision variable)이다.

$$I_i = 1(j=1) \text{ if } I_i^* = \gamma + \alpha(E[Y_{1i}] - E[Y_{2i}]) + \delta X_i + \nu_i > 0 \text{ ----- (1)}$$

$$= 0(j=2) \text{ if } I_i^* \leq 0$$

여기서 선택한 각각의 경제활동에서 예상되는 기대수익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Z_{ji} 는 예상기대소득을 결정하는 j 상태에서 개인 i 에 대한 특성 벡터이고 ϵ_{ji} 는 평균이 0, 분산 σ_j^2 의 정규분포를 하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Y_j = E[Y_{ji}] + \epsilon_{ji} = \beta_j' Z_{ji} + \epsilon_{ji}, \quad j = 1, 2 \text{ ----- (2)}$$

식 (2)에서 기대수익이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 i 는 식 (1)의 잠재선택 결정변수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의 참가와 비참가를 결정하고, 참가를 결정한다면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의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 식 (2)에 따

라 임금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자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그리고 비임금근로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shadows earnings)을 아래의 식 (3)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식 (3)에서 W 는 임금근로를, S 는 자영업, 그리고 N 은 미취업을 의미한다. Y_{ji} 는 모든 소득의 자연대수값이고, Z_i^j 는 각각의 경우의 소득결정요인들이다. 오차항들은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begin{cases} Y_{Wi} = Z_i^W \beta^W + \xi_i^W \\ Y_{Si} = Z_i^S \beta^S + \xi_i^S \\ Y_{Ni} = Z_i^N \beta^N + \xi_i^N \end{cases} \quad (3)$$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참가와 비참가 선택,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선택을 규정하는 방정식은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P_i^* 와 S_i^* 는 각각 경제활동참가와 비참가의 선택, 자영업과 임금근로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관찰되지 않는 latent변수이다. 여기에서, Y_i 는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P_i^* > 0$), 자영업을 하거나 ($S_i^* > 0$) 임금근로를 할 때 ($S_i^* \leq 0$)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의 자연대수 값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P_i^* &= \gamma_P + \alpha_P \{ \max [E(Y_{Wi}), E(Y_{Si})] - E(Y_{Ni}) \} + \delta_P X_i^P + \zeta_i^P \\ &= V_i^P \pi_P + \zeta_i^P \\ S_i^* &= \gamma_S + \alpha_S \{ [E(Y_{Si}) - E(Y_{Wi})] \} + \delta_S X_i^S + \zeta_i^S \\ &= V_i^S \pi_S + \zeta_i^S \end{aligned} \quad (4)$$

$$Y_i = \begin{cases} Y_{Si} & \text{if } P_i^* > 0 \text{ and } S_i^* > 0 \\ Y_{Wi} & \text{if } P_i^* > 0 \text{ and } S_i^* \leq 0 \end{cases} \quad (5)$$

따라서 자영업 선택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단계로 식 (4)에서 축약형 프로빗 추정방법모형(reduced probit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고,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방법에 따라 이들 추정치에서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에 대한 inverse Mills ratio terms(λ_P 와 λ_S)를 계산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자영업과 임금근로에 대한 소득방정식(식 (3)의 Y_{Si} 와 Y_{Wi})을 추정한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과 관련되어 임의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표본선택을 교정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얻어진 inverse Mills ratio들을 포함하여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의 추정방정식은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계수들은 λ_P 와 λ_S 의 계산에 사용된 식 (4)의 계수들이다.

$$\begin{aligned}
 Y_{Si} &= Z_i^S \beta^S + \lambda_{P_i}(P_i^* > 0) + \lambda_{S_i}(S_i^* > 0) + \zeta_i^S \\
 Y_{Wi} &= Z_i^W \beta^W + \lambda_{P_i}(P_i^* > 0) + \lambda_{S_i}(S_i^* \leq 0) + \zeta_i^W, \\
 \text{where } \lambda_{P_i}(P_i^* > 0) &= \frac{\phi(V_i^P \pi_P / \sigma_P)}{\Phi(V_i^P \pi_P / \sigma_P)}, \\
 \lambda_{S_i}(S_i^* > 0) &= \frac{\phi(V_i^S \pi_S / \sigma_S)}{\Phi(V_i^S \pi_S / \sigma_S)}, \quad \text{..... (6)} \\
 \text{and } \lambda_{S_i}(S_i^* \leq 0) &= \frac{-\phi(V_i^S \pi_S / \sigma_S)}{1 - \Phi(V_i^S \pi_S / \sigma_S)}
 \end{aligned}$$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에서는 소득방정식 추정으로 얻은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기대수익의 차이($\Delta Earn$)를 변수로 포함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구조모형을 마지막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구조 모형을 통해서 자영업 선택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앞의 모델에서 검토한 대로 경제활동 선택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의 구조가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즉 임금근로와 자영업을 선택할 때의 개인의 소득기회의 차이가 임금근로와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임금근로보다 자영업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소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자영

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a_s > 0$)은 아주 당연하다.

한편 우리는 앞에서 검토한 자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한다. 즉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자본’ 변수들이 자영업 선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미시적인 요인들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자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즉 자영업 선택이 지역의 실업조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에 발생하는 표본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제3절 사용된 자료의 기초분석

이 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연구(KLIPS)의 제1~4차년도(1998~2001년) 자료이다.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으로 농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자영업과 임금근로자의 선택을 분석할 경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3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배제하였다.

먼저 지난 1주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개인들을 임금노동자, 자영업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분석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의 분류 기준에 따라 표본을 구성했지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사이의 선택을 분석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거나 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용·임시·일용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근로자들을 세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들을 세분해서 분석하는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는 <표 5-1>과 같다.

〈표 5-1〉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

변수	변수명	남 성			여 성		
		전체	임금	자영 업	전체	임금	자영 업
mar	기혼 여부	81.6	76.8	93.6	69.1	62.6	94.8
head	가구주 여부	82.3	78.1	92.7	14.1	12.6	20.2
hnum	가족수(명)	3.9	3.9	4.1	4.0	4.0	3.9
child_1	만 6세 미만 유아	33.2	33.7	31.8	17.2	17.3	17.2
spouse1	배우자가 임금근로	18.0	20.5	11.6	31.0	31.4	29.6
spouse2	배우자가 자영업주	6.0	5.3	7.8	11.7	9.4	21.0
spouse3	배우자가 가족종사자	8.6	0.5	29.1	1.8	0.1	8.3
age	연령(년)	39.6	38.2	43.1	36.6	34.9	43.5
e3	고졸	44.8	43.0	49.2	39.2	40.4	34.2
e4	전문대졸	11.4	12.6	8.6	12.2	14.0	5.5
e5	대졸	19.8	21.1	16.5	13.1	14.7	7.1
e6	대학원졸	3.1	3.8	1.3	0.9	1.0	0.5
edy	교육년수	12.4	12.6	11.9	11.2	11.5	9.9
sch	재학 여부	2.0	2.5	0.7	2.4	2.9	0.5
dur	현 직장 지속기간(년)	6.3	6.5	6.1	3.8	3.5	5.1
exp	경력(년)	21.2	19.6	25.2	19.5	17.4	27.7
house3	1억 이상 부동산 자산소유 여부	1.2	0.9	1.7	0.9	0.9	0.9
lcc	부동산소득 200만원 이상 여부	3.6	3.2	4.7	3.3	3.3	3.2
fcc	금융소득 200만원 이상 여부	4.3	4.6	3.7	3.9	4.0	3.2
psjob	과거 자영업 경험 여부	15.7	12.7	23.3	8.6	6.7	16.2
pedy	부모의 교육년수(년)	7.9	8.1	7.6	8.2	8.4	7.3
pself	부모가 자영업	67.1	64.1	74.6	67.2	64.4	78.5
pocp1	부모가 관리직	0.8	0.7	1.1	0.5	0.5	0.5
pocp2	부모가 전문직	5.7	5.9	5.2	6.3	6.5	5.3
pocp3	부모가 사무직	5.7	6.2	4.6	5.1	5.5	3.3
pocp4	부모가 판매서비스직	10.5	9.9	11.9	11.2	11.5	10.2
pocp5	부모가 농림직	47.5	45.5	52.6	45.9	42.3	60.0
pocp6	부모가 생산직	6.1	6.4	5.2	6.7	7.4	3.9
umrate	지역 비농가실업률	5.6	5.5	5.6	5.5	5.5	5.7
earning	월평균 소득	148.8	135.5	187.7	86.9	82.5	107.2
hour	주당 근로시간	59.2	56.9	65.0	56.3	52.8	70.0
learn		854.5	852.5	860.2	808.4	809.8	801.4
y1998		27.7	27.6	28.1	26.2	25.1	30.5
y1999		25.0	24.7	25.8	25.4	25.6	24.8
y2000		23.9	23.8	24.0	23.9	24.4	21.8
y2001		23.4	24.0	22.1	24.5	24.9	22.9
표본수		11,973	8,579	3,394	6,376	5,082	1,29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998~2001년간의 4개년도 자료.

KLIPS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 인구를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본이 전국의 도시지역을 지역별·성별로 층화추출한 자료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노동력 분포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본에서 자영업의 비율은 남성이 약 28.4%이고, 여성이 20.3%로 남성의 자영업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비농가 자영업 비율이 약 25~30%에 달한다는 점에서 표본이 자영업주를 적절하게 추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영업의 경우 임금근로에 비해 남녀 모두 기혼이며 가구주인 경우의 비율이 높다. 가족수도 자영업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여부도 남성 자영업주의 경우 그 비중이 92.7%로 매우 높고, 여성도 자영업 가구주가 20.2%에 달한다. 남성은 배우자가 임금근로,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등 취업자인 경우가 32.6%이고, 여성은 배우자가 취업자인 경우가 44.5%이다. 임금근로보다 자영업에서 맞벌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부인이 취업자인 비중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26.3%인데 비해, 남성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48.5%에 달한다. 물론 맞벌이의 형태는 자영업주의 경우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인적자본적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교육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임금근로의 경우가 자영업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초대졸 이상 비중이 임금근로에서는 36.5%인데 반하여 자영업은 26.4%에 불과하다. 여성도 그 비중이 각각 29.7%와 13.1%로 여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자영업주에 비해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숙련을 높이는 수단이라기보다 선별(screening)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선별되지 않는 집단인 자영업에서는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애취업경력(연령-교육년수-6)의 경우에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에 비해서 경력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 직장의 지속기간은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가 길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자영업에서 현재 사업의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자영업을 선택하기 위한 인적자본으로서 교육기간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재정적 제약(financial constraint)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자. 부동산을 자기집뿐만 아니라 1억 이상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을 추가로 가진 경우의 비중은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주가 좀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월 2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임금근로자들보다는 자영업주들의 경우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월 2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소득을 가진 경우의 비율은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영업의 경우 주로 사업을 위한 담보가치로서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가적 환경과 관련된 변수로 KLIPS에서는 위험에 대한 태도와 같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부모의 자영업 여부,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이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기업가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부모가 자영업인지 여부, 이전에 자영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표 5-1>에서 볼 때, 자영업의 경우 임금근로에 비해 부모가 자영업이거나 부모가 관리직(남성의 경우) 또는 농업부문의 자영업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에 자영업을 경험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득과 취업시간의 차이를 보면,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의 소득수준이 높고 근로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에서는 소득분포의 편차도 크고 고소득자군이 많아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의 평균임금이 135만 5천원이고, 자영업주의 평균임금이 187만 7천원인데, 임금근로의 표준편차가 69만 1천원인 반면, 자영업주의 표준편차는 221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4절 자영업 선택 모형의 추정 결과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3단계의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들을 검토·해석해 보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임금함수에서의 선택편의를 교정하기 위해서 첫단계로 노동시장 참가와 자영업 선택에 관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5-2>와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이 추정 결과에서 계산된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에 대한 Inverse Mills Ratio Terms(λ_p 와 λ_s)가 다음 단계의 소득에 관한 추정식에 사용되었다. Inverse Mill's Ratio Terms는 잠재적인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1단계의 선택 방정식에서 파악되지 않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관찰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과 임금근로를 선택한 사람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생략된 변수들로서 기능한다. 소득방정식에서 이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방정식에 있는 변수들로 적절하게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1단계 추정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특성이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즉 선택편의와 이에 따른 자영업과 임금근로간의 소득기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에 관한 축약형 프로빗 모형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참가 확률 결정모형 추정결과인 <표 5-2>를 간단히 살펴보자. 남성의 경우 일정한 연령수준까지는 경제활동참가가 꾸준히 높아지고, 기혼일수록 그리고 가구주일수록 경제활동참가의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여성의 경우 기혼일수록 오히려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과 가장의 역할에 따른 가정경제에서의 책임성이 남성의 경우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유의한 효과를 가

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간 교육수익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이 경제활동참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5-3>과 <표 5-4>에서 볼 때, 임금근로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에 대한 수익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영업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우 대졸 학력에 대한 소득 프리미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반드시 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률의 차이보다는 다른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만 6세 이하의 유아가 있는 경우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낮아지고 남성의 경우는 높아진다.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일 경우에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아지고, 여성의 경우 남편이 자영업주일 경우 여성도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남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이나 금융소득 등 비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의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표 5-3>은 자영업 선택에 관한 축약형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자영업 선택에 관해서는 선택편의와 소득기회 차이까지 고려한 구조 모형에서 더 자세하게 검토될 것이지만, 비교를 위해서 일단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자영업 선택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자. 혼인 여부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유형 선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의 자영업 선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구주이면서 가구원수가 많고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영업이 될 확률이 남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가 자영업주이거나 가족종사자일 경우 자영업 선택의 확률이 높아진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선택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자영업의 경우 정년의 제약 없이 임금근로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

	남 성	여 성	변 수 명
AGE	0.229(0.007)***	0.140(0.007)***	연령
AGESQ	-0.002(0.000)***	-0.001(0.000)***	연령제곱
EDY	0.028(0.003)***	-0.002(0.003)*	교육년수
SCH	-1.385(0.043)***	-1.546(0.044)***	재학 여부
MAR	0.287(0.057)***	-0.970(0.048)***	기혼 여부
HEAD	0.437(0.049)***	0.495(0.038)***	가구주 여부
HNUM	-0.041(0.010)***	0.042(0.008)***	가족수
CHILD_1	0.190(0.038)***	-0.440(0.026)***	만 6세 미만 유아
SPOUSE1	-0.145(0.038)***	-0.122(0.028)***	배우자가 임금근로자
SPOUSE2	-0.085(0.053)*	0.432(0.030)***	배우자가 임금 또는 자영자
SPOUSE3	1.723(0.112)***	1.373(0.144)***	배우자가 취업
LCC	-0.272(0.051)***	-0.334(0.045)***	부동산소득 200만원 이상 여부
FCC	-0.313(0.050)***	-0.283(0.043)***	금융소득 200만원 이상
PJOB	0.362(0.026)***	0.528(0.021)***	과거 일자리 경험 여부
RG0	-0.069(0.025)***	-0.114(0.019)***	광역시 더미
RG1	0.255(0.074)***	0.017(0.062)*	수도권 더미
RG2	0.157(0.075)**	0.079(0.063)*	영남권 더미
RG3	0.136(0.080)**	0.122(0.067)*	전라권 더미
RG4	0.248(0.083)***	0.070(0.068)*	충청권 더미
Y1999	-0.074(0.033)**	0.003(0.025)*	1999년 더미
Y2000	-0.171(0.033)***	-0.084(0.025)***	2000년 더미
Y2001	-0.204(0.033)***	-0.050(0.026)**	2001년 더미
관찰치수	221640	22218	
log likelihood 값	-6977.3	-12356.9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를 의미함.

<표 5-3> 자영업 선택에 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

	남 성	여 성	변 수 명
MAR	-0.023(0.075)*	0.446(0.121)***	기혼 여부
HEAD	0.181(0.069)***	0.195(0.079)**	가구주 여부
HNUM	0.036(0.015)**	0.012(0.020)*	가족수
CHILD_1	0.102(0.042)**	0.137(0.069)**	만 6세 미만 유아
SPOUSE1	-0.320(0.041)***	0.014(0.065)*	배우자가 임금근로자
SPOUSE2	0.143(0.059)**	0.383(0.075)***	배우자가 임금 또는 자영자
SPOUSE3	2.040(0.084)***	2.175(0.250)***	배우자가 취업
AGE	0.199(0.015)***	0.109(0.021)***	연령
AGESQ	-0.001(0.000)***	-0.000(0.000)***	
E3	0.208(0.042)***	0.055(0.060)*	고졸
E4	0.180(0.063)***	0.275(0.112)**	전문대졸
E5	0.186(0.058)***	0.483(0.122)***	대졸
E6	-0.101(0.117)*	0.070(0.268)*	대학원졸
HOUSE3	0.257(0.146)**	0.305(0.256)*	1억 이상 부동산 자산소유 여부
LCC	0.270(0.080)***	0.170(0.133)*	부동산소득 200만원 이상 여부
FCC	-0.182(0.077)**	-0.031(0.120)*	금융소득 200만원 이상 여부
PSJOB	0.190(0.040)***	0.116(0.070)**	과거 자영업 경험 여부
PEDY	0.003(0.006)*	-0.012(0.010)*	부모의 교육년수
PSELF	0.098(0.047)**	0.072(0.074)*	부모가 자영업
POCP1	0.567(0.161)***	0.313(0.309)*	부모가 관리직
POCP2	0.107(0.076)*	0.242(0.113)**	부모가 전문기술직
POCP3	0.039(0.078)*	-0.014(0.124)*	부모가 사무직
POCP4	0.140(0.060)**	-0.003(0.092)*	부모가 판매서비스직
POCP5	-0.017(0.049)*	-0.020(0.078)*	부모가 농림직
POCP6	0.124(0.070)**	0.062(0.123)*	부모가 생산직
UMRATE	0.025(0.007)***	0.037(0.011)***	지역 비농가실업률
RG0	-0.023(0.032)*	-0.135(0.050)***	광역시 더미
RG1	0.105(0.108)*	0.044(0.162)*	수도권 더미
RG2	-0.008(0.111)*	0.161(0.162)*	영남권 더미
RG3	-0.034(0.119)*	0.141(0.171)*	전라권 더미
RG4	-0.172(0.122)*	0.005(0.177)*	충청권 더미
OCP1	0.912(0.088)***	0.916(0.363)**	관리직
OCP2	0.126(0.050)**	0.643(0.120)***	전문기술직
OCP3	-0.954(0.087)***	-0.203(0.145)*	사무직
OCP4	0.995(0.048)***	1.494(0.080)***	판매서비스직
OCP6	0.343(0.044)***	0.534(0.114)***	생산직
IND1	-0.413(0.055)***	-0.229(0.100)**	경공업
IND2	-0.691(0.049)***	-1.154(0.191)***	중화학공업
IND4	-0.600(0.052)***	-0.769(0.289)***	건설업
IND5	-0.492(0.102)***	-0.961(0.178)***	금융업
IND6	-0.467(0.059)***	-0.112(0.127)*	사업서비스업
IND7	-1.755(0.092)***	-0.527(0.098)***	공공사회서비스업
관찰치수	11973	6376	
로그합수값	-4482.227639	-1979.999795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를 의미함.

한편 학력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업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 대졸의 자영업 선택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고졸의 자영업 선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의 기초통계에서도 보았듯이, 부동산 자산소득이 있을 경우 자영업 선택 확률이 높아지고, 금융자산 소득이 있을 경우 자영업 선택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가적 환경이 미치는 요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가 자영업 일 경우 또는 부모가 관리직인 경우 또는 과거에 자영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남성에게서는 유의하게 자영업 선택 확률을 높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택편의나 소득기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서는 인적자본보다는 기업가적 문화와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여성의 경우 기업가적 문화나 환경보다는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정적 제약에서는 남녀 모두 부동산 소유에 따른 소득 여부가 자영업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의 실업률의 효과를 보면, 남녀 모두 실업률이 높을 때 자영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검토한 대로 ‘끌어들이기 가설’보다는 ‘밀어내기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실업의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에서 적자사업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실업률의 효과가 (+)가 아니라 (-)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적자사업체의 자영업주들을 제외할 경우, 자영업 선택이 경기순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한계적인 상태에 있는 자영업주들의 경우 자영업이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계적 상태에 있지 않는 자영업의 경우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첫번째 단계의 추정 결과에서 얻어진 선택편의 교

정향(λ_p 와 λ_s)을 포함한 소득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5-4>와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들에서 각 개인이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에 취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경우 소득기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보여준다.

소득방정식에서 먼저 교육수준의 효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이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졸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자영업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원 졸업이 고소득 전문자영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이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의 경우 교육이 선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때, 남성의 경우 교육은 상대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고 여성의 경우 교육이 생산성보다는 선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경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에서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 여부가 소득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모두 유의한 (+)의 효과를 가지나 자영업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 결혼은 임금근로자에게서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여부는 남성 임금근로의 경우 (+)의 효과를 가지나 자영업의 경우 거의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 실업률의 경우 남녀 모두 높은 지역 실업률은 임금근로의 소득을 유의하게 낮춘다. 반면 자영업의 경우 지역 실업률의 회귀계수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은 자영업 소득보다도 경기나 노동시장의 상황과 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편의 교정항으로 포함된 λ_p 와 λ_s 도 소득함수의 식에서 여성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선택

〈표 5-4〉 임금근로자의 소득함수 추정 결과

	남 성	여 성	변 수 명
EXP	0.062(0.002)***	0.050(0.003)***	
EXPSQ	-0.001(0.000)***	-0.000(0.000)***	
MAR	0.110(0.018)***	-0.123(0.029)***	기혼 여부
HEAD	0.146(0.018)***	0.060(0.021)***	가구주 여부
SPOUSE1	-0.083(0.012)***	0.025(0.019)*	배우자가 임금근로
SPOUSE2	-0.061(0.021)***	0.026(0.026)*	배우자가 자영업주
SPOUSE3	0.228(0.070)***	0.470(0.223)**	배우자가 가족종사자
E3	0.215(0.014)***	0.350(0.019)***	고졸
E4	0.415(0.019)***	0.629(0.026)***	전문대졸
E5	0.653(0.017)***	0.932(0.025)***	대졸
E6	0.940(0.028)***	1.225(0.062)***	대학원졸
UMRATE	-0.028(0.005)***	-0.025(0.007)***	지역 비농가실업률
RG0	0.017(0.010)*	0.008(0.014)*	광역시 더미
RG1	0.102(0.034)***	0.111(0.046)**	수도권 더미
RG2	0.059(0.034)**	0.041(0.047)*	영남권 더미
RG3	0.069(0.037)**	0.096(0.049)**	전라권 더미
RG4	0.082(0.036)**	0.073(0.050)*	충청권 더미
Y1999	-0.121(0.020)***	-0.133(0.026)***	
Y2000	-0.106(0.026)***	-0.117(0.035)***	
Y2001	-0.035(0.028)*	-0.034(0.038)*	
lamda_p	0.125(0.023)***	0.119(0.021)***	
lamda_s	-0.147(0.020)***	0.172(0.025)***	
R-Square 값	0.3722	0.1930	
관찰치수	8,483	2,857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를 의미함.

〈표 5-5〉 자영업주의 소득함수 추정 결과

	남 성	여 성	변 수 명
EXP	0.058(0.006)***	0.033(0.014)**	
EXPSQ	-0.001(0.000)***	-0.000(0.000)***	
MAR	0.373(0.063)***	0.045(0.124)*	기혼 여부
HEAD	0.007(0.059)*	0.085(0.069)*	가구주 여부
SPOUSE1	-0.210(0.041)***	-0.043(0.064)*	배우자가 임금근로
SPOUSE2	-0.144(0.050)***	0.114(0.073)*	배우자가 자영업주
SPOUSE3	0.043(0.043)*	0.392(0.108)***	배우자가 가족종사자
E3	0.287(0.034)***	0.082(0.059)*	고졸
E4	0.410(0.053)***	0.270(0.115)**	전문대졸
E5	0.688(0.046)***	0.712(0.099)***	대졸
E6	1.219(0.119)***	0.496(0.317)*	대학원졸
UMRATE	0.016(0.014)*	-0.033(0.024)*	지역 비농가실업률
RG0	-0.022(0.029)*	0.048(0.056)*	광역시 더미
RG1	0.235(0.089)***	0.222(0.153)*	수도권 더미
RG2	0.246(0.091)***	0.019(0.153)*	영남권 더미
RG3	0.130(0.097)*	0.069(0.161)*	전라권 더미
RG4	0.049(0.097)*	0.164(0.166)*	충청권 더미
Y1999	-0.014(0.053)*	-0.042(0.087)*	
Y2000	0.125(0.071)**	-0.014(0.116)*	
Y2001	0.297(0.075)***	0.135(0.124)*	
lamda_p	0.220(0.073)***	-0.093(0.079)*	
lamda_s	0.114(0.033)***	0.140(0.058)**	
R-Square 값	0.3255	0.1973	
관찰치수	5,015	1,046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를 의미함.

편의 교정항을 포함하지 않는 OLS 추정치가 편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이 두 항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고, 임금근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특성들을 가진 경우 임금근로를 선택할 때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특성들을 가진 경우 자영

업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자영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R-square가 자영업일 경우 크게 낮다. 이는 추정치의 분산이 자영업주에게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자영업 선택이 임금근로보다 더 위험도가 큰 선택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방정식 (4)에 해당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구조 모델을 추정하였다. 즉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예상 소득의 로그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Delta EARN$ 가 포함된 구조 모델을 추정한 결과가 <표 5-6>이다.

$\Delta EARN$ 의 추정계수는 방정식 (4)의 α_5 를 나타내며, 이는 자영업 선택을 결정하는 잠재지표인 S_i^* 에 예상소득 차이가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를 보면, $\Delta EARN$ 의 계수값이 유의하고 상당히 큰 값의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마찬가지이며 남성의 경우 좀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경제적 예측과는 크게 다른 결과이다. 즉 자영업에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특성(즉 이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여타 변수들을 제외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결과인 것이다.

분석결과가 확실한 것인가(robustness)를 평가해 보기 위해 임금함수에 포함되었던 변수들을 제외하고 추정했을 경우 회귀값은 0.23881, 표준편차 0.14591로 유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Delta EARN$ 변수만을 포함하여 자영업 선택에 관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해 보면, 회귀값이 0.2602이고 표준편차가 0.10980 정도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순전히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기회가 큰 사람들의 경우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만, 다른 관찰가능한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경우 관찰되지 않는 개인 특성에 따라 자영업 선택으로 더 많은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

〈표 5-6〉 선택편의와 소득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추정 결과

	남성	여성	변수명
ΔEarn	-7.976(0.249)***	-12.357(0.473)***	소득기회의 차이
MAR	1.963(0.101)***	1.297(0.138)***	기혼 여부
HEAD	-1.013(0.082)***	1.242(0.098)***	가구주 여부
HNUM	0.050(0.016)***	0.087(0.023)***	가족수
CHILD_1	0.125(0.045)***	-0.633(0.083)***	만 6세 미만 유아
SPOUSE1	-1.333(0.055)***	-1.031(0.082)***	배우자가 임금근로자
SPOUSE2	-0.474(0.066)***	2.140(0.108)***	배우자가 임금 또는 자영업
SPOUSE3	0.760(0.099)***	3.660(0.334)***	배우자가 취업
AGE	0.087(0.016)***	0.123(0.023)***	연령
AGESQ	-0.000(0.000)*	-0.002(0.000)***	연령제곱
E3	0.633(0.047)***	-2.713(0.125)***	고졸
E4	-0.031(0.067)*	-3.224(0.183)***	전문대졸
E5	0.269(0.062)***	-1.016(0.146)***	대졸
E6	1.825(0.140)***	-7.801(0.434)***	대학원졸
SCH	0.268(0.163)**	-2.621(0.271)***	재학 여부
HOUSE3	0.493(0.159)***	0.309(0.292)*	자가+1억 이상 부동산 자산소유 여부
LCC	0.356(0.087)***	-0.355(0.156)**	부동산소득 200만원 이상 여부
FCC	-0.179(0.084)**	-0.514(0.136)***	금융소득 200만원 이상 여부
PSJOB	0.261(0.042)***	0.693(0.080)***	과거 자영업 경험 여부
PEDY	0.007(0.006)*	-0.012(0.011)*	부모의 교육년수
PSELF	0.057(0.051)*	0.051(0.084)*	부모가 자영업
POCP1	0.515(0.174)***	0.435(0.327)*	부모가 관리직
POCP2	0.034(0.081)*	0.263(0.128)**	부모가 전문기술직
POCP3	0.006(0.084)*	0.028(0.136)*	부모가 사무직
POCP4	0.132(0.064)**	-0.031(0.105)*	부모가 판매서비스직
POCP5	-0.031(0.053)*	-0.048(0.088)*	부모가 농림직
POCP6	0.135(0.075)**	0.213(0.134)*	부모가 생산직
UMRATE	-0.025(0.008)***	-0.375(0.019)***	지역 비농가실업률
RG0	-0.030(0.035)*	0.490(0.061)***	광역시 더미
RG1	1.889(0.129)***	2.089(0.196)***	수도권 더미
RG2	2.209(0.136)***	0.718(0.181)***	영남권 더미
RG3	1.164(0.132)***	0.687(0.191)***	전라권 더미
RG4	-0.103(0.130)*	1.722(0.206)***	충청권 더미
OCP1	0.021(0.094)***	1.204(0.389)***	관리직
OCP2	0.098(0.054)**	0.662(0.136)***	전문기술직
OCP3	-1.107(0.096)***	-0.265(0.162)*	사무직
OCP4	1.129(0.052)***	1.751(0.092)***	판매서비스직
OCP6	0.370(0.047)***	0.656(0.130)***	생산직
IND1	-0.506(0.059)***	-0.253(0.112)**	경공업
IND2	-0.798(0.052)***	-1.303(0.221)***	중화학공업
IND4	-0.682(0.056)***	-0.983(0.339)***	건설업
IND5	-0.612(0.110)***	-1.090(0.204)***	금융업
IND6	-0.512(0.064)***	-0.054(0.145)*	사업서비스업
IND7	-2.017(0.101)***	-0.737(0.111)***	공공사회서비스업
관찰치 수	11955	6355	
로그합수값	-3881.2	-1564.7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를 의미함.

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영업 선택에서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소득기회보다는 소득기회에 따르는 위험도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변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영업과 임금근로간의 소득기회 창출의 차이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자영업 선택 모델의 추정 결과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축약형 자영업 선택 모델의 추정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실업률이 유의한 (+)값에서 유의한 (-)값으로 변했다. 이는 일단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소득 창출에서 자영업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영업 선택 확률을 바꾸는 효과를 제거할 경우 실업률은 자영업 선택 확률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식에서 자영업의 비교우위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 추정에 따르면 $\Delta EARN$ 의 계수값이 (-)이기 때문에 자영업 선택 확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Delta EARN$ 와 실업률만을 포함하는 모형을 보면, 실업률의 계수값은 거의 유의하지 않은 (+)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Delta EARN$ 가 아니라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실업률의 효과가 (-)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자영업에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집단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료에 대한 좀더 엄격한 검토와 분석방법에서 이분산성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더 구조화된 추정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실업률뿐만 아니라 $\Delta EARN$ 이 포함될 경우, 다른 변수들의 경우도 부호가 바뀌거나 추정계수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남성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를 보면, 기혼 여부가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한 (+)의 값으로 바뀌고 있고 가구주 여부는 유의한 (-)의 값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된 변수들의 회귀값도 전반적으로 작아졌고 연령의 계수값도 작아졌다. 반면 교육수준과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 여성에게서 계수값이 (+)에서 유의하게 (-)로 변하였다. 이는 개인 특성변수들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기회를 매개로 한 효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Delta EARN$ 의 계수값이 유의하게 (-)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직·간접 효과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과 소득과 관련된 위험(risk)의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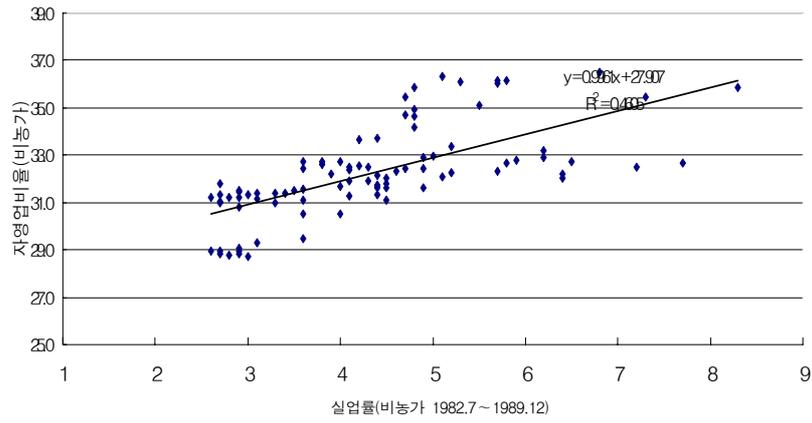
한편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재정적 제약과 관련된 변수들과 이전 직장에서 자영업 경험 여부나 부모의 자영업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제약에서는 금융소득보다 부동산소득이 많을수록 자영업 선택 확률이 높아지고, 이전에 자영업을 경험했거나 부모가 자영업이나 관리직이었던 경우 자영업 선택 확률이 높아진다. 나머지 인적자본변수와 노동시장 여건과 관련된 변수들은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위험에의 노출 정도 등의 요인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자영업 선택에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을 거시 지표를 통해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검토해 보자. [그림 5-1]은 거시적 지표 수준에서 비농가 부문의 월별 실업률과 자영업 비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1980년대에는 실업률과 자영업 비율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와 양자의 상관관계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상관관계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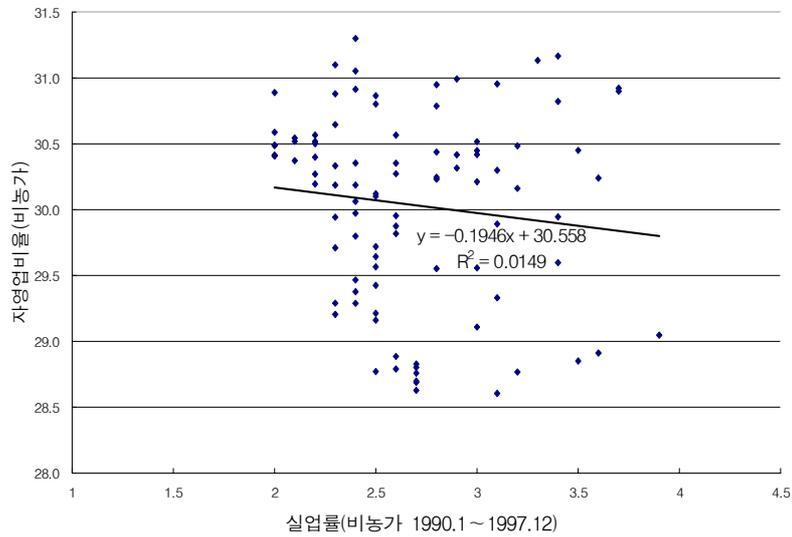
그대로 해석하자면, 1980년대의 경우 ‘밀어내기 가설’이, 1990년대에는 ‘끌어들이기 가설’이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외환위기 이후 다시 ‘밀어내기 가설’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영업 선택이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의 성격에서 적극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변화가 다시 역전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비농가실업률과 비농자영업 비율간의 상관관계 : 월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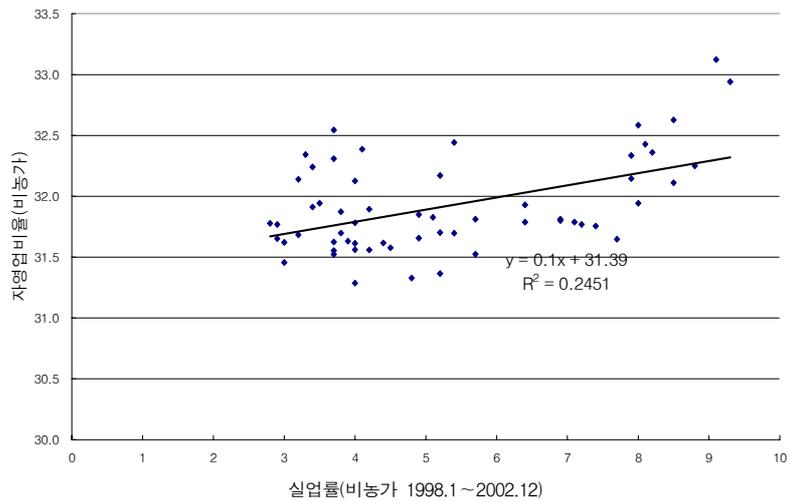
<1980년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 월별 비농가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월별 자영업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 모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지역별·월별 자영업주 비율을 지역별·월별 비농가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에 회귀시키는 모델이다. 자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제약으로 남녀 구분해서 검토하지 못했고, 또 1998년 이후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자료만이 활용가능하였다. 이 자료는 월별, 지역별 자료이기 때문에 횡단면적으로 이분산성을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특성(full pooling)이 있다. 따라서 횡단면적인 이분산성 및 상관관계 그리고 시계열적인 자기상관성(cross-sectional correlation and time-wise autoregression)을 교정한 모델(Full Pooling GLS Regression Results)을 검토하였다. 또한 횡단면적으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 모델(Partial Pooling)도 비교를 위해 같이 검토해 보았다.

$$\text{Ln}(\text{SERATE}_{it}) = \nu_0 + \nu_1 \text{Ln}(\text{MRATE}_{it}) + \nu_2 \text{Ln}(\text{ACTRATE}_{it}) + \nu_3 \text{REGION}_{it} + \nu_4 \text{YEAR} + \nu_5 \text{MONTH} + \varepsilon_{it}$$

Ln(SERATE)	월별, 지역별 자영업 비율의 로그값
Ln(UMRATE)	월별, 지역별 실업률의 로그값
Ln(ACTRATE)	월별,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로그값
REGION	15개 시도별 지역 더미
YEAR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도 더미
MONTH	2월부터 11월까지의 월 더미

<표 5-7> 자영업 비율 결정 모델 추정 결과

	추정 결과 (()안은 표준편차)		
OLS 추정 결과	3.8274 (0.2714)	+ 0.0281×Ln(MRATE) (0.0067)	-0.1134Ln(ACTRATE) (0.0658)
Parital Pooling GLS 추정	4.6294 (0.2576)	+ 0.0235×Ln(MRATE) (0.0057)	-0.3056Ln(ACTRATE) (0.06253)
Full Pooling GLS 추정	4.8244 (0.2167)	+ 0.0248×Ln(MRATE) (0.0054)	-0.3541Ln(ACTRATE) (0.05271)

<표 5-7>에 제시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은 자영업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OLS로 추정하나 GLS로 추정하나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앞에서의 미시적인 가구조사자료(KLIPS)의 결과와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의 분석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KLIPS 자료 분석에서도 개인특성변수를 제외하고 추정할 경우 지역실업률 변수의 회귀계수는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소득기회의 차이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실업률 변수의 회귀계수는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에서 보았듯이, 자영업과 임금근로간의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높은 실업률은 자영업 선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영업과 임금근로간의 예상소득기회의 차이와 이와 관련한 개인적 특성들을 모두 고려할 때에는 자영업 선택 확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자영업의 이질적인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업률과 자영업의 관계는 일률적이기보다는 자영업의 내부 구성과 관련해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현상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실업률의 증가가 자영업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업률 증가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자영업 선택 확률을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주로 외환위기 이후의 미시적인 가구조사자료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에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 재정적 제약 여부, 기업가적 환경과 문화 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자영업이나 임금근로를 선택할 때의 예상소득의 차이가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장에서는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 조건 등에 관한 변수가 자영업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가구조사자료인 한국노동패널(KLIPS) 1998~2001년간의 미시자료와 1998년 이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영업 비율 등과 같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재정적 제약이 자영업 선택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적 제약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소득이 자영업 선택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의 경우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의 경우, 축약형의 프로빗 모형에서는 남성에게서보다는 여성에게서 자영업 선택에 더 유의하게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가 포함된 구조 모형에서는 여성의 경우 아주 유의하게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시적인 분석에서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구조적 모형의 추정 결과 실업률의 회귀계수가 (-)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고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의 복잡한 내부 구성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자영업의 소득과 선택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상의 한 특징은 자영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비농 부문 취업자 중에서 네 명 중 한 명꼴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하면 비농 부문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1/3 정도가 자영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비농 부문의 자영업주 취업비중이 7.5%(1994년)에 불과한 미국이나 11.2%(1996년)인 일본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가별 비교를 해보면 1인당 GDP로 대표되는 경제발전 수준과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간에는 분명한 역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발전 단계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자영업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류재우·최호영, 1999).

시간상으로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오고 있었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역전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상당히 높은 자영업주 비율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된 현상은 노동시장 연구자에게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사이에 비농 취업자수는 129만명이 감소한 반면, 자영업 부문 남자의 경우 고용주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주는 11.6만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자영업 부문이 불황기에 실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에서 새 취업기회를 찾은 이들의 다수는 임금 부문에서 밀려난 사람들로써 자영 부문에서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안정망의 보호를 필요로 했을 사람들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자영 부문은 실직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들은 자영업 부문이 우리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외에서는 자영업 부문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자영업주가 되는가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 또는 이론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능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것으로서 Lucas(1978)가 이론적 원형을 제시한 이래 Blau(1988)가 경험적으로 그같은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Evans and Jovanovic(1989), Blanchflower and Oswald(1998) 등은 비슷한 전통에 서서 자영업 선택에 있어 높은 기업가적인 능력이 필요조건임을 인정하지만 그 외에 초기자본 투하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 즉 유동성의 확보 여부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견해는 자영업은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문으로 본다. Borjas and Bronars(1989), Moore(1982), Evans and Leighton(1989) 등은 자영업은 능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부문임을 보이고 있는 연구의 예들이다. 이들 두 이론 또는 견해는 노동자간의 능력분포가 위계적이라고 하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Ryoo(1994)는 노동자들이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영 부문을 선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 부문은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 부문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는데, 예컨대 류재우·최

호영(1999)은 미국·일본 등과의 자영업주 비율의 차이가 산업별 취업자 및 자영업주 분포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였다. 아울러 근래의 자영업주 비율 증가의 상당부분은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성향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에도 일정부분 기인한다는 점도 보였다. 류재우·최호영(2000)은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을 분석하여 실업·비경황과 자영업간의 노동력 유동이 한계적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근래의 자영업 비중의 변화가 자영업 지속기간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자영업 종사자의 선택성(selectivity)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우영(2000)은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선택성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금재호·조준모(2000)는 능력에 있어서 최상위와 최하위에 분포하는 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 제한적이다. 예컨대 근래의 자영업 비중의 증가는 이 부문의 소득기회 등으로 측정되는 바의 매력이 증대되어 왔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자영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는 상승하였는가, 그것은 자영 근로자의 상대적인 질의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근래에 자영업으로 진입한 자들의 평균적인 '질'은 향상되고 있는가, 자영업 부문 내의 이질성은 증대되어 왔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 확정적인 답을 할 만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직접 및 간접적인 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관심은 근래에 있어서의 자영업 비중의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중심 가설은 '자영 부문 취업비중 증가는 이 부문에서의 (상대적인) 소득기회의 증가에 있으며 이와 함께 자영 부문을 선택한 자들의 능력(또는 숙련)의 평균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득수준과 분포의 변화, 임금결정요인의 변화, 신규 진입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포괄하는 기간은 4년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지표

들의 시간상의 변화를 추세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시간상의 변화가 분석기간 내에 동일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 그것이 추세적인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 즉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며 근래에 이 부문을 선택하는 자의 비중이 왜 증가하는가 하는 것은 류재우·최호영(1999, 2000)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들 연구에서는 자영업과 관련한 고용 특성 및 그것의 시간상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자영업 부문의 취업비중 변화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 즉 그러한 비율 증대가 임금 부문에서의 기회축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영업 부문에서의 기회확대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한편 자영업 부문의 선택성에 대해서는 이미 김우영(2000)과 금재호·조준모(2000)에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들 선택성에 있어서의 시계열상의 변화를 보다 중요한 분석과제로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며, 제3절에서는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인적 특성 및 고용상의 특성에 대해 서술적인 분석을 한다. 제4절에서는 자영 부문의 소득수준 및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며, 제5절에서는 자영 부문 종사자의 숙련과 관련된 선택성의 규모 및 근래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제2절 사용된 자료 및 용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KLIPS의 1~4차년도(1998~2001년) 자료이다. 먼저 KLIPS의 각 연도의 횡단면 자료는 주어진 시점에서 종사상 지위가 서로 다른 노동자간의 특성과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자영업 부문

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기회 및 그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그 다음 패널화된 자료는 각 개인의 이전의 직업경력과 현재의 상태간의 연관성 및 그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된다.

본 연구는 경제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농업-비농업간의 취업구성 및 남녀간의 취업구성에 있어서의 변화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존재하는 자영업 부문의 상대적 지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분석의 대상을 비농가-남자 집단에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의 정착도(attachment)가 낮지만 일시적으로 임금노동 또는 자영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정상근로+초과근로)이 3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65세 초과자들도 역시 제외되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며 16~65세이고 전일제(full-time)로 임금노동자 또는 자영업주로서 일하는 남자 집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변수에 관해서 언급해 두도록 하자. 먼저 ‘종사상의 지위’는 KLIPS에서 정의된 바를 따랐다. 즉 지난 1주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자영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를 나눈 다음, 다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기준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구분하였다. 자영업주의 경우 유급종업원이 몇 명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1명 이상으로 답한 사람은 고용주로, 0으로 답한 사람은 자영업주로 분류하였다.

사실 ‘고용주’와 ‘자영업주’의 구분은 유급종업원의 수가 수명에 불과할 때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영업주가 계절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급종업원을 고용할 필요가 생겨서 그를 실행하는 경우 일 또는 사업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소규모 잡화상을 운영하는 자영업주와 간호원 등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업의 등의 전문직 종사자는 노동력의 질(숙련)과 경영하는 사업의 특성 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집단을 구분해서 살펴보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주’는

‘자영자’ (또는 ‘순수 자영업주’)로 부르고 이에 ‘고용주’를 더한 것을 ‘자영업주’로 부르기로 한다. 자영 부문에는 이들 자영업주 이외에도 ‘무급가족종사자’가 있는데, 이들은 자영업과 임금노동간의 경계영역에 있는 자들로 간주될 수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주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는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³⁹⁾

자영업주의 소득은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인 사람의 자영소득으로 파악하였다. 자영업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소득원을 갖고 있으면서 임금노동을 하는 직장이 주된 일자리라고 답한 사람은 자영소득이 없는 임금근로자로 간주하였다.

KLIPS를 이용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의 하나는 조사(survey)가 3~4개월에 걸쳐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측치들간의 응답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원자료(raw data)에 조사 대상자를 면접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기록 또한 완전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조사가 모두 9월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한 자영업주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사업지속기간’과 임금근로자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일한 ‘근속기간’은 모두 조사 연도의 9월에서 현 사업 또는 현 직장의 시작 연월을 빼서 구하였다. 경력년수 변수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에서 교육년수 더하기 6을 뺀 것으로 정의하였다.

제3절 자료의 기초분석

<표 6-1>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자료로부터 계산된 비농 부문의 자영업 고용비중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남자에 한정해서 보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1980년대를 통틀어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1980년에는 27.2%이었던 자영업주 비중은 비율

39)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취업자 중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0.74%에 불과하다.

이 1990년에는 24.9%까지 떨어진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감소는 보다 긴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추세적 변화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을 기점으로 반전을 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하여 ‘경황’ 자료에 의할 때 최근에 있어서도 비농 부문 취업자 10명 중에서 3명은 자영근로자로 취업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중 60% 가까이가 순수 자영업주이며 나머지가 고용주이다.

〈표 6-1〉 자영업주 비중의 변화: 비농, 남자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경황	전체	27.2	26.9	24.9	27.1	29.1	29.1	29.2	29.8
KLIPS	전체	-	-	-	-	28.2	28.7	27.9	26.0
	고용주	-	-	-	-	11.1	12.3	11.7	10.9
	자영자	-	-	-	-	17.1	16.4	16.3	15.1

주: KLIPS 통계의 경우 65세 이하로 전일제 근로자만 포함됨.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 원데이터』, KLIPS 1~4차년도.

자영업주의 취업비중 추이와 관련해서는 ‘경황’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KLIPS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경황’에 의할 경우 자영업 비중은 199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KLIPS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KLIPS에서 조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표본탈락이 자영업주에게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요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KLIPS를 이용한 이하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표본편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도록 하자.

‘경황’ 자료에서 나타난 바의 추이는 ‘전통 부문’ 또는 ‘전근대적인 부문’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자영 부문이 축소 추세에서 왜 확대추세로 반전이 되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 특히 현재의 우리의 자영업 비중이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추세의 반전은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취업구성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공급측의 변화요인과 수요측의 변화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부표 3>은 ‘공급’ 측면에서 임금노동자와 비교한 자영업주의 인적 특성과 최근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자영업주와 임금노동자간에는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말하여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연령이 높고 가구원수는 많으나 교육수준⁴⁰⁾은 약간 낮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통계를 보면 자가보유자의 비율은 양측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자의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높다. 그러나 자산소득의 규모에 있어서는 자영업주가 높다.

이처럼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간의 평균적인 특성의 차이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영업주 집단 내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변이계수의 크기로 측정된 자영업근로자 집단 내의 이질성은 임금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거의 모든 지표에 대하여 매우 크다. 이는 자영업이라는 범주에는 원초적인 형태로 자영업주 자신의 노동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인 ‘생계형’에서부터 전문직종, 첨단직종, ‘기업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형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교육수준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주는 높으나 자영자는 낮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자영자의 비중은 감소한다. 이러한 점은 자산규모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은 자영업주의 경우가 낮지만 자산소득은 고용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시계열상으로 볼 때 <부표 1>은 자영업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에 있어서는 뚜렷한 변화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표에서 포괄하고 있는 기간이 눈에 띄

40) 교육년수의 계산에서는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자들이 각각 9, 12, 14, 16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각급 학교의 중퇴자들은 그 아래 단계 학교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는 ‘평균’의 변화를 관측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표 6-2〉 자영업 종사자의 고용상의 특성 및 변화 :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판매직 종사자 비율			
	자영업주			임금 근로	자영업주			임금 근로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1998	48.0	44.3	50.3	12.4	43.9	36.5	48.5	6.9
1999	44.2	39.6	47.5	12.6	39.7	32.9	44.7	8.6
2000	44.5	40.5	47.5	13.1	40.3	34.4	44.5	8.6
2001	44.7	44.3	45.1	13.9	40.9	36.5	44.0	9.0
	주당 노동시간				지속(근속)기간(년)			
1998	65.6	60.7	68.7	56.3	4.03	4.12	3.98	3.85
1999	65.6	63.1	67.5	57.2	4.05	4.13	4.00	3.90
2000	65.0	62.0	67.3	57.6	4.04	4.15	3.97	3.79
2001	64.0	62.1	65.3	56.3	4.09	4.21	4.01	3.88
	1년 이하 근속자의 비율				현 사업장이 첫 직장인 자의 비율			
1998	14.9	15.7	14.3	18.7	16.0	21.8	12.2	33.9
1999	17.2	15.6	18.3	28.1	18.9	21.2	17.3	40.4
2000	14.8	17.0	13.2	23.7	18.5	20.7	16.9	33.5
2001	11.9	12.5	11.6	24.0	12.7	13.6	12.1	26.9

주: ‘지속(근속)년수’는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현 사업을 지속한 기간을,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현 직장에 근속한 기간을 말함.

〈표 6-2〉는 ‘수요’ 측면에서 자영업 부문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개괄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영업주는 산업별로 볼 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자영업주의 45% 가량이 이 산업에 종사하며, 이 산업 종사자의 약 절반이 자영업주이다. 즉 영세한 판매상이나 음식점 경영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비농 자영업주의 거의 절

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주의 약 40%는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한 가지 사실은 대다수의 자영업주가 종사하고 있는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주의 비율이 감소해온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는 근래에 있어서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확산, 음식업의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자영업주들이 현재의 사업을 지속한 기간의 평균에 있어서는 별 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⁴¹⁾ 이는 자영 부문의 취업안정성에 있어서 근래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상대적인 취업안정성을 측정해 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비교해 보면 자영업주의 상대적인 평균 사업 지속기간은 분석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⁴²⁾ 즉 상용직과 비교하여 자영 부문의 취업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이다.⁴³⁾ 이는 자영업 부문에서 소득 불안정성 또는 열악한 소득기회로 인해 사업교체를 하는 빈도가 감소한 것을 나타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문의 소득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취업자 중에서 현재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속한지 1년 이하인 자의 비율을 보면 자영업주의 경우 1999년에 상당 폭 증가한 다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1999년에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상용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1999년 이후의 감소세가 발견되지 않

41) 자영업주의 현 사업 지속년수 또는 임금노동자의 현 직장 근속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 직장 시작년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조사일로부터 5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그리고 시작월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6월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42) 상용직의 현 직장 근속년수는 1998년에 7.52년, 1999년에 7.15년, 2000년에 6.95년, 2001년에 6.12년 (2001)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43) 류재우(2002), 류재우·박성준(2002)은 상용직에서의 이같은 근속년수의 하락과 함께 근속에 대한 보상도 하락하여 왔음을 보이고 있다.

44) 다른 관점에서 그것은 임금기회의 상대적인 축소로 인해 자영 부문 취업자가 그 부문에 '잠겨 있는'(locked in) 경우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고 있다.⁴⁵⁾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의 대안으로 자영 부문을 선택하는 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한 다음에 감소하는 과정에 있으나, 상용직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직후 빈번해진 노동이동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자영업의 지속성 및 신규 진입자 비율에 대한 통계는 자영업 부문의 취업안정성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증대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4절 자영업 부문의 상대적 소득기회와 변화

1. 소득수준의 변화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자영업주 비중의 증가가 상대적인 소득기회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소득기회의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 하나는 평균치 또는 중간값(median)의 변화로부터 소득기회의 변화를 추론하는 것이다. 직업선택이론의 관점에 의할 때, 한 직종으로의 잠재적인 진입자에게 있어 한 직업의 매력은 그 직종의 평균(상대)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증대된다(Ryoo and Rosen, 2002).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자영업 부문의 상대소득의 증가는 이 부문의 매력이 증대되어온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영업주의 소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자영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투하된 자본의 규모를 알 수가 없으며 자영소득의 규모에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자영소득이 '정상이윤'을 포함하는 경우 자영소득의 (상대적인) 변화는 자본 투입량의 변화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수준의 변화로부터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상대적인 '능력'

45) 상용직 중에서 근속년수가 1년 이하인 자의 비율은 1998년 이후의 각 연도별로 15.9, 20.9, 21.3, 21.2%이다.

또는 '질'의 변화를 추론하는 본 연구에 기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자영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및 이윤)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은 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자영업주의(상대적인) '능력'을 자본동원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점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한 자영소득은 자영업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선택한 자에 대해서만 관찰된다는 점에 기인하는 표본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자영업주는 소득이 음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정확한(음의) 소득액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적자 자영업주들을 표본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표본선택의 문제가, 그리고 그들의 소득을 0으로 취급할 때에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관련한 선택편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는 가급적이면 소득이 음인 자영업주를 제외한 경우와 그들의 소득을 0으로 취급한 경우의 분석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표 6-3>의 첫 3행에는 자영업주의 소득과 연관성이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매출액 변수의 규모와 추이가 나타나 있다.⁴⁶⁾ 자영업주의 평균 매출규모는 1999년도에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매출규모의 증가의 비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다. 평균 매출액으로 따진 자영업 규모가 증대하는 현상은 고용주와 자영자로 세분하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매출액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된 자영업주간의 이질성은 1999년 이래 작지만 착실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자영업주 중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자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매우 높았으나 그 이후 감소한 다음 안정화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 부문에서의 기회축소로 인해 자영업 부문 특수적인 숙련을 갖추지 못한 채 자영업 부문으로 새로이 진입한 자가 증가하였

46) 여기서의 매출액은 각 관측치에 범주별 매출액의 중간치를 부여함으로써 계산되었다. 예컨대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매출액이 2,000만원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제의 매출액을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6-3〉 자영업주의 매출 규모와 소득범주 :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매출액의 로그값(만원)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 수	소득<0인 자영업주의 비중		
	전체(변이계수)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1998	8.05 (0.178)	8.87	7.54	100.0	21.4	27.0	17.8
1999	7.94 (0.163)	8.60	7.46	100.8	12.3	12.3	12.3
2000	8.07 (0.171)	8.77	7.59	103.1	10.4	13.5	8.2
2001	8.37 (0.174)	9.04	7.92	107.3	10.3	10.5	10.1

주: '지속(근속)년수'는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현 사업을 지속한 기간을,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현 직장에 근속한 기간을 말함.

다가 이후의 경제회복 과정에서 그 비율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6-3>은 이처럼 자영업주의 이질성을 측정하는 변수들간에 서로 다른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 즉 1999년 이후 적자-흑자 여부로 따진 이질성은 감소한 반면, 매출액으로 따진 자영업주간의 이질성은 증대되어 온 것이다.

직업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직업으로의 잠재적인 진입자들에게 있어서 진입의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부문에서 기대되는 소득이다. 자영업 부문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대소득은 사업성공률과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소득의 함수이다. <표 6-4>의 상단 패널에는 자영업주 전체의 평균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과 비교한 상대소득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자영업주의 평균소득은 적자 사업자의 소득을 0으로 간주하고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자영업 소득은 자영사업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0의 소득을 갖는 경우의 (상대) 기대소득이 된다. 적자 사업자들의 적자액이 시간상으로 크게 커지지 않은 한에 있어서 표에 나타난 (상대) 평균소득의 변화는 자영업 부문의 (상대) 기대소득의 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

<표 6-4>의 수치들은 자영업의 기대소득 - 또는 자영업주의 상대적인 지위 -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적자 사업장을 포

〈표 6-4〉 평균소득, 중위소득 : 비농업,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평균소득(만원)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전 체			소득 > 0			전체	상용직	임시 일용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1998	135.2 (1.01)	179.4	106.9	172.3 (1.29)	246.8	130.1	133.6	140.2	89.8
1999	143.7 (1.12)	175.7	120.4	163.1 (1.28)	199.8	136.5	127.9	136.4	89.4
2000	163.6 (1.22)	213.0	128.2	182.5 (1.36)	246.3	139.6	134.2	140.6	99.9
2001	197.3 (1.34)	260.4	151.9	220.0 (1.50)	291.4	169.1	146.8	153.4	110.0

	중위소득(만원)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전 체			소득 > 0			전체	상용직	임시 일용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1998	100 (0.83)	150	100	150 (1.25)	200	110	120	128	80
1999	120 (1.00)	150	100	150 (1.25)	180	110	120	120	80
2000	150 (1.25)	200	110	150 (1.25)	200	120	120	130	100
2001	150 (1.15)	200	150	180 (1.38)	200	150	130	130	100

주: ()안은 당해 연도 임금노동자(전체)의 소득에 대한 자영업주 소득의 비율.

합하는 전체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할 경우 1998년에는 101%에 불과했던 자영업주-임금노동자 소득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3년 후에는 134%까지 증가한 것이다. 상용직 임금에 대비한 자영소득 비율로 따져도 1998년에는 96%에 불과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29%에 이르게 되었다.

이 표에는 적자 사업장을 제외한 자영업주의 소득을 계산한 결과도 나타나 있는데, 상대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증가세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주와 자영자에게 공통적이다. 요컨대 평균소득 통계로 측정된 자영업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소득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 비중의 감소라는 현상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영업 부문에서는 진입시에 기대되는 ‘성공확률’뿐 아니라 성공시의 (상대) 소득 또한 증가해 온 것이다.

소득분포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며(skewed to the left), 자영소득의 경우 그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관측치가 평균치에 미치는 영향은 자영소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크다. 이를 감안하여 <표 6-4>에서는 자영소득의 또 다른 지표인 중간치(median) 소득도 함께 제시하였다. 중간치 통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이 소득을 어림잡아 보고하기 때문에 생기는 관측치의 집적문제(heaping problem)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해 표에서 보듯이 중간치 등의 통계는 시간상으로 계단식(또는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표를 보면 역시 상대적인 중간치가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요컨대 상대 평균소득 또는 상대 중위소득으로 측정된 자영업 부문의 소득능력은 분석기간 동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자영업주의 평균적인 기업가적인 능력이 향상되어온 증거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다. 자영소득에는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소득의 증대가 자영업주 취업비율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자영업 부문으로의 요소투입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이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는 점 - 바꾸어 말해 이 부문에서의 소득기회가 증대되어 왔다는 점 -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소득분포의 변화

한 직종으로의 잠재적인 진입자의 관점에서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매력은 평균소득 등으로 측정되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서의 소득의 분산이 커질 때에도 역시 높아질 수가 있다(Rosen, 1986; Flyer, 1997). 한 직종의 소득분산이 커지면 그 직종에서 높은 소득을 갖게 될 가능성과 낮은 소득을 갖게 될 가능성 모두 커지지만 낮은 소득이 실현될 경우 그 직종을 이직하면 되므로 그와 같은 낮은 소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한 직종을 시도하여 보고 거기서 실현된 소득이 대체적인 직종에서보다 낮은 경우 그 직종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직종간의 이동에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다 타당성을 갖는다.

<표 6-5>는 자영업 소득의 분포의 한 지표로서 변이계수의 크기 및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대로 자영업 소득의 분산은 임금의 경우에 비해 크다. 자영업 소득의 변이계수는 임금 분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시간상으로는 자영업 소득의 분산은 1999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고용주의 경우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다. 1999년에 있어서의 변이계수의 감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자영업 특수적인 숙련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이 부문 종사자의 '이질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자 사업자를 제외한 표본에서는 자영업 소득의 변이계수는 감소 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다.

<표 6-5>에서의 소득의 변이계수는 자연대수를 취하지 않은 원래의 소득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적자 사업자들의 소득이 0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는 평균치와 매우 동떨어진 관측치들(outlier)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표의 수치는 그와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월소득이 2,000만원 이상을 표본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표본선택 기준 역시 자

의적일 수밖에 없다.

〈표 6-5〉 자영업소득의 변이계수 :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변 이 계 수								
	자영업주						임금노동		
	전 체			소득 > 0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1998	1.12 (2.26)	1.18	0.76	0.87 (1.77)	0.86	0.55	0.49	0.47	0.48
1999	0.97 (2.00)	0.75	1.05	0.78 (1.79)	0.61	0.92	0.49	0.46	0.47
2000	0.90 (1.82)	0.90	0.69	0.79 (1.59)	0.75	0.60	0.49	0.48	0.43
2001	1.13 (2.01)	1.02	1.15	1.02 (1.82)	0.91	1.05	0.56	0.53	0.50

주: ()안은 당해 연도 임금소득(전체)의 변이계수에 대한 자영업 소득의 변이계수의 비율.

〈표 6-6〉은 자연대수를 취한 자영업소득의 표준편차 및 분위별 격차를 대안적인 소득 불균등 지수로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수치들은 소득분포의 변화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소득의 자연대수값의 표준편차는 시간상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임금소득의 표준편차가 별 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한편 분위별 소득격차는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2001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위 소득자와 중간 소득자, 중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간의 격차도 서로 다른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90분위와 50분위간의 격차는 200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1년에 다시 증가한 데 반해 50분위와 25분위간의 격차는 1999년 이후 계속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 불균등도는 1999~2001년 사이에 약간 상승했으며, 주로 하위 소득자간의 소득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진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6〉 자영업 소득의 불균등 지수: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자영업주(전체)							임금노동	
	표준 편차	분위 로그 임금의 격차					관측 치수	표준 편차	관측 치수
		90-25	90-50	75-25	75-50	50-25			
1998	2.14	1.95	1.03	1.61	0.69	0.92	948	0.48	2,345
1999	1.71	1.32	0.92	0.92	0.51	0.41	866	0.47	2,092
2000	1.71	1.20	0.69	0.80	0.29	0.51	818	0.45	2,014
2001	0.83	1.39	0.80	0.92	0.33	0.59	670	0.47	2,009
		고용주							
1998	2.45	-	0.98	-	0.51	-	370		
1999	1.77	1.10	0.69	0.79	0.38	0.41	365		
2000	1.99	1.43	0.73	1.10	0.41	0.69	341		
2001	0.69	1.20	0.92	0.69	0.41	0.29	280		
		자영자							
1998	1.93	1.39	0.69	1.10	0.41	0.69	578		
1999	1.65	1.12	0.69	0.84	0.40	0.43	501		
2000	1.47	0.92	0.60	0.63	0.31	0.32	477		
2001	0.83	0.92	0.51	0.69	0.29	0.41	390		

자영업 부문에서의 성공가능성 또는 소득기회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속성들에 중요하게 의존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노동자 집단간의 구성의 변화가 소득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존재하는 소득분포의 변화가 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자영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들로는 학력, 경력, 그리고 현재 사업 지속기간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중 ‘지속기간’은 자영소득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고려하여 여기서 ‘구성효과’를 통제하는데 있어서는 학력과 경력변수만을 설명변

수로 포함하는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력, 경력의 제곱, 그리고 학력(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더미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회귀식을 추정하고 그 잔차를 가지고 소득 불균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회귀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자 사업장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적자 사업장에 0의 (자연로그) 소득을 지정하여 표본에 포함시킨 후, 학력 및 경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야만 양(+)의 소득이 관찰된다고 하는 고전적인 Tobit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표 6-7> 회귀식 잔차에 기초한 자영업주의 소득 불균등 지수 :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자영업주(전체)						임금노동		
	표준 편차	분위 로그 임금의 격차					관측 치수	표준 편차	관측 치수
		90-25	90-50	75-25	75-50	50-25			
1998	2.14	2.24	1.05	1.75	0.55	1.19	940	0.38	2,322
1999	1.70	1.22	0.75	0.83	0.35	0.47	858	0.38	2,071
2000	1.69	1.70	0.88	1.04	0.50	0.54	810	0.37	1,984
2001	0.78	1.09	0.67	0.74	0.31	0.95	662	0.38	1,984

<표 6-7>은 이와 같은 Tobit식의 추정으로부터 얻어진 잔차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소득 불균등 지표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뚜렷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우나, <표 6-6>의 첫번째 패널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적자 자영업주의 소득(의 자연대수값)을 0으로 취급한 상태에서 얻어졌는데, 적자 사업장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예컨대 <표 6-5>와 동일하게 표준편차를 계산해 보면 1998년 이후 각각 0.66, 0.60, 0.64, 0.67로서 1998~99년 사이만 빼놓고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분위별 소득격차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예컨대 90분위와 25분위간의 격차는 1998년에는 0.82였던 것이 2001년에는 0.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6>과 <표 6-7>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 불균등도를 측정해 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요컨대 자영업주의 소득 불균등도는 분석기간 동안 적자 사업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데 반해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자영업주간 소득 불균등도는 감소했으나 양(+)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업자간의 불균등도는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영 부문 소득격차의 변화 패턴이 적자 사업장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것은 자영소득의 분포에 있어서 산포도(dispersion)는 증대되면서 아래쪽 꼬리(lower tail)가 잘려 나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자영소득의 분포는 하위 (또는 적자) 소득이 실현될 확률은 감소하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사업자간의 소득의 산포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⁴⁷⁾ 이는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자영 부문의 매력이 분석기간 동안 증대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제5절 자영업 취업자의 선택성 및 그 변화

1. 신규 진입자의 특성 : 전직(前職) 자료의 분석

앞 절에서는 자영업 부문에서의 소득창출능력 - 또는 소득기회 - 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평균소득이나 소득분포의 지표 모두가 하나의 '직종'으로서의 자영업이 금전적으로 보다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변화하여 왔을 가능성을 보았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소득기회의 변화가

47) 이와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 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부문 특수적인 숙련이 없는 상태에서 자영 부문에 진입한 자들이 도태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숙련수준의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식을 통해 선택성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자영업으로의 신규 진입자의 특성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영업 부문에서의 기회의 확대는 그 부문으로의 신규 진입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신규 진입자의 평균 숙련 또는 평균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표 6-8>은 자영업으로의 ‘신규 진입자’를 각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음 이들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신규로 고용주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년의 노동력 상태별 분포를 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영업주 중에서 신규 진입자의 비중이 줄어들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자영업 부문과 임금노동간의 이동통로가 닫혀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⁴⁸⁾ 한편 자영업을 제외한 전년도에의 나머지 상태들의 분포는 뚜렷한 변화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연령이나 교육 수준 역시 뚜렷한 변화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이 표의 하단 패널은 전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받던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 직장 임금평균은 절대액수로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각 조사 연도의 임금평균과 비교한 상대수준은 별 다른 변화가 없다.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나누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전 직장의 임금수준은 신규 진입자의 숙련수준 또는 ‘질’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표의 수치들은 이렇게 측정된 ‘질’에 있어서 별 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전 직장 임금수준 변수는 전 직장을 그만둔 시기에 있어서의 분포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시간상으로 평균 임금이 상승해 온 경우, 최근에 임금 부문에서 자영 부문으로 옮겨온 사

48)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자영업에서의 성공률(또는 기대소득)의 증가로 인해 자영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임금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고 자영업 부문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증대되어온 경우에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표 6-8〉 자영업 신규 진입자의 특성 :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고용주의 전년도 상태별 비중(%)				자영업자의 전년도 상태별 비중(%)			
	상용직	임시일용	자영업	실업 비경활	상용직	임시일용	자영업	실업 비경활
1998	36	10	7	47	34	16	5	46
1999	43	3	17	36	34	8	25	34
2000	33	6	47	14	20	13	39	29
2001	33	4	30	33	41	8	23	28
	연 령				교육수준			
	자영업주			임금 근로	자영업주			임금 근로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1998	37.5	38.3	36.9	34.4	12.4	13.0	12.1	12.1
1999	40.4	39.8	40.8	35.3	12.1	13.3	11.4	11.9
2000	39.7	40.7	38.8	34.4	12.2	13.3	12.2	12.3
2001	39.2	39.5	39.0	34.8	12.8	13.8	12.0	12.3
	전 직장 임금(만원)				전년도-전 직장 임금(만원)			
	전체	(임금평 균대비 비율)	고용주	자영업자	전체	(임금평 균대비 비율)	고용주	자영업자
1998	96.0	(0.72)	112.2	86.2	142.6	(1.07)	161.8	130.5
1999	99.1	(0.78)	120.9	82.8	135.3	(1.06)	176.8	103.3
2000	101.8	(0.76)	123.8	84.5	138.7	(1.03)	176.2	103.2
2001	110.4	(0.75)	134.7	92.7	137.7	(0.94)	154.9	122.0

람의 비율이 클수록 전 직장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신규 자영업주의 수가 급증했다가 줄기 시작했다면 임금평균은 실제보다 더 작게 증가한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맨 하단 패널의 오른쪽에는 자영업으로의 신규 진입자 중에서도 전년도에 임금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임

금평균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상대임금의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2001년도를 제외하면 전년도-전 직장 임금수준으로 따진 노동자의 '질'은 별 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선택성에 관한 회귀분석

자영업 부문과 임금 부문간의 선택성(selectivity)과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선택성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경우 방향은 어느 쪽인지, 또는 노동자들의 능력의 분포에 있어서 극단에 위치한 사람들, 즉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능력이 현저히 높거나(upper tail) 현저히 낮은 사람들(lower tail)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지 등이 이슈가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선택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의 연구가 수행되어 있는데(김우영, 2000; 금재호·조준모, 2000),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선택성의 시간상의 변화에 대해 보다 관심을 두고자 한다. 선택성의 크기 및 변화의 방향은 자영업 부문 취업자 구성의 변화, 자영업 취업자 비중의 변화 등의 원인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선택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간단한 직업(또는 직종) 선택 모형을 상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자영 부문과 임금 부문을 두 개의 '직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숙련구성(skill mix)에 기초하여 각 직업에서 기대되는 소득(또는 효용)을 계산한 다음 보다 높은 소득(또는 효용)을 제공하는 직종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직업선택 행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Willis and Rosen(1979) 및 Heckman and Sedlacek(1985)의 로이(Roy) 모형을 약간 변용한 분석틀을 사용한다.

개별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숙련의 양(의 자연대수)의 벡터를 (t^s, t^w) 로 표시하자. 여기서 윗첨자 s 는 자영, w 는 임금 부문을 가리킨다. 이 숙련 벡터는 인적 속성 X 를 갖고 있는 자들 중에서 평균 $(X\beta^s, X\beta^w)$ 을 중심으로 공분산 행렬이 $[\sigma_{jj}]$, $j, j' = s, w$ 인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 숙련 단위당 가격(의 자연대수)을 β_j^0 로 표시하고, 두 직종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의 자연대수)을 W^j , $j = w, s$ 로 표시하면, 구조적인 소득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_i^j = \beta_o^j + X_i \beta^j + u_i^j, j = w, s \text{ ----- (1)}$$

여기서 아래첨자 i 는 개별 노동자를 나타내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한다.

노동자가 부문 j 를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효용(V)은 $W^j + Z\gamma^j$ 로 주어진다. Z 는 각 직업(취업부문)으로부터 얻는 비금전적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벡터)이다. 여기서의 자영업 선택에 대한 경험 분석에서는 14세 때 부모가 자영업주였는지 여부, 14세 때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수 등이 Z 의 대리변수로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는 각 직종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비교해서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 즉 자영업 선택에 관한 지표함수(index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 = V^s - V^w = \beta_o^s + X\beta^s + Z\gamma^s + u^s - (\beta_o^w + X\beta^w + Z\gamma^w + u^w) \text{ ----- (2)}$$

$$\sigma^* = \sqrt{\text{var}(u^s - u^w)},$$

$$c^s = [\beta_o^s - \beta_o^w + X(\beta^s - \beta^w) + Z(\gamma^s - \gamma^w)] / \sigma^*$$

그러면 인적 속성 (X, Z)를 갖고 있는 잠재적인 노동자가 자영 부문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r(I(X, Z) \geq 0) = \Phi(c^s(X, Z)) \text{ ----- (3)}$$

여기서 Φ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이다. 자영업 부문에서 관찰된 소득(의 자연대수)의 기대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W^*|I \geq 0] = \beta_o^s + X \beta^s + \frac{\sigma^{ss} - \sigma^{sw}}{\sigma^*} \lambda(c^s) \quad (4)$$

여기서 σ^{ss} 는 u^s 의 분산, 그리고 σ^{sw} 는 u^s 와 u^w 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항 $\lambda(c^s) = \frac{\phi(c^s)}{\Phi(c^s)} (\geq 0)$ 에서 ϕ 는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이다.

이 회귀식은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이 방법에서는 1단계로 선택식 (3)을 프로빗(Probit)으로 추정을 한 다음 2단계로 거기서 얻어진 $\lambda(c^s)$ 를 (4)식에 대입하고 그 식을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한다.

<표 6-9>는 1단계 추정식에서 사용된 프로빗 대신 동일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로짓식을 이용하여 자영업 부문 선택식을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로짓식을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는 이유는 비자영업주가 자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용주와 자영자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경우를 상징하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MNL)식의 추정결과와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6-9>의 (1)열에는 적자 사업장을 포함하는 전체 자영업주와 임금노동자의 표본을 가지고 로짓 추정을 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각 변수의 계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상대로의 부호를 갖고 있다. 즉 경력이 커질수록, 가구주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자영업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장기에 부모가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경우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변수 외에 자영업주 결정식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 중의 하나가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유동성 제약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Evans and Jovanovic, 1989; Evans and Leighton, 1989; Blanchflower and Oswald, 1998). <표 6-9>의 추정에서는 소유자산의 대리변수로서 자가소유 여부를 더미변수 형태로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는데 예상과 달리 자가소유자일수록 자

<표 6-9> 자영업 부문 선택식의 추정: 비농,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표 본 추정방법	적자 자영업주 포함			적자 자영업주 불포함		
	로 깃	다항 로깃		로 깃	다항 로깃	
종속변수 설명변수	자영업주=1 (1)	고용주=1 (2)	자영자=1 (3)	자영업주=1 (4)	고용주=1 (5)	자영자=1 (6)
경력	0.297 (8.59)	0.310 (6.11)	0.265 (6.36)	0.294 (8.00)	0.303 (5.56)	0.263 (5.94)
경력의 제공	-0.0076 (5.53)	-0.0079 (3.78)	-0.0062 (3.83)	-0.0075 (5.16)	-0.0078 (3.49)	-0.0061 (3.54)
경력의 세제공	0.000063 (3.72)	0.000060 (2.22)	0.000048 (2.45)	0.000062 (3.49)	0.000060 (2.10)	0.000046 (2.24)
학력 초졸 이하	-0.256 (2.19)	-1.272 (5.76)	0.035 (0.28)	-0.239 (1.97)	-1.272 (5.38)	0.029 (0.22)
중졸	-0.162 (2.03)	-0.534 (4.50)	0.015 (0.17)	-0.159 (1.91)	-0.500 (4.02)	-0.006 (0.06)
전문대졸	0.160 (1.63)	0.363 (3.04)	-0.028 (0.23)	0.144 (1.39)	0.359 (2.82)	-0.048 (0.37)
대졸	0.236 (2.72)	0.626 (6.13)	-0.267 (2.33)	0.200 (2.17)	0.601 (5.48)	-0.337 (2.68)
가구주 아님	-0.452 (3.93)	-0.548 (3.54)	-0.376 (2.66)	-0.540 (4.37)	-0.685 (4.04)	-0.420 (2.78)
가구원수	0.097 (3.94)	0.181 (5.43)	0.032 (1.08)	0.095 (3.66)	0.191 (5.41)	0.022 (0.72)
부모교육 초졸 이하	-0.031 (0.46)	-0.210 (2.49)	0.157 (1.87)	-0.023 (0.32)	-0.226 (2.53)	0.186 (2.08)
초대졸 이상	0.151 (1.29)	-0.130 (0.89)	0.441 (3.03)	-0.127 (1.02)	-0.112 (0.73)	0.375 (2.36)
14세 시 부모 비자영	-0.194 (3.08)	-0.216 (2.62)	-0.178 (2.33)	-0.202 (3.04)	-0.228 (2.60)	-0.183 (2.26)
자가주택 비소유	0.137 (2.38)	-0.029 (0.39)	0.267 (3.93)	0.144 (2.40)	-0.048 (0.59)	0.230 (4.05)
첫번째 직장	-0.641 (9.59)	-0.560 (6.50)	-0.709 (8.32)	-0.651 (9.18)	-0.597 (6.45)	-0.693 (7.66)
거주지 서울	0.401 (5.91)	0.359 (4.07)	0.418 (5.15)	0.409 (5.74)	0.389 (4.14)	0.408 (4.77)
비광역시	0.202 (3.20)	0.087 (1.04)	0.273 (3.64)	0.214 (3.23)	0.122 (1.37)	0.268 (3.40)
연도 1999년	-0.108 (1.54)	-0.011 (0.12)	-0.171 (2.05)	0.009 (0.11)	0.158 (1.56)	-0.088 (0.99)
2000년	-0.204 (2.08)	-0.193 (1.39)	-0.211 (1.82)	-0.034 (0.33)	0.016 (0.18)	-0.062 (0.2508)
2001년	-0.329 (4.35)	-0.215 (2.14)	-0.401 (4.47)	-0.078 (0.99)	0.085 (0.81)	-0.182 (1.94)
상수	-2.161 (7.34)	-3.376 (8.15)	-2.375 (6.61)	-2.333 (7.46)	-3.576 (3.08)	-2.542 (6.63)
산업 더미	Y	Y	Y	Y	Y	Y
직종 더미	Y	Y	Y	Y	Y	Y
	10,461	10,641		10,080	10,082	
R ²	0.273	0.245		0.278	0.253	
χ ²	3,461	4,128		3,263	3,884	
Log Likelihood	-4,614	-6,368		-4,232	-5,746	

주: 1) ()안은 t의 절대값.

2) 유배우자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는 회귀식에는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제시되지 않음.

영업주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⁴⁹⁾

그 밖의 설명변수에 대해서 보면, 생애 첫번째로 직장을 갖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리고 서울지역 거주자나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광역시 거주자보다 자영업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류재우·최호영(1999)에서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주가 될 확률인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로짓분석의 단점은 교육수준 등과 관련하여 이질적인 고용주 집단과 자영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자영업주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을 한다는 점이다. 대안적인 방법의 하나가 다항로짓에 의한 추정인데, 이 방법에서는 노동자가 임금노동, 고용주, 자영자 세 개의 상호 독립적인 종사상 지위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노동자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고 MNL을 추정한 결과는 (2)~(3)열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력 더미의 계수가 예상대로 부호를 갖고 있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자영자가 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앞에서의 단순 로짓식에서 학력과 자영업주 비율간에 양의 관계가 나온 것은 이처럼 학력과 고용주가 될 확률간의 양의 관계가 학력과 자영자가 될 확률간의 음의 관계를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으로 대표되는 숙련 또는 능력의 수준에 있어서 고용주와 자영자는 이질적이며 임금노동자와 비교해서 서로 반대방향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단순 로짓에서와 매우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 표의 오른 쪽에는 적자 사업자를 자영업주 표본에서 제외한 이후에 로짓(logit)식과 다항로짓식을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적자 사업장의 포함 여부는 추정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된다.

<표 6-9>의 (4)열에서와 동일한 표본,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하는 1단계 프로비트(probit) 추정에 기초하여 소득결정식 (4)를 추정한 결과는 <표

49) 자산규모의 대리변수로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회귀식도 추정하여 보았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6-10>에 나타나 있다. 먼저 첫번째 열에서는 자영업주의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현재 사업의 지속년수라는 점을 볼 수 있다. 자영업 지속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소득이 대략 1.5% 정도 상승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사용된 표본에는 자영업 부문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도태된 관측치들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정치는 진정한 '사업 지속효과'를 과대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력변수의 경우 1차항까지만 포함시켰는데, 이는 2차 항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차항의 계수값이 유의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력 1차항의 계수의 추정치는 음의 값을 가지며 사업 계속기간의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거의 상쇄한다. 다시 말해 (1)열의 추정 결과는 자영업주의 경우 '근속효과'와 '경력효과'의 합은 0에 가까우며 따라서 자영업을 1년 더 지속할 경우에 기대되는 소득증가 효과는 거의 없음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KLIPS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에서 기업 근속효과와 경력효과와의 합이 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류재우, 2002)과 크게 대비된다.

그 외의 변수들은 대체로 예상대로 부호를 갖고 있다. 예컨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으며, 자영자의 소득은 고용주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가구주의 소득은 비가구주에 비해 높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첫번째 직장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자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도 더미의 계수들은 자영업주의 인적 특성의 변화를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의 소득은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2)열에는 '전 직장에서의 임금'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소득식의 추정 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 직장의 임금이 높을수록 현재의 자영업 소득도 높다는 결과가 발견된다. 이는 임금 부문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가적인 능력도 역시 높아서 자영업으로 전업 이후에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자영 부문 숙련과 임금 부문 숙련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나머지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는 전 직장 임금변수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1)열에서와 거의 비슷하다.

〈표 6-10〉 자영업주의 소득결정식의 추정 : 비농업,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종속변수	자영업 월평균 소득의 자연대수			
추정방법	Heckman의 2단계 추정			
설명변수	(1)		(2)	
현 사업 지속년수	0.015	(3.50)	0.017	(2.72)
현 사업 지속년수 제곱	-0.00035	(2.51)	-0.00030	(1.46)
경력	-0.013	(5.39)	-0.004	(1.42)
학력(고졸=0):				
초졸 이하	-0.173	(2.90)	-0.104	(1.33)
중졸	-0.093	(2.20)	-0.066	(1.17)
전문대졸	-0.014	(0.28)	0.026	(0.45)
대졸	0.106	(2.45)	0.133	(2.42)
가구주 아님	0.185	(2.76)	0.109	(1.26)
유배우 아님	-0.051	(1.11)	-0.011	(0.22)
자영자	-0.409	(16.01)	-0.425	(12.29)
첫번째 직장	0.170	(3.89)	0.182	(0.54)
거주지(광역시=0)				
서울	-0.068	(1.74)	-0.016	(0.33)
비광역시	-0.036	(1.06)	-0.032	(0.75)
전직장 임금의 로그	-		0.118	(5.26)
상수	5.750	(60.42)	4.571	(28.74)
λ_s	-0.770	(7.94)	-0.508	(4.30)
연도 더미(1998=0)				
1999년	0.000	(0.01)	-0.087	(1.96)
2000년	0.089	(1.69)	0.061	(0.95)
2001년	0.295	(6.79)	0.288	(5.24)
산업 더미	Y		Y	
직종 더미	Y		Y	
관측치수	9,982		8,669	
(자영업주 관측치수)	(2,523)		(1,262)	
Wald- χ^2	$\chi^2(51)=2,643$		$\chi^2(50)=1,584$	

주: ()안은 t의 절대값.

자영업주의 선택성과 관련한 우리의 관심은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자영업 부문 특수적인 숙련(능력)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보다 작은가 하는 것이다. <표 6-10>의 (1)열과 (2)열의 하단에는 $\lambda(c^s)$ 계수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음의 값을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거의 동일한 식을 임금노동자에 대해서 추정하여 보면 선택편의항의 계수 값은 양으로 나타나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 (4)에 비추어 볼 때 $\sigma^{ww} > \sigma^{sw} > \sigma^{ss}$ 의 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자영업 특수적인 숙련과 임금 부문 특수적 숙련은 위계적(hierarchical)인 분포를 하고 있다 - 즉 임금 부문 특수적 숙련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 특수적 숙련도 높다 - 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말해 숙련수준(능력)이 보다 높은 사람들이 임금 부문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숙련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자영업을 둘러싼 이와 같은 선택성은 시간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표 6-11>은 각 연도별로 식 (4)를 추정한 결과로부터 얻은 계수 추정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번째 행은 자영소득이 관찰되지 않는 모든 노동자는 비자영업주로 취급한 상태에서 추정한 결과 - 즉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주도 비자영업주 범주로 포함한 상태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 를 보여준다. 둘째와 셋째 행은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주는 표본에서 제외한 다음 각각 <표 6-10>의 (1)열 및 (2)열과 동일한 회귀식을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면 사용된 표본이나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차이에 별로 관계없이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숙련과 관련한 음의 선택성이 시간상으로 작아지고 있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⁵⁰⁾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자영업 특수적인 숙련 (또는 기업가적 능력)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에 근접해 가면서 음의 선택성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제시한다. 숙련의 분포가 위계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자영업주의 평균 ‘능

50) 설명변수로 경력의 제곱도 함께 포함하는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이 선택항의 계수들은 역시 음의 선택성을 보여주며 1999년을 제외하고는 그같은 음의 선택성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진다.

〈표 6-11〉 선택편의향 계수의 연도별 추이¹⁾

표 본	모든 연도	1998	1999	2000	2001
적자 사업장을 비임금으로 간주	-0.888 (7.83)	-1.094 (3.39)	-0.860 (4.55)	-0.658 (3.44)	-0.378 (1.68)
적자 사업장을 표본에서 제외(1) ²⁾	-0.770 (7.94)	-0.862 (3.98)	-0.742 (4.53)	-0.558 (3.19)	-0.385 (1.72)
적자 사업장을 표본에서 제외(2) ³⁾	-0.508 (4.30)	-0.772 (2.72)	-0.778 (3.60)	-0.133 (0.64)	0.055 (0.23)

주: 1) ()안은 t의 절대값.

2) <표 6-10>의 (1)열과 같은 추정식을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

3) <표 6-10>의 (2)열과 같은 추정식을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

력 (또는 질)'의 향상은 자영업 부문 특수적인 숙련의 가격(즉 β^s_0)이 상승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숙련의 분포 자체가 변하는 경우 - 예컨대 자영 부문 특수적인 숙련의 모집단 내에서의 분산이 커질 경우 - 에도 그와 같은 평균 '질'의 향상은 가능하다. 숙련의 분산의 증가는 기술변화, 새로운 업종의 등장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⁵¹⁾ 앞에서 소득이 있는 자영업주간의 소득 분산이 커져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자영 부문 내의 숙련의 분산이 증가해 왔을 것이라는 추론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1) 예를 들어 자영업 부문에 개인간 숙련의 차이가 거의 없는 단순한 직종(예컨대 농업) 하나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집단에서의 자영 부문 숙련의 분산은 매우 작을 것이며 모든 고숙련 노동자들은 임금 부문에 종사를 할 것이다. 이제 임금 부문에만 존재하던 예컨대 '의사'라는 고숙련 직종이 자영 부문에 새로이 포함되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모집단에서의 숙련분포의 변화 없이도 자영 부문 특수적인 숙련에 있어서의 분산은 커지게 된다.

제6절 소 결

자영업 부문은 고용, 산업변동, 소득분배 등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효과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영업 부문에 대한 연구가 순수 학문적인 관점에서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긴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영업 부문의 취업비중이 시계열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기술적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영 부문에서의 취업기회 및 소득(의 수준 및 분산)의 변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임금 부문에서의 소득기회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는 임금 부문과 비교한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의 변화와 선택성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자영업 부문은 소득수준, 소득 분산 등의 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력이 증대되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영 부문 종사자의 숙련수준과 관련해서는 음의 선택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자영업주의 이러한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의한 하락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영 부문 취업자 비중의 증가가 자영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창출에 의한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근래의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과 기업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영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영 부문에서의 기회의 (상대적인) 증대는 자영 부문 특수적

인 숙련의 분산의 증대를 수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불균등도의 확대, 영세 자영업의 생성과 소멸률(turnover rate)의 증대, 저숙련 자영업주가 고숙련 자영업주에 의해 구축되어지는(crowded out) 현상의 심화 등이 진행되어 왔거나 될 것임을 제시한다. 특히 전통적인 저숙련 자영업주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자영업의 생존과 소멸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한 저소득층이라는 점, 자영업 부문이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완충기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 전체의 이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기술진보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도소매 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경쟁심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특성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설정에 중요하다.

자영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연구의 주제가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원인 및 선택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분석하고, 자영업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상관이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나아가 자영업 이탈 여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4차년도 자료를 통해 자영업의 생존기간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사용된 데이터의 기초적 성격과 분석 결과는 제4장에서 대부분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⁵²⁾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4차년도 자료를 종합하여 1998년의 제1차 조사 이후 2001년도 제4차 조사 시점 사이에 자영업을 그만둔 사례들을 기준으로 자영업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계량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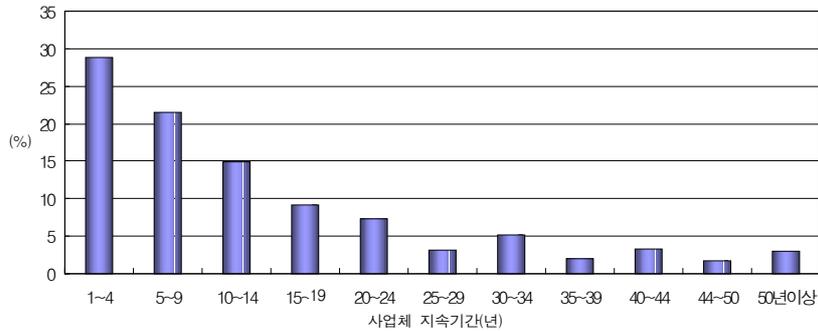
제2절 자영업의 생존기간

여기에서는 비임금근로자가 사업체를 창립한 시점으로부터 노동패널 조사시점(2001년)까지 사업체 생존기간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사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1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영업자의 사업체 생존기간(15.3년)이 고용주(8.4년)보다 약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은 이러한 사업체 생존기간을 구간별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분포는 사업체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체 생존기간이 '1~4년'인 경우가 28.8%, 5~9년이 21.5%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임금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10년 미만의 사업체 생존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기초 자료에 대한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제4차 한국노동패널연구 기초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다.

[그림 7-1] 사업체 생존기간



자영업의 생존기간과 초기 총자본금, 그리고 시작 연령 사이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설명변수를 ‘자영업의 사업기간(년)’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 ‘성별’, ‘자영업의 시작 연령’, ‘시작 연령의 제곱’, ‘교육 더미’, ‘가구주와의 관계 더미’, ‘혼인상태 더미’, ‘산업 더미’, ‘거주지역 더미’, ‘총 자본금의 로그값’ 및 ‘총 자본금 중 자기자본의 비중’ 등으로⁵³⁾ 하는 단순최소자승(OLS) 추정을 실시하였다.⁵⁴⁾

추정 결과는 <표 7-1>에 나타나 있으며, 제4장의 기초분석과 같이 초기 자본금이 많을수록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추정되나, 총 자본금 중 자기자본의 비중은 사업기간과 별 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자영업을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장기간 동일사업을 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나타나는 사업기간과 총 자본금 사이의 정(+)의 관계는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Bate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53) 이외에도 자영업의 매출액, 소득 및 고용인원 등의 변수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나 이들 변수들은 내생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54) 이 추정식은 자영업주의 의사결정 모형에 바탕을 둔 생존기간 모형의 추정이 아니라 단순히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 7-1〉 자영업 생존기간의 OLS 추정 결과

설명변수	추정치	P> t
상수항	15.4024	0.003
성별(0: 여성, 1: 남성)	-0.8169	0.528
시작시 연령(세)	-0.3828	0.068
시작시 연령의 제곱	0.0039	0.128
교육수준 더미(초등졸 이하 기준)		
중졸	-2.4131	0.005
고졸	-4.5062	0.000
전문대졸	-5.4624	0.000
대졸 이상	-5.6806	0.000
가구주와의 관계(기타 기준)		
가구주	1.7113	0.513
배우자	-0.3152	0.913
자녀	-2.3208	0.418
혼인상태(이혼·사별·별거 기준)		
미혼	-2.6325	0.146
유배우	-0.4289	0.738
산업(광공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1.1613	0.336
도소매 및 판매업	-0.2001	0.790
음식·숙박업	-3.9262	0.000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수도	-1.1548	0.269
금융 및 보험업	1.1540	0.710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0.3659	0.788
여타 서비스업	0.0555	0.954
거주지역(기타 지역 기준)		
서울	1.5884	0.013
6대 광역시	0.6580	0.270
총 자본금의 로그값(현재 가치)	0.5403	0.000
자본금 중 자기자본 비중(%)	0.0113	0.163
관찰치	816	
Adjusted R-squared	0.1141	
F-값	5.56	

주: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의 현재가치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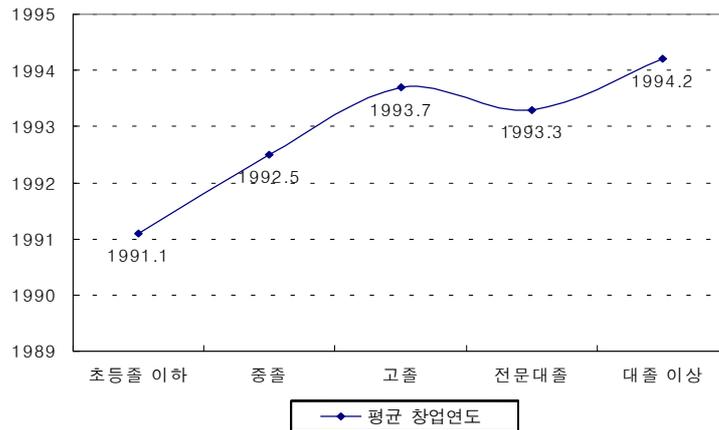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및 혼인상태는 사업기간과 별 다른 상관관계가 없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학력자의 사업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들어 고학력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창업 연도를 학력별로 살펴보면⁵⁵⁾ [그림 7-2]와 같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최근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을 기준으로 할 때, 음식·숙박업의 사업기간이 크게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들 업종에서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자영업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2] 학력과 자영업 창업 연도



제3절 자영업의 소멸

1. 자영업에서의 이탈요인

여기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4차년도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

55) 1975년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로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제외하였다.

리하여 자영업자가 사업을 그만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1998년 자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그동안 자영업을 계속하였는지 아니면 그만두었는지의 여부를 1999년도 조사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2001년까지 매년 계속되어 매 조사시점에서마다 자영업의 중단 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시점이나 그만둘 당시의 나이, 사업체 규모, 소득, 근로시간, 종사상의 지위와 같은 다양한 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며 순수한 자영업주(고용주+자영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의 이탈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종속변수를 자영업을 그만두었을 경우에 '1'의 값을, 그리고 계속 운영할 경우에 '0'의 값을 주는 지수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는 <표 7-2>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 연령, 혼인상태 더미, 가구주와 관계 더미, 거주지역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교육기간, 생애취업기간 및 제곱치, 현 직장 근속기간 및 제곱치 등의 인적자원 변수,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 총자산, 총부채⁵⁶⁾, 자영업의 적자 여부와 소득수준⁵⁷⁾, 그리고 업종 등의 경제적 변수로 하여 단순로지추정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의 평균치에 대해서는 <표 7-2>를 참조할 수 있으며, 추정 결과는 <표 7-3>에 기록되어 있다.⁵⁸⁾

이 표의 두번째 칸은 설명변수로 인구학적 변수만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네번째 칸은 모든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에 4개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더미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러나 연도별 더미를 포함하

56)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자산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총자산, 총부채를 동시에 설명변수로 한 추정결과의 차이가 없었다.

57) 자영업의 소득과 자산 등이 내생변수라는 합리적인 주장이 있고(Holtz-Eakin, Joulfaian and Rosen, 1994), 종속변수로 이들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error in variable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 변수가 특정 시점에 주어진 것이라는 강력한 가정을 적용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58) 분석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는 제외하였다.

<표 7-2> 설명변수의 평균값

설명변수	분 류		
	자영업 지속	자영업 이탈	전 체
성별(0: 여성 1: 남성)	0.724	0.690	0.721
연령	45.367	42.675	45.21
혼인상태(미혼 기준)			
기혼 유배우자	0.866	0.840	0.864
이혼/별거/사별	0.083	0.075	0.083
가구주와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201	0.245	0.204
자녀 또는 기타	0.041	0.065	0.043
거주지역(서울 기준)			
인천·경기·강원	0.248	0.285	0.250
대전·충청	0.078	0.080	0.078
대구·경북	0.119	0.105	0.118
부산·경남·울산	0.203	0.135	0.199
광주·전라	0.091	0.085	0.091
교육기간(년)	10.897	11.390	10.925
생애취업기간(년)	18.233	14.360	18.014
현 직장의 취업기간(년)	461.139	310.2	452.594
생애취업기간의 제곱	8.993	5.462	8.793
현 직장의 취업기간의 제곱	185.247	99.666	180.402
가구 월평균 소득(log값)	4.875	4.041	4.828
가구 총자산(log값)	8.821	8.487	8.802
가구 총부채(log값)	2.779	3.955	2.846
자영업의 적자 여부(1: 적자)	0.119	0.430	0.136
자영업 소득	3.569	0.360	3.389
산업(제조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0.051	0.100	0.541
도소매 및 판매업	0.250	0.400	0.258
음식·숙박업	0.096	0.235	0.104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	0.049	0.015	0.047
금융·보험 및 부동산	0.042	0.050	0.042
기타 서비스업	0.096	0.120	0.098

여 추정된 결과 모든 더미의 추정계수값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표 7-3>에서는 이를 제외한 추정 결과만을 보고한다.

인구학적 변수만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이탈을 추정된 결과는 연령과

부산·경남·울산지역 변수만이 유의한 값을 지니며,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은 자영업의 이탈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의 지속 여부는 인구학적 변수보다는 가구 및 개인의 경제상황, 그리고 인적자본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적자본변수와 가구 및 개인의 경제적 변수 모두를 설명변수로 추정한 결과 Pseudo-R²값이 이전의 0.0165에서 0.02054로 크게 높아졌으며, 인적자본변수와 경제적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 이탈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모형 2에서 남성일 경우에 이직할 확률이 높다. 이는 인구학적 변수만을 사용한 모형 1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자영업주의 연령은 모형 1에서 매우 유의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모형 2에서는 $P > |z|$ 의 값이 0.974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라는 변수가 가구의 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등 경제적 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모형 2에서도 혼인상태나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구학적 변수들은 자영업의 이탈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모형 2에서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자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들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다른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비해 장기간 자영업에 종사하는가의 원인은 향후 정책적·학문적 관심의 대상이다. 일견하여 이들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 상황이어서 자영업을 그만두었을 때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⁵⁹⁾

59) 지역별 자영업주의 평균소득은 서울이 156.3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기·인천·강원의 140.8만원이다. 또한 부산·경남·울산은 140.4만원, 광주·전라가 113.0만원, 대구·경북이 102.1만원이고, 대전·충청은 97.5만원으로 가장 낮다. 따라서 자영업 소득의 절대값 기준으로는 부산·경남·울산의 경우 자영업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자영업의 이탈 결정은 절

대표적 인적자본인 교육수준도 자영업의 이탈 가능성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 직장의 취업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0.0622 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자영업을 계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영업에서도 직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⁰⁾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자영업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생애취업기간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자영업 이탈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탈 확률이 낮아지는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영향력이 자영업자 개인 근로소득의 영향력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즉 자영업자의 경우 이직의 결정은 개인의 근로소득(추정치 -0.0084)보다 가구의 총소득(추정치 -0.0724)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이 개인사업이기보다 가족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또한 자영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을 때 자영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소득 또는 개인소득이 자영업 이탈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구의 총자산이나 총부채 규모가 자영업의 지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비록 추정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일치하여 총자산이 많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총자산에 대한 추정치가 10%에서도 유의하지 않는 반면, 총부채에 대한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여 영향력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형에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자영업의 소득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총자산의 증가가 자영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구소득이 가구 총자산의 함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제시한다.

대소득보다는 임금근로와의 상대적 소득이 더욱 중요하다.

60)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이직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금재호·조준모, 2002).

〈표 7-3〉 자영업 이탈의 로짓(logit) 추정 결과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	P> z	추정계수	P> z
상수항	-0.3097	0.486	-3.1712	0.000
성별(0: 여성 1: 남성)	-0.2755	0.211	0.9130	0.025
연령	-0.0265	0.000	-0.0004	0.974
혼인상태(미혼 기준)				
기혼 유배우자	-0.2262	0.295	-0.0410	0.918
이혼/별거/사별	-0.1939	0.519	0.1458	0.771
가구주와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0927	0.698	0.5197	0.212
자녀 또는 기타	-0.2847	0.283	-0.1058	0.807
거주지역(서울 기준)				
인천·경기·강원	-0.0491	0.708	-0.2726	0.195
대전·충청	-0.3522	0.098	-0.4898	0.126
대구·경북	-0.3026	0.093	-0.5847	0.040
부산·경남·울산	-0.3785	0.015	-0.7166	0.005
광주·전라	-0.3091	0.106	-0.3437	0.258
교육기간(년)	-0.156	0.343	0.0211	0.439
생애취업기간(년)	-	-	-0.0261	0.310
현 직장의 취업기간(년)	-	-	-0.0622	0.006
생애취업기간의 제곱	-	-	0.0002	0.720
현 직장의 취업기간의 제곱	-	-	0.0014	0.004
가구 월평균 소득(log값)	-	-	-0.0724	0.043
가구 총자산(log값)	-	-	-0.0507	0.233
가구 총부채(log값)	-	-	0.0232	0.093
자영업의 적자 여부(1: 적자)	-	-	0.5824	0.014
자영업 소득(log값)	-	-	-0.0084	0.000
산업(제조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	-	2.1181	0.000
도소매 및 판매업	-	-	2.0742	0.000
음식·숙박업	-	-	2.4793	0.000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	-	-	0.7313	0.260
금융·보험 및 부동산	-	-	1.3623	0.002
기타 서비스업	-	-	1.8196	0.000
관찰치	4,570		3,533	
Pseudo R-square	0.0165		0.2054	
Log likelihood	-1456.8		-610.71	

흥미로운 사실의 하나는 자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우 추정계수값이 2.4793으로 가장 높고 이는 음식·숙박업에서 자영업 이탈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소매 판매업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자영업 이탈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의 부침(浮沈)이 상대적으로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빈곤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자영업 이탈과 이직의 자발성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직장을 그만둘 때, 그만두는 이유를 두 단계에 걸쳐 상세히 질문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질문하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묻고 있다. 자영업 이탈에 대한 두번째 단계의 연구로 이직 사유를 감안하여 모형을 추정하기로 한다.

즉 자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1'의 값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2'의 값,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3'의 값을 지니는 지수(index) 변수를 설정하고,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사이에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7-4>에 나타나 있다. 자발적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 변수는 연령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가구 총자산으로 연령이 낮고, 소득과 총자산이 많을수록 자발적 이직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소득이 낮거나 자산규모가 적을 때 자영업을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영업의 지속 및 성공 여부에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⁶¹⁾ 자영업의 지속 여부에 미치는 자산규모의 영향력은 도소매 및 판매업, 음

61) 이는 Evans and Jovanovic(1989), Blanchflower & Oswald(1998) 등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7-4〉 다변량 로짓을 사용한 자영업 이탈 모형의 추정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자영업 지속, Y=1)			
	자발적 이직(Y=2)		비자발적 이직(Y=3)	
	추정계수	P> z	추정계수	P> z
상수항	-5.7562	0.000	-1.9901	0.034
성별(0: 여성 1: 남성)	0.4289	0.207	0.4107	0.086
연령	0.3502	0.039	-0.0249	0.105
교육기간(년)	0.0630	0.134	-0.0297	0.378
생애취업기간(년)	-0.0577	0.146	-0.0234	0.432
현 직장의 취업기간(년)	-0.0477	0.180	-0.0716	0.013
생애취업기간의 제곱	0.0005	0.596	0.0004	0.580
현 직장의 취업기간의 제곱	0.0012	0.161	0.0015	0.013
가구 월평균 소득(log값)	-0.1611	0.000	-0.0022	0.967
가구 총자산(log값)	-0.0919	0.085	-0.2840	0.613
가구 총부채(log값)	-0.0047	0.824	0.0297	0.077
자영업의 적자 여부(1: 적자)	0.7009	0.491	1.3106	0.020
자영업 소득(log값)	-0.1355	0.217	-0.2853	0.000
산업(제조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3.1017	0.000	1.1467	0.042
도소매 및 판매업	2.3532	0.000	1.9637	0.000
음식·숙박업	2.4893	0.000	2.3878	0.000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	-40.961	1.000	0.9850	0.143
금융·보험 및 부동산	1.6141	0.026	1.4806	0.006
기타 서비스업	1.9727	0.001	1.8209	0.000
관찰치	3,533			
Pseudo R-square	0.1829			
Log likelihood	-736.877			

식·숙박업에서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들 업종에서는 자산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주들이 많고, 이들 자영업주들은 사업을 그만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자발적 이직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추정된다.

〈표 7-4〉의 네번째 칸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를 설명한다. 비

자발적 이직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먼저 남녀의 성별로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현 직장의 취업기간은 비자발적 이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의 소득이 낮을수록, 총부채가 증가할수록 비자발적 이직의 가능성은 증대한다.

제4절 소 결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생존기간 및 이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임금근로자가 사업체를 창립한 시점으로부터 노동패널조사 시점(2001년)까지의 사업체 생존기간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1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영업자의 사업체 생존기간(15.3년)이 고용주(8.4년)보다 약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초기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고, 연령이 젊어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Bate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영업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자영업에서 벗어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인구학적 변수 및 교육기간은 자영업 이탈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중립적인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현 직장의 취업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0.0622 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고, 자영업에서도 직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가구소득과 자영업주 개인소득 모두 자영업의 이탈 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이직 확률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자영업자 개인의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여섯째, 가구의 총자산이나 총부채 규모가 자영업의 지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모형에서 가구소득과 자영업 개인

소득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총자산의 증가가 자영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자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업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추후 보완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의 과제는 자영업을 이탈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감에 따라 소득 또는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자영업의 경험이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취업 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의 문제는 개인적인 관심을 떠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사실상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저자본·저숙련·저학력의 자영업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제8장 주요 결과 및 향후 과제

제1절 주요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2001년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7.6%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나 대만, 홍콩 등의 경쟁 상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주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주의 증가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이 세계화, 기술진보, 경영시스템의 변화 등과 같은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특징적인 추세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영세한 저소득층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 자영업 부문이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완충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영업 노동시장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과거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의 어두운 결과일 가능성이 지적된다. 불균형의 고속성장과정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한 계층이 대거 자영업 부문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현

재의 방대한 자영업 부문이 경제의 효율성 및 유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덮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을 위험성이 높다. 과거와 같이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한다면, spillover effect 등에 의하여 자영업의 문제가 무리 없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뚜렷해진 성장 잠재력의 취약성, 국제경쟁의 심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여건은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의 확대, 빈곤, (잠재)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임금 부문보다 자영업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 보고서의 분석내용 곳곳에서 발견된다.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지만 근로시간과 투자된 자본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실제의 시간당 소득은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OECD국가에서는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자영업주보다 높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기술진보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도소매 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경쟁심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도시 빈민화되거나 불완전 고용될 위험성이 제기된다.

아직은 방대한 자영업 부문의 존재와 1990년대 이후에 발견되는 자영업의 증가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자영업의 증가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영업의 증가현상이 자영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또는 소득 증가의 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면 이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됨과 동시에 국가경제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임금 부문에서 퇴출되었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가 임금 부문에의 (재)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로 자영업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영업주의 증가추세를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자영업의 증가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결과인지에 대한 평가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주의 특성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주의 증가현상 자체가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과 비자발적 선택 모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기존의 연구결과들도 복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 노동시장의 중요성에 비해 아쉽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활발하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미미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실업대란에서도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임금근로자 또는 실업자이었으며, 자영업주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또한 자영업과 관련된 실업대책도 실업자의 창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로 어떤 분야에 무슨 창업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창업촉진 및 지원은 도리어 잠재적 실업자를 양산하고 노동시장의 내재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위험성까지 우려되었다.

앞의 논의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그 성격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도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초점을 집중시키며, 자영업의 개별적 집단별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자영업의 다양한 집단에 대해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고 자영업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기본 목표는 두고 있다.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해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연구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자영업 연구를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주요한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이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

서는 자영업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OECD국가의 자영업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의 자영업의 비중과 추세를 설명하고, 자영업의 유입과 탈출률, 그리고 고용안정성이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영업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OECD국가들의 자영업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분석 범위를 비농림부문으로 제한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비농전산업의 경우 1990대에 걸쳐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며,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주의 비중 증가가 명확하다. OECD국가들의 상당수와 같이 전체 고용증가율보다 자영업주의 고용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성별로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현상은 자영업주, 특히 남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는 OECD국가들에서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주 숫자의 증가는 주로 40대 계층에서의 증가에 기인한 점이 크며,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창업을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섯째, 근로자의 취업형태에 있어 40대는 일종의 전환기로 40대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주의 평균연령이 47.5세인 반면,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6.8세로 10세 이상의 격차가 있다.

여섯째, 자영업주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다. 그러나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분포와 추이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숫자와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고졸 이상 학력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1990년대에 걸쳐 과거의 부부 공동 운영방식의 자영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여덟째,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내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주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비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산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여성 자영업주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 자영업주는 다양한 업종에 참여하고 있다.

아홉째, 자영업주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숫자와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1990년대 자영업 시장을 직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영(준)전문가 집단의 성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근로자화가 1990년대에 관찰된다.

열째, 자영업주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비임금근로자의 89.7% 이상이 월 25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로시간이 30분 정도 긴데 이는 여성 비임금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장시간 근로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열한번째, 2001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자영업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 617만원이며, 월평균 소득은 177.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9년의 128.5만원에 비해 1.4배 증가한 값으로 자영업자보다는 고용주의 소득상승에 주로 기인한다.

열두번째, 자영업 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자영업주들은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혹은 다른 외적 요인들보다는 ‘자금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의 사업운영에서도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열세번째, 창업시 총 자본금의 현재가치는 평균 1억 2,853만원이며, 자기자본율은 평균 80.0%로 나타났다. 창업시 총 자본금의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 자본금의 58.9%에 불과하여 여성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영

세하고 소득도 낮을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창업시 투입된 자금이 많고 나이가 젊어서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장기간 사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 자영업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네번째, 일자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낮다. 이는 OECD국가에서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만족도의 분산은 자영업주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는 자영업들 사이의 내부적 격차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의 핵심적 결과는 소득 등 근로자간 경제적 격차가 임금 부문보다 자영업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며, 또한 1990대에 걸쳐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자영업이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은 임금근로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 영세민이 되거나 아니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제기한다.

제5장에서는 주로 외환위기 이후의 미시적인 가구조사자료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에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가구조사자료인 한국노동패널(KLIPS) 1998~2001년간의 미시자료와 1998년 이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영업 비율 등과 같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재정적 제약이 자영업 선택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적 제약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소득이 자영업 선택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의 경우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의 경우, 축약형의 프로빗 모형에서는 남

성에게서보다는 여성에게서 자영업 선택에 더 유의하게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가 포함된 구조 모형에서는 여성의 경우 아주 유의하게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넷째,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시적인 분석에서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구조적 모형의 추정 결과 실업률의 회귀계수가 (-)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고,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의 복잡한 내부 구성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임금 부문과 비교한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의 변화와 선택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자영업 부문은 소득수준, 소득 분산 등의 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증대되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영업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의한 하락 없이 일어났다. 이는 자영 부문 취업자 비중의 증가가 자영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창출에 의한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근래의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과 기업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영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영 부문에서의 기회의 (상대적인) 증대는 자영 부문 특수적

인 숙련의 분산의 증대를 수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불균등도의 확대, 영세 자영업의 생성과 소멸률(turnover rate)의 증대, 저숙련 자영업주가 고숙련 자영업주에 의해 구축되어지는(crowded out) 현상의 심화 등이 진행되어 왔거나 될 것임을 제시한다. 특히 전통적인 저숙련 자영업주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제7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생존기간 및 이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사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1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영업자의 사업체 생존기간이 고용주보다 약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초기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고, 연령이 젊어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Bate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영업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자영업에서 벗어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인구학적 변수 및 교육기간은 자영업 이탈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중립적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고, 자영업에서도 직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가구소득과 자영업주 개인소득 모두 자영업의 이탈 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이직확률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자영업자 개인의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일곱째, 자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업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추후의 과제는 자영업을 이탈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감에 따라 소득 또는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자영업의 경험이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취업 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의 문제는 개인적인 관심을 떠나 국가적

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사실상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제2절 향후 과제

이상의 정리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영업 노동시장은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과거 자영업 비중의 감소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축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인해 자영업의 비중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부문을 제외한 비농림 부문에서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3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문점을 제공한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의문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들처럼 자영업의 비중이 낮아야 하는가?’의 의문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영업의 비중 축소가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우리의 관심사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근로자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유도하는 것이며,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의 자영업 창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OECD국가 수준의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 진입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면 자영업 부문에서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무엇인가의 질문이 뒤따른다.

두번째의 의문은 자영업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주의 소득 불평등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이러한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빈곤의 위험성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가 더욱 높다.⁶²⁾ 또한 전체적으로는

자영업의 비중증가가 자영 부문에서의 새로운 소득기회의 창출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참여한 이들의 비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영업주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영업 부문에 아직도 잉여인력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잉여인력을 흡수하는 자영업의 완충기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자영업 부문의 본질적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 또는 정책실패의 결과인지의 의문이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부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정책적 관심의 결여가 자영업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자영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뜻한다.

세번째의 의문은 정부 고용정책의 방향이다. 정부의 고용정책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그동안 자영업에 관련된 정책은 주로 실업자의 창업지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창업지원은 그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지원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비효율적 요인이 많은 부문(특히 도소매 판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의 지원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잠재적인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자영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그 선택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주에 대한 심층적인 직업안정서비스의 제공 및 컨설팅, 그리고 직업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자영업주, 특히 영세자 영세주에게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등이 중요하다. 현재의 직업교육 및 훈련시스템에서는 영세 자영업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62) 이에 대해서는 금재호(2003)를 참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영세 자영업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세 자영업주를 이들 취약계층과 거의 동일시하여 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안정 전망을 확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영업 부문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감안되도록 자영업주의 특성별로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의 결과들은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의 상당수는 정확성과 엄밀성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에 자영업 노동시장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영업 노동시장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방향성과 해결책을 지니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영업의 부문별로 자세히 분석하면서 그 분석 결과들을 노동시장 전체의 그림과 연결시키는 지난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의 효율화와 합리화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연구는 도전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호, 「일과 빈곤(Working Poor in Korea)」,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김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2.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2.
- _____,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4권 2호, 2001. 6.
- _____,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제23권 3호, 2001. 9.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1호, 1999. 6.
- _____,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제23권 1호, 2000. 6.
- 류재우, 「근속급의 구조와 근래의 변화」, 『경제학연구』, 2002. 6.
- 류재우·박성준, 「기업근속에 대한 보상과 노동이동」, 『제2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2.
-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2002. 3.
- 성지미·안주엽,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2권 3호, 2002. 9.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2.

- Acs, Z. D. Audretsch, and D. Evans, "Why does the Self-Employment Rate vary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Discussion Paper No. 871,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1994.
- Alba-Ramirez, Alfonso, "Self-Employment in the Midst of Unemployment: The Case of Spain and the United States", *Applied Economics*, 26(3), 1994.
- Aronson, Robert L., *Self-Employment: A Labor Market Perspective*, Ithaca, New York: ILR Press, 1991.
- Audretsch, David B., "New-Firm Survival and the Technological Regi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 1991.
- Bates, Timothy,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 1990.
- Blau, David,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1987.
- Blanchflower, David G., "Self-Employment in OECD Countries", *Labour Economics*, 7, 2000.
- Blanchflower, David, and Andrew. J. Oswald.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1998.
- Borjas, George J. and Bronars, Stephen G. "Consumer Discrimination and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 Bruce, Donald, "Effects of the United States Tax System on Transition into Self-Employment", *Labour Economics*, 7, 2000.
- Cowling, M. and P. Mitchell, "The Evolution of UK Self-Employment: A Study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Role of the Macroeconomy", *The Manchester School*, 65(4), 1997.
- Cressy, R., "Are Business Start-ups Debt-Rationed", *Economic Journal*, 104, 1996.

- Dennis, W., "Self-Employ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17(4), 1996.
- Earle John S. and Zuzana Sakova, "Business Start-ups or Disguised Unemployment? Evidence on the Character of Self-Employment from Transition Economies", *Labour Economics*, 7, 2000.
- Evans, David S., and Leighton, Linda,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1989.
- Evans, David S., and Boyan Jovanovic,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 Fairlie, Robert W., "The Absence of the African-American Owned Business: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1999.
- Flyer, Frederick. "The Influence of Higher Moments of Earnings Distribution on Career Decis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1997.
- Heckman, James, and Sedlacek, Guilherme. "Heterogeneity, Aggregation, and Market Wage Functions: An Empirical Model of Self-Selec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985.
- Henley, Andrew., "Being Your Own Boss: Entrepreneurial Choice, Earnings and Employment Creation in 1990s Britai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ales, 1999.
- Holtz-Eakin, Douglas, David Joulfaian and Harvey S. Rosen, "Sticking It Out: Entrepreneurial Survival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1), 1994.
- Johnson, William R., "A Theory of Job Shopp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2, 1978.
- Jovanovic, Boyan, "The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 Econometrica*, 50, 1982.
- , “Job Matching and the Theory of Turnov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 1979.
- Knight, Frank H.,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Houghton Mifflin, 1921.
- Lazear, Edward P., and Moore, L. Robert, “Incentive, Productivity, and Labor Contrac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3), 1984.
- Lucas, Robert.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 1978.
- Miller, Robert A., “Job Matching and Occupational Choi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1984.
- Moore, Robert L., “Employment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Self-Employed Wor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1983.
- Pfeiffer, Friedhelm and Frank Reize, “Business Start-ups by the Unemployed - An Econometric Analysis Based on Firm Data”, *Labour Economics*, 7, 2000.
- Rees, H. and A. Shah,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 1986.
- Rosen, Sherwin., “The Theory of Equalizing Differentials”, in Ashenfelter, Orley and Richard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New York: North Holland, 1986.
- Ryoo, Jaewoo, and Rosen, Sherwin., “The Engineering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orthcoming, 2002. 10.
- Ryoo, Jaewoo. “A Theory and Evidence of Entrepreneurial Choice”, *Manuscript*, Univ. of Pennsylvania, 1994. 1.
- Schary, Martha A., “The Probability of Exit”, *Rand Journal of Economics*, 22, 1991.
- Schumpeter, Joseph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34.
- _____,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50.
- Schuetze, Herb J., "Taxes, Economic Conditions and Recent Trends in Male Self-Employment : A Canada-US comparison", *Labour Economics*, 7, 2000.
- Simpson, Wayne. and Robert Sproule, "Econometric Analysis of Canadian Self-Employment Using SLID", *The Income and Labour Dynamics Working Paper Series*, No. 75F0002M. Statistics Canada. 1998.
- Taylor, M., "Earnings, Independence or Unemployment: Why become Self-Employe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8(2), 1996.
- Willis, Robert J., and Rosen, Sherwin, "Education and Self-Sel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985.

부표 및 부도

〈부표 1〉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숫자의 변화: 전산업, 성별

(단위: %, 천명)

	연도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1988	2	281	1005	1062	824	464	3,638
	1990	3	249	998	1030	904	504	3,688
	1992	2	253	1113	1044	928	578	3,918
	1994	1	239	1210	1107	873	600	4,030
	1996	9	221	1184	1234	832	648	4,128
	1998	7	218	1115	1267	84	713	4,204
	2000	6	190	1040	1383	907	756	4,282
	2001	6	177	1017	1443	917	817	4,377
	2002.8	7	171	977	1528	924	865	4,472
여성	1988	1	205	408	378	298	163	1,453
	1990	2	139	346	377	312	203	1,379
	1992	3	148	389	387	341	238	1,506
	1994	1	131	431	385	318	247	1,513
	1996	10	168	458	442	328	278	1,684
	1998	10	146	412	453	279	275	1,575
	2000	6	129	378	539	309	357	1,718
	2001	9	117	378	560	334	392	1,790
	2002.8	8	115	377	567	352	402	1,821
여성 무급 가족 종사 자	1988	14	240	493	488	409	205	1,849
	1990	8	190	484	464	432	226	1,804
	1992	8	168	483	412	434	248	1,753
	1994	4	157	547	435	404	277	1,824
	1996	6	120	498	489	349	284	1,746
	1998	6	126	455	528	378	325	1,818
	2000	6	99	403	540	337	314	1,699
	2001	4	83	370	536	323	321	1,637
	2002.8	5	68	339	526	322	327	1,5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부표 2〉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시작 동기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

창업 동기	전 체	고용주	자영 업자	가족 종사자
전 체(명)	1,640	392	892	356
가족, 친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20.2	7.6	22.9	27.3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23.6	42.1	19.7	12.9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5.0	7.4	4.6	3.4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10.9	8.7	12.1	10.1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5.3	1.3	6.5	6.7
실직 후 생계유지 또는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18.2	19.4	19.5	13.5
기 타	16.8	13.5	14.7	26.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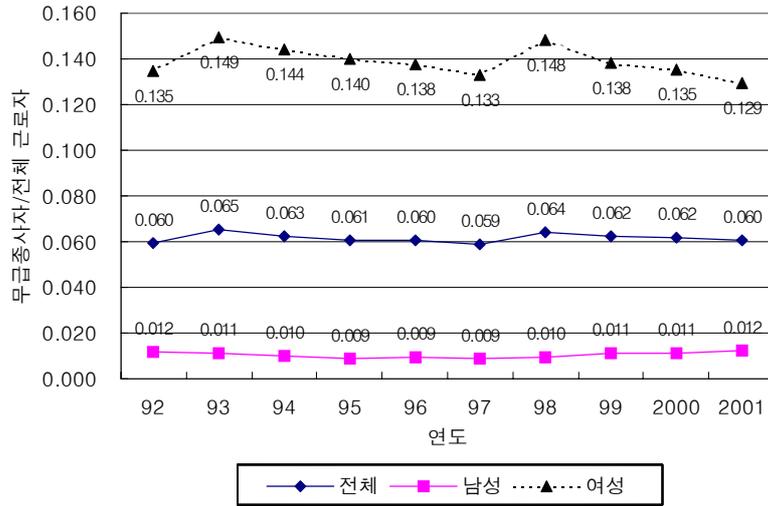
〈부표 3〉 자영업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변화 : 비농업, 65세 이하, 전일제, 남성

	연령				가구원수			
	자영업주			입금 근로	자영업주			입금 근로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1998	42.3	41.3	42.9	37.9	4.03	4.12	3.98	3.85
1999	42.9	42.1	43.4	38.1	4.05	4.13	4.00	3.90
2000	43.7	42.8	44.4	38.2	4.04	4.15	3.97	3.79
2001	43.7	43.4	44.3	38.6	4.09	4.21	4.01	3.88
	교육기간(년)				자기집 보유자 비율(%)			
1998	12.0	13.1	11.2	12.6	57.0	60.8	54.5	57.7
1999	12.0	13.0	11.2	12.5	56.9	61.2	53.7	57.4
2000	11.9	12.9	11.2	12.5	58.2	62.5	55.2	56.0
2001	11.9	12.8	11.2	12.5	59.5	66.7	54.4	58.9
	자산소득이 있는 자의 비율				자산소득규모(만원)			
1998	10.9	11.5	10.5	11.4	65.0	72.4	60.3	50.9
1999	12.3	13.3	11.5	15.7	62.9	66.8	60.0	66.7
2000	10.7	11.1	10.5	12.4	65.3	75.5	58.1	54.8
2001	11.6	14.9	9.2	12.7	78.2	127.8	43.2	63.9
총 관찰치수	3,404	1,408	1,996	8,539	3,404	1,408	1,996	8,539

주: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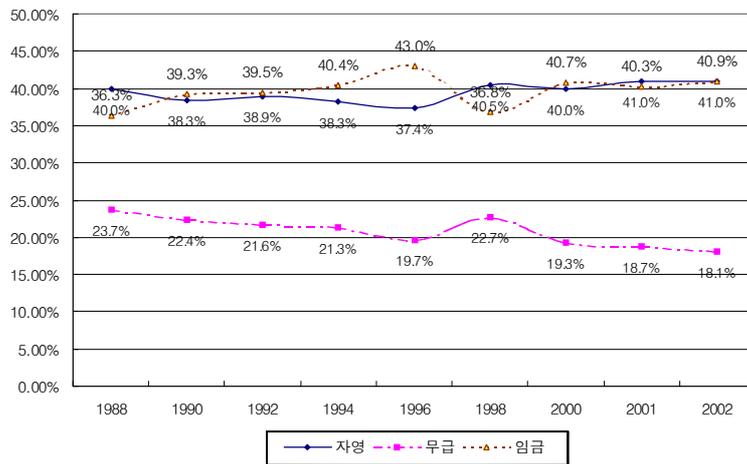
자료: KLIPS 제1~4차년도.

(부도 1) 비농전산업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부도 2) 초등졸 이하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전산업



[부도 3] 중졸 이하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 전산업

